

# 꿈꾸는 고향만리

김종호 지음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한편의 수필은 때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삶을 훈훈하게 하기도 하고, 분노와  
격정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게도 한다. 나는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수필을 쓸려고 노력한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글 중에서--

## 저자 김종호 ( Chong Ho Kim )



1939 : 경상남도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에서 태어남

1958 : 부산원예고등학교 졸업

1965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졸업 (공학사)

독일광산근무 (1965-67)

독일 Aachen 공대수학 (1967-68)

( Rhein. Westf.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

1969 : 캐나다 이주

B.F.Goodrich Tire Ltd 실험실 근무 (1969-74)

Kitchener-Waterloo 한인회장 (1979-82)

키치너 워털루 노인회 창설 (1979)

키치너 워털루 한글학교 설립 (1979)

캐나다 한인연합회 공로패 받음 (1981)

캐나다 한인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1983-85)

재 캐나다 독일동우회 회장 (2008-10)

제14, 15, 16, 17, 18기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재 : Tradewinds Motor Hotels Inc. 경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국제펜클럽 회원

저서

수필집 : 내사랑 한반도(2010), 삶의 길목에서(2013), 꿈꾸는 고향만리(2018)

E-mail : chonghojameskim@gmail.com

## 책 머리에

인간은 문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 하나는 "진"이라고 하는 지성에 관한 능력이요, 또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종교적 생명이며, 끝으로 "미"라 불리는 정서적 표현의 미적 활동이다.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흔히 현대사회는 물량주의로 대변되곤 한다. 여기 물질적 풍요는 곧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자조적인 이 시대의 문제를 말하듯,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낭만의 상실이요, 인간성의 상실이라 하겠다. 즉 기계화로 인한 편리주의는 점차 인간의 설 땅을 앗아가고 기계에 예속화를 가속시켜 간다. 이와 같이 비인간화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문학은 인간적 고뇌와 삶의 방향을 재단하는 궁극적 사명을 다해야 할 의의를 띠고 있다 하겠다. 그렇기에 한편의 수필은 때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타임머신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분노와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게도 된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키워주고,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의 온갖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나는 새벽에 소제가 떠올라 몇 자 꼬적이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쓴다는 것은 다름아닌 나의 오랜 습관의 연속이다. 물론 새벽에 꼬적거렸다고 해서 그대로 글(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필이 될 수 있는 골격 정도를 얼버무려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초고에서 머문다고 할까. 글을 쓰면서부터 느끼는 것인데 인생은 한 편의 수필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쁜 날에는 기쁨을, 슬픈 날에는 슬픔을 고독 속에 삭여 승화시키면서 정제된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작업이며 나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인생을 깊이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나는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수필을 쓸려고 노력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오래 되었지만 수필이라는 텃밭에서 내 삶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리고자 애써온 것뿐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여태껏 내가 창조해 낸 작품 세계에 대한 어떤 품격을 완미한 수필에 가담이나 할 수 있으련만 부끄러운 불만 뿐이다. 그 술한 작품 속에서도 작품다운 작품을 꼽기가 힘들다는 자괴감이다. 마땅히 작가는 만인이 공유할 만한 작품 한 편 써야하련만 지금까지도 그렇지 못함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나의 체험과 사색의 부족이리라. 그러나 나의 수필은 일조 일석에 되어지는 기적의 산물은 아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생각의 산물이요, 오랜 구상에서 태어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내 뜻이 둔하고 재주가 없어서 표현이 엉성하지만, 딴에 오랜 세월 사색을 겪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나의 수필이란 것을 변명 삼아 이야기해 둘 뿐이다.

사람은 가끔 자기 스스로를 차분히 안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알뜰한 작업이다. 내가 수필을 쓴다면 내 전공도 아닌 주제에 얼마나 잘 쓰겠는가마는 다양한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삶이 이루어진 캐나다, 나의 세 번째 인생이 펼쳐진 곳이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순간 순간을 알뜰히 보내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한 편의 수필을 쓰면서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성을 다하여 쓴 나의 글이 여러 독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힘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한다.

201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자 김 종 호

# 차례

## 1. 나의 살던 고향

고향이 부르는 소리  
까치소리와 고운님  
초고속 열차 KTX 여행기  
고향의 미각  
사돈집 처녀들  
나그네의 길  
달라진 우리 밥상  
가을과 함께 찾아온 죽마고우  
봄의 향기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깊어가는 겨울에  
핵가족 사회에 문제 있다  
선진국민이 되려면 질서를 지켜라

## 2. 기쁨과 희망의 계절

새 봄은 이미 우리곁에  
아름다운 계절 4월  
봄나물과 채전밭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  
기쁨과 희망의 계절  
골프와 친구  
손자 손녀가 검은띠(Black Belt) 받던 날  
순교자 성지로 가는 길  
밀짚모자와 틸리 모자  
지난 여름  
가을의 시작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인가  
10월의 어느 날  
다시 돌아온 가을  
겨울 산  
메이플 시럽 축제

### 3. 인연 이야기

세월따라 흘러간 청춘  
토론토의 겨울  
태극기와 애국가  
인연 이야기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무는 섬나라 일본  
순교자의 성지 미들랜드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콧수염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대회에 부쳐  
마캄성당, 그리고 억만장자  
눈 치우는 소리  
바둑과 인생  
메노나이트(Mennonite) 이야기  
에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인간과 건망증

#### 4. 민족 문제에 대한 생각

한반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반도에서의 꿈  
통일 한반도를 그리다  
한반도의 통일과제와 전망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한 겨울날의 작은 통일  
지금 무슨 모습인가  
통일의 꿈은 언제쯤 오려나  
민족 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 민족이 사는 길  
한일 수교 50년, 그리고 전망과 미래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70년 분단을 청산하고 평화통일로 가자  
이 나라가 바로 설려나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미래 향한 이정표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사이에서의 한국외교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규탄한다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방황하는 한반도

## 5. 나의 기행문

여행의 기억

상해(Shanghai)의 어제와 오늘

만리장성과 진주 목걸이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1)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2)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3)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4)

베트남 VIETNAM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의 비극 (킬링필드와 톤레삽 호수)

카리브 해의 보석, 쿠바 CUBA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가스 Las Vegas

안개와 바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빙하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

옐로스톤 국립공원 Yellowstone National Park

요세미티 국립공원 Yosemite National Park

## 6. 세월 유감

가는 해(2013)와 오는 해  
희망의 새해 2014년  
눈 내리는 날의 산행길  
세월 유감  
캐나다 현충일에 느낀 점  
일본의 추한 얼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너희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제 얼굴에 침을 뱉지 말라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가가 그립다  
봄은 가는데 추위는 그대로  
새 삶의 길을 찾아서  
얼음비와 눈폭풍  
한해를 보내면서(2014)  
희망의 새해 2015년  
3월에 내리는 눈  
고향만리  
이제 그만들 하자  
한해의 끝자락 12월에

## 1 나의 살던 고향



## 고향이 부르는 소리

계절이 빠르게 전진하는가 싶더니 홀연 후퇴하기도 하며 가을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의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덕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점차 가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나의 고향으로 가는 정든 길은 동해 바다를 끼고 있고 논과 밭이 이어져 있는 농촌이었다. 논이란 땅에 물을 대어 벼를 심고 쌀을 수확하는 지역을 이르는 말이고 밭이란 항상 물을 대지 않는 마른 땅에 보리, 콩, 채소, 깨 등의 작물을 심어 가꾸는 곳이다. 이와같이 농촌에서는 논밭을 많이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농이기에 논밭의 소유면적이 부의 상징이며 재산이다.

동해남부선 철로를 따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농토가 많으며 산이 많고, 그 산에 숲이 우거져 공기와 물이 매우 맑은 고장이었다. 내 고향의 논밭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곡창이며 삶의 터전이었다. 어릴 때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녹아 있는 고향의 논밭이 진정 나의 고향이다. 세월이 흘러 가는 곳마다 그 고향이 지금은 빌딩숲으로 변해버렸다. 논밭이 있다해도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나이 많은 분들만 살고 있는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다. 물론 옛날 같이 논밭에는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묵혀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옛날에는 경남 동래군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시로 흡수되어 있으나 옛것을 고수하는 나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동래군으로 부르고 있다. 해운대와 기장으로 대표되는 동부산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그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용소마을이 나의 고향이다. 이곳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정이 뚝뚝 묻어나는 사투리 또한 단단히 한몫을 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만 알려졌던 곳이 지금은 한국 영화의 발상지로 부산 국제 영화제가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성장하면서 "영화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높은 빌딩들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가 하면 롯데, 삼성 백화점이 세계에서 최대의 규모로 자랑하고 있으니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 되고

있다. 부산에 살고있는 조카와 삼성백화점을 구경을 했는데 빌딩규모로나 내부시설이 초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어 지금 내가 뉴욕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이곳에서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 때엔 다섯 개로 보였다, 썰물이나 맑은 날에는 여섯 개로 보인다는 신비의 섬, 오륙도의 빼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의 동백섬 주위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바다와 숲이 만드는 절경과 함께 멀리 광안대교, 오륙도, 달맞이 고개 등을 볼 수 있다. 기장은 작은 어촌 마을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미역과 갈치와 멸치 잡이로 언제나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의 짠 내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진한 삶의 향기가 전해 온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기장과 정관 일대로 인구수가 늘고 있으며 특히 장안 일대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소재하고 있다.



고국을 찾을 때마다 정해져 있는 일로 지난 11월 조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선산을 다녀왔다. 나고 자란 고향 선산의 모습은 언제 봐도 정겹다. 계곡으로 올라가는 산길가에는 높이 선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들은 가을 빛깔이 완연하다. 빨간 건 빨간

대로, 노란 건 노란 대로, 철없이 푸른 건 푸른 대로 한결 맑다. 이렇게 숲은 진한 가을 내음을 뿜고 있다. 어릴 적 해 질 무렵 동네를 싸고돌던 밥 짓는 연기 냄새 같기도 하고 쌍싸래한 약초 냄새 같기도 하다. 습지에 쌓여 삭아 가는 낙엽 냄새가 시큼하고 솔 내음이 알싸하다. 어릴적에 보았던 작은 침엽수와 활엽수림이 세월 따라 변해 온 끝에 절정으로 무르익은 극상림이 됐다. 키가 몇십미터나 되는 활엽수들이 갖가지 빛깔로 물든 장관은 아름다웠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고운 단풍은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며 가을마다 찾아오는 오색단풍은 소중한 가을의 추억을 선사한다.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낙엽 내음이 구수하다. 이렇게 숲은 치열한 삶의 경쟁을 접고 고요한 쉼을 준비하고 있다.

선산을 한 바퀴 돌고 오는 단풍길은 쉬엄쉬엄 세 시간 넘게 걸렸다. 황홀한 만주 속을 헤매며 세상 시름 다 잊었다. 빛 고운 단풍 보겠다고 일부러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선산으로 가는 이곳이 단풍 천국이었다. 그것도 사람에 치밀 걱정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며 숲길을 걸었다. 고향을 오면 언제나 생각나

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쇠풀먹이기, 쇠풀 베기, 논밭 김매기, 모내기, 못줄잡기, 보리 베기, 보리타작하기, 벼 추수하기 등 땀 흘리며 했던 일들이 생각 속에 생생 하여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요즈음은 기계화되어 농사를 지으니 편리하고 능률적이다. 내 어린시절 농민들의 농사일을 생각해 보면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순수하고 인심 좋고 비록 가난하였어도 인정이 있었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어릴 때의 내 고향 마을의 여러 가지 추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추억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으며 나를 즐겁게 하였기에 지금도 고향에 가고 싶고, 돌아갈 내 고향이 있으니 나는 행운아요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를 순화시켜준 산천이 있었기에 고향이 그리워지며 고향이 어느 도시보다 크게 보이기에 그곳에 돌아가고 싶고 그곳에 다시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 게다. 고향이 그립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 사랑의 공간을 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향에 가야 한다는 것은 사랑할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일 게다.



나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키워 준 고향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반겨주는 그리고 마치 어머니 같이 사랑하며 지내온 내 고향산천을 항상 자랑하며 긍지를 갖고 얘기할 것이다. 지금도 고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 2013-12-13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까치소리와 고운님

지난 가을 고향집을 찾았다. 어릴 때에 살았던 고택에 들어서니 까치가 와서 지저귀고 있다. 앞 개울가 미루나무에 둑지를 틀고 사는 까치인데, 이 까치에게 오랫만에 고향땅을 찾아오는 나그네가 반가운 손님이었는지 모르겠다. 오랫만에 들어보는 까치소리, 물론 반가워 하는 까치를 보니 고향에 왔다는 안도감이 들어 마음이 편하다. 까치는 그 생김새도 산뜻하고 날렵할 뿐 아니라 소리도 듣기 좋고 해충을 잡아먹어 우리 인간에게는 도움이 되는 귀한 익조다. 다른 날짐승들에 비해 높게, 멀리 날지 않고 짧은 거리를 날며, 울 때에 꼬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습도 신기하며 우는 소리도 여성적이며 아름답게 들린다. 아침부터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해진다.

우리나라의 국조(나라새)인 까치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과 친근하였던 야생조류로서 일찍부터 동요와 문헌에 많이 등장한다. 북미에서는 볼 수 없으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서부에 분포하는 텃새이다. 둑지는 높은 나무가지에 틀고 때로는 전봇대나 송전선을 이용한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재료로 하여 둑근 모양으로 틀고 다소 흙을 이용하여 굳히며 옆쪽에 출입구를 낸다.

까치는 날개에 검은색과 흰색이 잘 조화롭게 배색되어 있어서 몸 전체가 모두 검은색의 까마귀보다 보는이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을 더해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밖에 길조인 까치가 깍깍하고 울면 반드시 멀리서 좋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까치는 반가운 사람이나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알리는 새로서, 뜰안에 까치집이 있으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까치집을 길조라고 했다. 그리고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수 있는 비방을 가진 새로서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세시풍속 중에 칠월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놓은 오작교를 건너서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칠석에는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고 하며, 칠석날을 지난 까치는 그 머리털이 모두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느라고 돌을 머리에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까치집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옛날 정든이의

집을 보는 것 같아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북미에도 여러 종류의 날짐승들이 있지만 까치는 보지 못했다. 까치를 보는 순간 어릴적에 놀던 옛날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 본능에 지난 일들이 잠재하고 있는 증거 일 게다. 흐르는 세월은 안타깝게도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랜 이민 생활에 그리움으로 가슴속에 뜰뜰 뭉쳐있던 그들, 한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잊지말자고 함께 읊조리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긴 세월이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그 동안 살면서 사랑했던, 낙엽처럼 떠나버린 보고 싶은 사람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이제 둔한 아픔의 감정으로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선산으로 가는 산골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도 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해져서 인지는 몰라도 야산에 생존하는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그러나 11월의 늦가을에 옛날 시골집들의 감나무는 나뭇잎이 서리로 인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다. 그 가지에 몇 개의 주홍감이 매달려 색갈을 뽐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텅 빈 가을 하늘의 여백이 오롯이 빨간 방점 하나를 찍으며 까치밥이라는 이름으로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감들은 가을 정취의 대명사 중 하나이다. 긴 장대 끝에서 늦가을을 정리하며 잎들조차 떨어져 허전해진 감나무의 쓸쓸함에 빨강색 여유로움이 시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까치밥은 날짐승들이 와서 먹으라고 다 따지 않고 남겨 두는 감이다. 긴 겨울을 날 차비를 하는 새들에게도 먹거리를 나누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인정이고 속 깊은 배려이다. 나눈다는 것은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나눔 속에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나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세상이 아주 윤택해졌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생활이 편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정신적 질서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어 나눔 문화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사회 기본질서의 확립과 효 문화와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 등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사회병폐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모자라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으며, 과학문명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나눔의 문화가 꽂피워져 있었고 하찮은 들짐승에 대하여도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의 결과인 까치밥을 남겨 놓는 배려와 나눔이 있었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옛날 고운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가웠다. (2014-03-07 한인뉴스)

## 초고속 열차 KTX 여행기

누구나 한번씩은 옛날 완행 열차를 타보았을 것이다. 학보병 군 복무중 한번 주어지는 휴가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앉을 자석이 없어서 열차 바닥에 누워 자면서 산구비를 돌아가는 기적 소리에 가슴을 설레이며 8시간을 타고 간 기억이 아직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지난 11월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녀온 우리 내외는 아침 일찍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인천 국제공항에선 국내선 연결이 안된다고 한다. 안내원에 의하면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고속버스나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가는 방법이 있지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부터인가 한번 KTX를 타 보고 싶어했다. 한국 고속철도 KTX는 지난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시속 305km/h 나 달리는 초고속 시대가 열렸다.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한국의 철도 개통은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단축으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5 번째로 초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나그네는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을 경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갈 결정을 했다. 인천 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표를 구입했다. 표파는 젊은 아가씨가 보니 어디에서 온 시골 할아버지가 흰머리에다 어눌한 한국말을 하니 불상했던지 고맙게도 노인확인표를 주었다. 공항 철도역에는 아침의 바다 바람이 찬 기류를 몰고 온다. 찬 공기는 온 전신을 상쾌하게 해주며 눈도 밝아지는 모양인지 낯 익은 서해 바다의 푸르름이 시야를 넓혀 간다. 분명 지금은 아침인데 석양의 낙조가 한 폭의 그림으로 스쳐 지나 가는 듯 하다.

여행중엔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인데 인생사엔 무슨 제약이 그리도 많은 것일까. 기차 시간표의 제약, 정거장의 초조한 확인, 아는 길도 다시 물어야 안심하는 불안감, 여권과 차표와 지갑 등을 먼저 본 후에야 느끼는 안도감, 이는 다 피할 수 없는 인생사의 현실이며 나그네 삶의 실상이다. 노년기의 여행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상상과 설레임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준비와 건강 관리 문제에는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된다.

인천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는 출발하고 마음은 조용히 까라 앓는다. 서울로 가는 길,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는 건, 산에 있는 단풍 만이 아니다. 바람이 소슬해지면 함초가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고 회색빛 융단을 붉게 물들인다. 회색빛 갯벌 위에 붉게 타오른 함초가 꽃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고 광활한 갯벌을 품은 인천은 곳곳에 함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달리는 열차 창밖에는 바다의 맑고 건강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바다의 약초가 군락을 이룬 인천 갯벌이 아득히 시야에 펼쳐진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완만한 지형이 형성된 곳에 펼쳐지는 갯벌은 유일하게 서해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넓게 펼쳐진 갯벌을 물들이는 장면은 서해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다. 갯벌이란 밀물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하며, 줄여서 갯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라고도 한다.

친절한 여자 승무원의 안내로 열차 지정석에 앉았다. 드디어 총알처럼 빠르다는 말이 비교가 될 만큼 부산까지 직행 KTX는 길게 포효를 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레일의 이음매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최소화 되어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눈을 감고 있으면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초고속철도 개통으로 대한민국의 생활 혁명을 가져왔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을 빠르고 편하게 잇는 경부선 KTX는 여행의 설렘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11월의 한반도는 어쩐지 조금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시야가 맑은 11월이야말로 열차를 타고 한국 지방마다의 숨겨진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적기라고 생각된다. 나는 한국의 작은 산봉우리들과 계곡의 아름다움에 들뜬 분위기에 취하고 곳곳에 무르익어 가는 늦가을 정취도 꽤 낭만적이었다.

들판에는 콩과 벼 이삭이 누렇게 물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마을과 산에는 빨간 감들이 달려 있어 나그네의 마음에 침을 삼키게 한다.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허락된다면 각 지방마다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나는 각 지방을 돌며 아직 가을의 정취를 느끼지 못한 11월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놓치지 않도록 멋진 가을 여행을 한반도 전체를 돌아보고 싶다. 외국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나는 한식이 항상 그립고 정이 간다. 나이가 들면서 한식이 좋아지듯 언젠가부터 우리 말과 노래 소리가 듣기 좋아 한국을 매년 찾고 싶다.

산속에 숨겨진 작은 마을들과 산과 들판에 가을마다 찾아오는 오색단풍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지방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고유 단풍과 기차여행의 낭만이 만나 소중한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오밀조밀한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마력이 있고 자연에 동화된 기분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삶이란 만남의 장이다. 바다를 만나고 밤에는 꿈, 하늘을, 너와 나를 만난다. 달리는 열차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 기류에 젖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만나 가는 일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하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 지방의 고유 사투리의 억양에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정을 느낄 수 있어 마냥 그 곳에 머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히 2시간 15분이 걸렸는데 조용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TX는 속도도 빠르지만 기차시간표에 따라 일분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열차 운영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경영해 가는 전문성의 정밀함과 전문 직업인들의 철저한 책임성에 감탄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2014-01-3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고향의 미각

고향을 떠나 살다보면 옛정이 그리워지고 마음 속에 옛날들이 환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고향을 향해 몸부림같은 글을 쓰게도 한다. 나의 이 작은 몸부림이 메아리없는 소리로 그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고향에 대한 애정의 뿌리를 더 깊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이고 잊혀지지 않는 나의 고향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나는 유년시절을 살구꽃과 안개와 보리와 언어와 철죽이 어김없이 사계절 따라 찾아오는 작은 시골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그 자연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나 유년 시절의 고향에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빼꾸기가 울며 가을에는 5곡이 무르익고 들 국화가 한창이며 겨울은 길고 추웠다. 남쪽이라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다.

친구들과 그 추운 눈내리는 밤 늦게 놀다 돌아오면 별미로 먹을 것이라고 없었던 그 긴 겨울 밤에 먹던 김치말이 밤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한겨울 입이 쩍쩍 얼어붙는 것같이 싱싱한 동치미 국물에 국수나 찬밥을 말아 먹던 김치말이 맛을 무엇에다 비길까. 김치라야 추운 겨울동안 얼지않게 땅속에 김치독을 묻어둔 통무와 통배추를 소금국에 담근 별것 아닌 국물김치건만 그렇게 입 안이 찡하도록 시원하고 청청한 미각을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 그건 그대로 어린시절 고향의 자연 맛이라고 할밖에 없다. 자연 그대로의 미각도 내 기억 속에 싱싱하게 살아 있다. 그나마 단편적인 삽화 같은 고향에 대한 기억도 1965년 봄을 마지막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입춘이 지난 오늘도 오래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리고 있다. 강추위 속에서 자디잔 눈발이 마치 이슬비 오듯 내리고 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뒷뜰 텃밭에 김장 무우와 배추씨를 뿌렸다. 배추는 벌레들이 많아 실패작이었으나 무우는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을만큼 실하게 자랐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은 우리 한국사람들의 식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다. 몇해전만해도 집 안 사람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로부터 배운 솜씨로 된장과 고추장을 한번 담궈 먹었는데 첫번째 솜씨치고는 제법 맛이 있고 일품이었다. 주위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도하고 칭찬도 받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년에는 된장, 고추장을 담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귀하고 비싼 김치독(옹기그릇)을 구해와 며칠이나 걸려서 무우를 뽑고 다듬고 절리고 해서 제법 김장무우김치를 흉내내어 담겼다. 옛날 고향의 어른들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뒷뜰 땅에 얼지않게 김치독을 묻어야 된단다. 김치독이라야 조그만 두개의 장남감같은 옹기단지 땅에 묻는 번거로움보다 우리집 지하실이 넓고 공간이 많아 그대로 지하실에 두면 된다는 결론이 나고 지하실에 저장해 두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식품점에서 쉽고도 편하게 맛있는 김치를 한병씩 구입해서 먹었는데 한병이면 보통 한달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서 담군 김치는 그 값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모르긴해도 돈이 3배는 들어갔을 것이다. 그럼 그 김치 맛은 어떤가. 역시 옛날 고향의 추운 겨울밤에 먹던 어머님이 만든 그 기막힌 맛은 아니다. 조금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택도 없다. 정성들여 만들고 얼지않게 땅에 묻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모자랄기 때문일 것이다. 김치 맛을 이야기 했으니 집에서 무우김치 담그는 일이 계속될지 두고 보아야 될 것같다.

요즈음은 식탁에 김치가 없는 날이 없고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캐나다에 처음 이민와서 실험실에서 근무했을 때 직장동료들이 코를 틀어막고 김치 마늘 냄새 때문에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며느리와 손자손녀들이 집에오면 할배할매가 좋아하는 김치에는 손을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김치 맛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집 밥상에는 우리 고유의 음식 된장, 고추장과 김치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옛날 그 긴긴 밤에 먹던 통무우 김치 맛이 그립다.

고향이란 말만들어도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더 외로울 때가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삶의 처지, 아니면 자신의 환경이 이른바 고향상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아닐까.

## 사돈집 처녀들

서울에는 형수님이 한 분 계신다. 그 형수님은 여자 동생들만 넷이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생활을 부산에서 하던 수십 년 전 옛날 형님집을 가면 사돈 처녀들이 다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도 꼬마 사돈 처녀들이 셋이나 되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 오는 속담에 변소간과 사돈집은 멀 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의 사돈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사이였으며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사이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냈는 것 같다. 전쟁이 끝이나고 십여년 후 내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던 때 서울에서 만나본 꼬마 사돈처녀들은 어느듯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들이 되어 있었다.

그 후 또 반세기란 긴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나는 이방인이 되어 해외에 살고 있으니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형수님으로부터 가끔 소식은 전해 듣고 있었다. 지난 9월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때 뜻밖에도 옛날 사돈처녀들의 초대를 받았다. 이 나이에 옛날 코 훌리던 단발머리 사돈 처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었다. 그런데 50여년의 긴 세월을 느끼게 했다.

그날은 높고 파란 하늘과 유쾌한 기온의 전형적인 한국 가을 날씨였다. 서울 조카가 운전을 해서 복잡한 서울 시내를 벗어나고 분당과 용인 사이의 수지, 그곳의 고기리 산속 마을에는 정원을 소박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은 레스토랑들이 보였다. 번잡함을 피해 태양 광선 조명 받은 야산의 풍광을 흡뻑 즐기며 잠시 쉴 수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공간들이다. 작은 시내가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고 앞뜰에는 논과 밭들이 보인다. 깨끗한 산속 마을 이곳에서는 산속 자연의 기를 받아 간다면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한다. 길거리에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들이 지는 해의 주황빛 조명을 받으며 있는 모습이 나그네를 아늑한 고향으로 데려가는 느낌을 들게 한다. 복잡한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다.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경기도 어디라고 한다.

이제 성인들이 된 사돈 처녀는 이곳에서 고기리금잔디 토속한정식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 언제 만나도 반가운 인연들, 그 때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변

함없이 반겨준다. 이 바쁜 세상에 그래도 멀리 캐나다에서 찾아온 나그네를 위해 반기고 반겨주는 그들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그 어린 소녀들이 커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 지금은 어엿한 아기 엄마가, 할머니가 되질 않았는가.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훌러가는 세월의 발소리 같은 세월 탓이다.

옛날 코 훌리던 소녀도 이제는 불혹의 유역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낙엽으로 지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애환의 기슭이며 영육의 여울목을 그녀들은 지나왔을까. 사랑도 미움도 서러움과 기쁨도 어쩔 수 없이 훌러간다는 강물의 슬기를 사무치게 느꼈으리라. 마치 훌러간 세월을 모른 척 옛 고국 모습을, 빠르고 융통성 있게 역동하는 그들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다.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하여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곳에서 과분하게도 토속한정식으로 거창하게 점심을 대접 받었다. 모든 반찬들이 형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의 요리 솜씨라고 한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반찬 중에도 조카의 말에 의하면 특히 두부조림과 더덕구이로 소문난 곳이라고 한다. 더덕은 씹히는 식감과 혀끝에서 느껴지는 향긋함이 일품이었다. 더덕은 산삼에 버금가는 뛰어난 약효가 있어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 깔끄럽고 소박한 그릇에 신기하게도 섬세한 기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12가지 반찬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 고기리 금잔디 토속한정식에는 놀라울 정도로 14가지의 반찬이 나왔으니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화려한 진수성찬이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화려한 밥상을 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해외로 나왔으니 한국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대부분 자기가 마음 내키는데로 주물르고 어쩌고 해서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집에 요리책은 몇 권 있기는 한데 가끔 요리책에도 없는 것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한마다 하면 지난 50 여년을 건강하게 살아 왔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 사실 지금 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할말은 없다. 다만 서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

세월은 충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보람을 갖다 주는데 그리 인색지 않다. 고국은 이제 경제 대국에 맞게 선진국의 참신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아기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된 단발머리 사돈 소녀들은 아직도 상당히 미인들이고, 오는 손님들도 모두가 검은 머리의 젊은이들인데 나의 머리칼은 벌써 반이나 세었다. 이 다음 서울을 나갈 때는 머리에 염색을 해야겠다. (2013-05-1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나그네 의 길

인간은 모두가 다 나그네인데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지도 모른다. 집을 떠나 길에 나서면 누구나 나그네가 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정감어린 길이 그만큼 없기에 나그네도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 나그네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일정 공간을 거닐며 살다가는 그 공간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고 싶은 충동적 생명체이기도 하다. 길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움이란 외로움에서 비롯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생에서 사랑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 그리움은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어디론지 대상을 찾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리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으면 꿈과 희망을 키워 왔던 내 고향의 지난날이 어제 일처럼 올올이 떠오른다. 나에게도 집뒤 산위에 올라서서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빛나던 수평선의 끝, 먼 바다는 시야에서 사라지는 곳으로부터 상상으로 이어진다. 어린 마음 속에도 먼 바다 수평선 넘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리움을 품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불과 몇 해 전, 고향으로 가는 옛날 신작로는 흙먼지 풀썩이던 꼬부랑길 자갈길이었었는데 지금은 물론 포장도로로 변했으나 도시를 벗어나 얼마쯤 가자 정겨운 흙길이 뻗어 있었다. 아스라이 먼 산이 오히려 가깝고, 길가의 작은 또랑에서는 풀빛, 모래빛이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땅의 산은 저만치 먼 곳에 홀로 있지 않고, 이 고장의 사람들은 이곳에 외로이 홀로 떨어져 살고 있지 않다. 산도 사람들도 여기, 이곳에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산이 내 안에 있는지 바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산이 나를 품고 있는지 바다가 우리를 안고 있는지, 이것이 이 땅의 본 모습인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서 조용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강산의 자연의 숨결과 사람들의 삶이 순하게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웅장한 황홀함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섬세함의 비경이다. 이는 한국의 산과 강과 바다의 개성이요 독특함이다.

아주 먼 옛날 고향에서 살던 날들에 나를 스쳐간 물상들이 머리 곳곳에서 되살아났다. 그것들은 순한 눈을 가진 우리집 소, 까치, 갈매기, 까마귀, 참새, 재비같이 가까운 동물에서부터 집뒤 대나무밭과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 등으로 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물줄기들과 산언덕들의 내 영토가 있었다. 하기야 내가 그곳을 떠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곳에 관한 한 나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그 언덕으로 가는 길은 논밭이 양옆으로 펼쳐지고 멀리 산 모퉁이에 당산나무 높이 솟아 있는 곳, 풀 냄새, 흙 냄새에 하늘을 맞는 고향의 언덕이다. 오래 그리워하고 오래 기다려온 마음을 비로소 품어 안는 나의 사랑하는 고향, 그날 나는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지만 그곳에 간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 내 고향 언저리의 시골길을 내가 걸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또랑이 모인 개울에는 비록 징검다리도 없고 외나무다리도 없었으나 나는 내 마음속에 그 풍경들이 아로새겨져 옛모습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가을의 아름다운 날이 생각난다. 언제였던가, 통학열차가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멈추는 간이역에는 코스모스가 무리지어 피어 있고, 빨간 유홍초 꽃이 덩굴 위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었다. 햇빛은 아직 눈부셨다. 시커먼 화차들이 가을의 눈부신 햇빛 속에도 어딘가 어둠이 실려오고 있다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다. 그 시골 간이역들이 바닷가를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지개벽을 한 빌딩숲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새로운 곳으로 그 옛날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다. 세월이 이리도 빠른가, 참으로 초고속으로 달려온 특급 열차처럼 그 숱한 나날의 작은 간이역들을 쉬지도 않고 지나쳐 어느덧 종점을 향해 가는 가을의 한 고갯길에서 길고 지친 기적을 울리고 있는 계절의 뒷모습을 본다. 굳이 새겨보면 지나간 세월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 닿는 까닭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선가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잘못 살아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상과 열기에 들떠서 피지 못할 꽃을 피우려고 애쓰고, 지는 해를 멈추게 하려는 듯 늙어가는 모습을 애써 감추고 화려하게 치장하며 떨어지는 잎을 가지에 붙들어 매는 심정으로 초조하게 살지는 않았던가. 문득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감추어진 속살을 본 듯 부끄러워지는 마음, 그것도 세월이 주는 성찰이리라.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공룡들이나 오갔을 그런 무렵부터 생명의 만남을 속삭이며 여기까지 이어져온 길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그 길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끊어지고 있다. 옛날 알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별이라는 말만 남은 풍경 속에 나는 홀로 서 있다.

이별을 고한 지 어언 수십년, 그러나 아득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난 사람 어김없이 헤어지며, 살아 있는 우리 어김없이 죽는다는 말을 누가 굳이 하고 있는가. 인간은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시간의 한계와 거리의 제약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유한성이다. 나그네의 길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생명의 만남을 속삭이고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이미 떠남이 깃들여 있다고 누가 굳이 일깨우는가.

## 달라진 우리 밥상

우리가 자랄 때는 시골에서 어지간히 잘 사는 부농이어도 평소에 흰 쌀밥과 고기반찬을 먹을 수 없었다. 언제나 감자, 보리와 잡곡을 섞어서 먹었는데 특히 초봄 쯤 되면 쌀이 떨어지고 완전히 보리밥만 먹게 되는데 보리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 그 당시 보리밥만 먹을 수 있어도 불행중 다행한 사람들이었다. 요즘 젊은 이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라 불렀다. 우리는 땅도 작고 지하자원도 없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빈번한 수탈과 전쟁으로 숙명인 양 보릿고개를 술하게 겪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 이른 봄의 새파란 보리밭에서 종달새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떨어뜨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보릿고개라는 절량의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보가 될 정도로 진부한 넋두리가 되었다. 이런 시절에는 쌀밥과 반찬 타령은 도회지의 부잣집 자식들이나 하는 것이지 시골의 어린이들에겐 들어 보지 못한 말들이다.

명절이나 제사때나 또는 특별한 날일 때에야 쌀밥과 생선종류를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일 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조금 유식한 말로 생선이라고 했지만 이건 현대적인 표현이고 우리 어릴 때는 생선을 고기 또는 괴기라 불렀다. 고기라고 해야 어머님이 오직 자식들을 위해 시골 장날이나 나오는 갈치나 고등어 같은 것이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하여 온갖 노력으로 희생과 사랑을 있는 대로 퍼붓는다. 대개 인간관계란 내가 제공한 만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헌신적 희생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뿌리와 속성을 모르고 자랐다.

우리 동네는 산골 농촌이라 반찬은 주로 산나물과 날된장을 많이 먹는데 운 좋은 날은 밥상에 마늘장아찌나 새우젓, 멸치, 날된장 풋고추 조림이 관성의 법칙처럼 나온다. 1년에 한 번씩 여름철에는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개를 잡아 (그래서 "개값"이란 말이 나왔을 것이다) 온 식구가 포식하곤 했는데 물고기인 생선도 먹었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이 취하는 동물성 담백질이었다. 세월이 훌러 50여 년 전 군대에 갔을 때도 나의 기억으로 1주일에 한번씩 소고기 국이 나오는데 졸병 차례까지 오다보면 마치 소가 목욕을 하고 지나간 것처럼 기름기만 떠 있는 멀건 국물만 돌아오는 것이다.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한때 “박양”이라고 불리던 아내와 결혼을 하고 부터였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박씨의 제현께는 양해를 구하는 바이거니와 비교적 활달한 편인 아내의 성격이 좀 급하고 손이 큰 편인데 어릴 때 한국에서 못 먹었던 고기를 소급해서 먹어온 것이나 다름없을 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집에는 아들 녀석 둘을 얻었는데 건강하게 자라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의 자라는 과정에서 좋은 점은 모두 아내를 닮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모두 나를 닮았다고 하며, 요즘은 여성상위 시대라 딸들이 아들녀석들보다 부모에게 잘하는데 딸 없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사랑의 정도가 조금 헤퍼 나의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는 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몬트리얼에서 오랫동안 살다 아주해 온 대학동창 정선생이 살고 있다. 등산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다. 지난 주에 우리 내외를 집으로 저녁초대를 했다. 정선생은 손재주가 특별해서 컴퓨터나 현대기기를 모두 다룰줄 알며 심지어 영화도 만든다고 한다. 손재주가 없는 내가 배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 Mrs정은 가까운 친척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상하고 친절했다. 그날 우리가 특별한 손님 이었는지 밥상위에 적당히 소금 뿌려서 굽은 통째로 올라 있는 생선 조기의 크기를 보고 놀랐다. 가끔 식당에서 우리 손바닥 반 정도의 작은 조기는 보았지만 이렇게 큰 조기는 처음 보았다. 너무 큰 생선이라 나누어 먹자고 했더니 안된다. 그것도 한사람 한마리씩 먹어야 된단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진수성찬이고 과분한 대접이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런 조기를 먹어보거나 조기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을 것이다.

오래전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조기에 대한 어떤 구두쇠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난다. 짜디짠 조기 한 마리를 방 앞에 걸어 놓고 밥 한술 입에 넣고 조기를 쳐다보고 한술 뜨고 또 쳐다보고 해서 반찬을 했다는 것이다. 구두쇠의 아이가 밥 한술 떠 넣고 두 번 쳐다보니 벼락을 쳤다는 것이다. “너무 짤라 ! 짜게 먹으면 물켠다 !” 이건 물론 과장된 유머지만 아무튼 짜게 소금절인 조그마한 조기 자반 한 마리면 대 식구 한 끼 반찬이 충분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을 것이다.

정선생집 초대를 받고 온 바로 다음날 아내는 놀랄만큼 큰 사이즈의 귀한 조기 를 한 상자도 아니고 두 상자를 사왔다. 하기야 세월이 변해 요즘은 무엇이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풍요의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보릿고개를 체험할 만큼 어렵게 살지 않았고 손이 크고 씀씀이도 헤픈 편인 며느리를 보신다면 기절초풍 할 것이지만 우리집의 달라진 밥상을 보시면 그리 탓만하시지 않을 것이다. (2015)

## 가을과 함께 찾아온 죽마고우

계절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더니 어느덧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스치는 서늘한 바람과 한낮의 따가운 햇볕에 오곡백과가 토실토실 영글어간다. 캐나다에도 가을이 찾아 들었다. 9월이 지나니 집뒤 숲에 파란 하늘과 어리고 울긋불긋한 숲 그림자와 노란 단풍잎이 무더기로 내려앉고 있다. 어느새 가을이 깊었다는 의미다. 한여름의 더위가 예고도 없이 식어버리고 바람은 쌀쌀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축복처럼 열려 있다.

아, 가을 하늘, 얼마나 오랜만에 올려다보는 하늘인지,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늘은 넉넉하다. 가을에서는 그리움의 냄새가 난다. 가을냄새는 후각 이전의 감각이며 기억이며 느낌이다. 알고 모르는 모든 인연에 아련한 그리움이 돋고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들이 맑아내는 강물냄새처럼 원초적인 것들만 그들먹한 계절이다.

지난 주말 뜻밖에 나는 60년 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옛 친구 의학박사 김현준 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10일 간의 휴가를 내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캐나다 구경을 오니 구박을 하지말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한잔 싸란다.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던 1955년부터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던 죽마고우다. 50년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전쟁이 막 끝이나고 먹을 것이 없어 세상은 온통 보릿고개를 해마다 넘고 있던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병원을 개업했으나 시간을 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 부산의 어느 양노원에서 주치의로 근무하고 있단다. 잘 살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뛰어온 우리들이 아닌가. 친구의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글이 생각난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는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공자의 말씀이 나의 뇌리에 절묘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한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구름에 달 가듯이 순탄하게 살아가려 해도 미운 정 고운 정, 참 얹히는 것도 많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고자 고향으로 더듬어 올라가면 어린 시절에 그토록 친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옛 친구들이 간절히 그리워지기도 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들 중에서 친구라는 개념만큼 좋은 말도 드물다. 친구란 뜻 그대로 오래 전부터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과 마음의 만남에서의 친한 사람을 의미한다. 친구는 오랫동안 못 만나게 되면 우정은 소원해질 수도 있고 희미한 추억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친구는 그때그때의 친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는 일생을 두고 사귀는 친구다. 인연이란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는 것,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뀔만한 이렇게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너를 이곳 캐나다에서 다시 만나보게 될 줄이야 어찌 꿈에서나 상상했겠는가. 비행기로 14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임에도 옛 친구를 찾아온 것이다.

얼굴에 삶의 나이테가 완연하게 그려져 있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신사 친구를 만나니 유난히 옛생각들이 되살아나고 반추된다. 우리들이 이 나이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우리들은 서로 가깝게 흥금을 터놓고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한세상 살면서 어렸을 때 만난 친구는 때로 부모나 형제보다 가까울 수도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찾아가 술 한잔 기울릴 옛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허물없이 만날 수 있고 또 오래 오래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는 친구는 누구에게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 된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의 아내와 나의 아내는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반가워 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가까워지는 것은 남편들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해서였을 것이다. 이제 아들과 딸들은 모두 성가시켜 독립했으니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렇게 편안하단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술잔을 기울면서 지나간 추억들을 불러내어 우리들은 나름대로 겪어온 인생살이의 고난과 풍랑의 실타래를 풀어내기도 하고 학창시절의 기억들을 끝없이 펼쳐내어 옛 시절의 이야기는 끝이 날줄 몰랐다. 그때 그 청춘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 옛날이 아련해진 세월 속에서 별처럼 반짝인다. 옛 이야기에 취해 보내버린 청춘도 사랑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중얼거린다. 뭐가 그리 바쁘게 살아왔는지 풍요로운 인생은 필요한 게 많은 인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말은 아무리 곱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에야 터득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정말 볼 게 많은 나라다. 등산 등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큰 도시에서의 커피, 음식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통계청에서 발표한되로

현재 주민의 절반이 이민자 출신인 토론토에서 약 140여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퀘벡은 프랑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캐나다에 잘 왔다고 한다.

처음 와서 본 캐나다는 땅이 넓고 방대해서 좁은 땅 한국의 팍팍한 생활을 비교하니 마음이 푸근하고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넉넉해 보인다고 한다. 캐나다를 바로 본 표현이다. 한국의 여행사에서 계획된 캐나다 여행 스케줄은 알차게 짜여졌다.

밴쿠버, 밴프, 록키산맥, 캘거리, 몬트리얼, 퀘벡, 오타와, 토론토, 그리고 나이아가라 등 캐나다의 주요 명소와 관광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캐나다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여행코스가 되겠다.

고향의 푸른 가을 하늘과 황홀한 만추 속을 헤매며 세상 시름 다 잊고 빛 고운 단풍을 누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나만 오랫만에 해외나들이 나왔으니 방대한 대륙 캐나다의 가을이 선물하는 맑디맑은 자연풍경을 즐기고 마음에 담아 돌아갔으면 싶다. 우리들의 만남은 꽉 짜인 단체여행 스케줄이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대나무에 말처럼 머리와 꼬리를 붙이고 말타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라는 죽마고우의 고사성어가 무색하지 않은 귀한 만남이었다. 긴 세월의 어제를 품고 만난 우리들은 가을 단풍잎처럼 화려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부림 같아 발걸음이 묶인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친구와 마주 앉아 한잔의 술을 맛나게 마시고 싶다.

(2015-10-06)

## 봄의 향기

지난 2월달은 유난히도 추웠다. 사람의 감각으로만 그려할 뿐 아니라 기상청의 발표도 영하 25도이고 체감온도가 영하 40여 도라니 나의 기억으로 토론토에서 제일 추운 달인 것 같다. 그러한 모진 추위도 언제까지 계속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끈질긴 겨울이 좀 더 있다 갈려고 해도 이미 봄은 오기 시작하였다.

오늘이 경칩 ! 날씨가 따뜻하여 각종 초목의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생긴 경칩은 24 절기의 하나이며, 3월의 절기이다. 지하의 온갖 벌레들이 지루한 동면에서 깨어나 새봄의 생기를 들어마시며 새로운 태동의 기지개를 켜는 웅성거림을 듣는 듯하다. 이때부터 농촌의 봄은 시작된다. 들판에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고 있다. 죽은 것처럼 가지만 앙상했던 나무들 모듬에도 유록빛 기운이 신비스럽게 내비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늦은 봄이 오고 있다. 앙상하던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때론 경외감마저 든다. 나이 탓일까 세월 흐르는 순리를 그대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나이, 그도 그렇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설렘 때문인지도 모른다.

호수에는 얼음 녹는 소리가 나고 산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얼었던 대지가 얼굴을 펴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도 드디어 봄이 온다라는 말이 여러가지의 의미로서 나오고 있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봄을 기다린다. 나는 봄 기운을 맞이하기에 다른 때보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반가워 하는지도 모르겠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분명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의 기쁨을, 늙은이에게는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은 듯한 착각 속으로 몰아놓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도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혜택을 주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계절이 봄이다. 산바람에 꽃잎이 흘날리고, 그 빈자리에 새잎이 돋아나는 봄, 이러한 봄을 몇십 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꽃바람 휘날리며 오는 봄이 흰 머리칼이 부쩍 늘어난 할아버지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새로운 경이를 가져 오는 이 언덕 저 언덕,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자연은 언제나 현대문명에 지쳐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산의 정기를 마셔야 한다. 산의 정기와 침묵과 자연에 안길 때 우리는 생의 원시적 건강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자연속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제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연이 발산하는 그 맑은 소리, 연연한 소리 그 다정스럽고 욕심기 없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말한다. 산은 몸짓으로, 큰 바위는 억센 형태로써 말하고, 잔잔한 샘물은 맑은 그림자로써, 초록은 빛깔로 써 말한다. 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은 소리로써, 아름다운 꽃은 향기로써 말한다. 우리는 그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나무는 네 번 꽃을 피운다고 한다. 물어볼 것도 없이 문자 그대로의 봄에 피는 꽃이요, 잎이라는 꽃을 피우고, 단풍의 꽃 그리고 겨울의 잎 없는 가지의 눈꽃을 말함이다. 나는 이들 꽃 중에서도 신록의 꽃을 제일 좋아한다. 봄, 가을과 겨울의 꽃들은 곱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어쩐지 그 뒤에 가려진 비애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우리가 신록 속에 있으면 영원히 젊음을 간직할 것 같은 안정을 얻는다.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 나는 지난 겨울동안 시인 동초 선생이 가르켜 주는대로 보리수 열매를 화분 속에 넣어 싹을 틔워 금년 봄에 집 뒷뜰에 이식 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것을 태양광선이 잘 비치는 부엌 창 밑에 놓아 두고 물을 주고 하면서 매일 관찰하였으나 전혀 싹을 틔울 소식이 없다. 아무리 물을 주고, 장소를 옮겨보아도 그 화분 속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다. 아마 보리수 씨앗은 토양이 맞지 않은지 아니면 나의 성의가 부족했는지 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 나의 마음은 물론 큰 소유욕이나 애착심 같은 속심도 아니었지만 또한 박애다, 자비다 하는 종교심도 아니었다. 다만 뒷뜰에 빨갛게 매달린 보리수 열매를 보기 위한 나의 욕심때문이다.

보리수나무 열매는 다방면으로 몸에 좋다하며 특히 천식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해 전 산행에서 따온 것을 와인을 담궜더니 그 와인을 마실 때마다 보리수 열매의 은은한 향기가 일품이었다.

아침 햇살이 내려 비치니 뒷마루 텩에 쌓였던 눈 덩어리가 무너져 내린다. 뒷뜰에 눈이 녹고 땅이 풀리면 인정 많은 동초 선생집 뒷뜰에 있는 보리수 나무 한 그루를 훔쳐오던지 아니면 사정하여 얻어 와야겠다. (2015. 3)

##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 36년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었으며 그때 우리 국민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많이 받았기에 나라의 소중함을 어느 민족보다 더 느낀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의 재산이 파괴되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윤리도덕이 바탕이 된 질서의 붕괴는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되찾기 힘들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반세기 전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제약과 모순이 판을 치는 느낌이어서, 하루라도 자기 성찰의 시간이 게을러지면 금방 혼탁과 죄악에 빠지고,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거짓이며, 어느 수단이 바르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시기적인 소명 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의 구원은 물론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치열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나라사랑의 방법과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더욱 치열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의무를 등에 메고 조국을 떠났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비 바람 속을 달려가야 하는 고행의 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음을 뜻한다.

그때는 비행장이 여의도에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니 당시 후진국의 공항 풍경은 실로 유치하고도 정겨웠다고 생각된다. 해외로 나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힘들었던 시절의 공항 풍경이란 바로 눈물바다였다. 푸른 하늘을 날아 구름 속을 헤치고 미지의 땅으로 멀리 날라온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길이요, 새로운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한 소망이요, 미래요, 그리고 꿈이었다. 20대였던 나는 가슴이 떨리고 눈물까지 핑글 돌았다.

젊음의 세계는 곧 꿈이며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젊은이의 희망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경우에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다른 꿈을 가슴에 품으며 새 꿈을 향하여 매일매일 매진하는 힘이 있는 것이 젊음이다. 젊음의 힘은 항상 강하고 꾸준해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온 정신을 다 쏟아 부어 실패를 거울삼으면 반드시 이를 수 있다.

고향을 떠나던 때가 엊그제였건만 어느새 손자 손녀들의 맑은 눈망울과 숨소리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끌벅적하게 그 간의 소식을 전하는 자손들의 목소리와 표정속에서 또 한 번의 시간과 세월을 읽게 된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부터 거울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이 꼭 내가 조국을 떠났던 1965년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비로소 그 당시 아버지 마음 아픔을 어름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일곱의 자식을 둔 가장으로 매년 이른 봄이오면 새파란 보리밭에서 시작되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릿고개를 말없이 견디어낸 고생을 지금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오늘날의 풍요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보릿고개라는 절량의 쓰라린 체험을 말하는 쪽이 바보가 될 정도로 진부한 냇두리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다.

격동의 시기인 19세기 말엽부터 금세기의 60년대까지를 살아온 분들의 인생을 알아보고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잃어온 것을 찾아 차분히 되돌아보고 싶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겐 이들 아버지, 어머니들의 옛날 삶의 모습이나 생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생활이 풍요해지고 모든 것을 그저 편하고 빠르게 기계화해서 옛날 사람들의 고생을 알 턱이 없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생활이 있게 한 밑거름이 그들이며 그들을 아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 또래일 것이다. 안락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많은 값진 것을 잃고 있음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다. 온고지신, 옛것을 아끼고 닦아야 새것을 알게 된다는 뜻의 명언을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에 정착하고 살고있을지라도 온 우주를 제 가슴에 담아야 하고 우리 민족의 혼과 냇을 불처럼 살리고 보살피고 걱정해야 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한점의 바람, 한 방울의 빗방울, 이 산하의 풀잎의 흔들림도 모두 함께 제몫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내려주시는 어머님과 자연이 있는 고향산천과 까치밥을 남겨 놓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할 소중한 덕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민이라는 것, 우리가 고국을 뒤로 하여 지구의 정반대 쪽에 정착하여 각자 나름 대성을 꿈꾸며 밤낮 심장을 쥐어짜는 인고의 생활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청운의 웅지를 최대한 펴 보려는 대망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다가 "고희"의 나이에 접어들면 고국산천 그리움에 밤잠도 잊게 됨은 인지상정 (어쩔 수 없는 인간 심정) 이라 하겠다 .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이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닌 것이 돌아보면 그림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나의 세월이었구나 하고 보여주려하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공기처럼 아무것도 없다. 다만 조국을 떠났던 나의 젊은 20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질주한 것은 틀림없다. 나의 일생은 먼 후일 자식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꿈에 가까이 간 것으로도 살아온 보람이 있다고 자부한다.

## 깊어가는 겨울에

겨울이 왔다. 겨울은 소리없이 쌓여가는 눈꽃을 내리면서 와야 하는데 금년 겨울은 훈훈한 바람이 비를 뿌리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청의 기상학자는 수퍼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금년 겨울은 새해가 될 때 까지는 제대로 된 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겨울은 정지요 침묵의 계절이라고 했다. 땅속 깊이 잠든 생명체들의 침묵과 나목의 거리를 바라보는 심성이 맑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노을 비낀 하늘을 배경으로 알몸으로 서있는 가로수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 어떤 마력적인 매력에 심취하곤 한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꺾이고, 양상하게 헐벗은 몸만을 노출한 채 의연히 서 있는 노익장의 모습과도 같다. 지난날의 홀려했던 아픔과 격동들은 침묵으로 승화시키고 지금은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사색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 나뭇잎은 떨어져 썩을 것이나 뿌리는 땅속 깊이 살아서 다음 생을 준비하며 우주의 색깔을 바꾸는 계절의 경이로움 앞에 숙연하지 않은가. 사람의 한 평생도 그런 것 같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성가시켜 떠나보내고 단풍을 떨친 한 그루 나무처럼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비슷한 과정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먼저 간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고, 후손들이 경험의 지혜를 쌓은 선친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인생을 실수 없이 풍요롭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내게 있어 반세기가 넘은 53년의 이민 생활의 고달픔은 여느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이 어떤 화려함보다는 고통과 희열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현실은 내 감정과 내 건강에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몰아쳤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긴 세월을 용감하게 살아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20대 내가 고국을 떠나왔을 때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지만 청춘은 늘 위태위태했고 난 그때 청춘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지금은 오랜 동안의 체험과 사색이 더불어 잘 발효되어 나이 탓인지 잘 익은 포도주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꽤나 익숙한 편이다.

지난 일 년은 세월의 강물에 흘러가는 이파리처럼 떠밀려온 것 같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 고향을 아프게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일까. 그런 나를 위해 겨울새 같은 찬바람이 말없는 곳으로, 오욕칠정이 넘쳐나지 않는 곳으로 유혹한다. 밖엔 소복소복 흰눈이 쌓이고 가로수 나뭇가지가 활처럼 탐스런 눈송이를 무겁게 이고 있다. 나무는 눈꽃으로 피어나고, 숲은 눈꽃 터널을 이루며, 발아래에는 순백의 눈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눈에 덮인 숲속에 들어오면 속진에 찌든 마음이 절로 상쾌해지고 금세 맑아지는 듯하다. 나는 이 백설이 가져오는 눈 빛깔의 예쁜 언어들을 모아야겠다고 벼르고 길을 나선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지난날의 바래간 추억을 홀로 물으며 잠시나마 또 다른 눈 나라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구도가 은은한 은 빛 속의 설경에 눈이 머문다. 눈덮힌 산을 찾아 심혼을 맑히던 일상의 그림자가 하늘에 둉지를 틀고 영혼의 피리소리를 나에게 듣게 한다. 온 누리가 백설로 은세계를 이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속세의 어떤 불행과 번뇌도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는 세류에 번질 위선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추운 날씨일지라도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움에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난 이 장엄하고 화려한 겨울을 사랑 한다.

겨울은 사라져 간 계절에 대한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생명과 날들이 오리라는 밝은 등불이기도 하다. 거리와 집들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성자의 심혼으로 피어나 우주에 가득하다. 힘든 삶속에서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받았던 상처들이 하얀 눈처럼 스러지고 기쁨의 날들이 올 기약의 믿음이다.

나무는 단풍잔치가 끝이나면 완전히 벌거벗은 육신으로 겨울 앞에 서게 된다. 자신의 본래面目을 보여주는 차가운 계절과 맞서야 한다. 그래도 두려워할 게 무언가. 아름다운 새싹들을 피웠고 초록 잎들로 무성했고 울긋불긋 고운 자태로 한 세상 즐겁지 않았던가. 나목으로 추운 겨울과 마주한다해서 허망하고 슬픈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계절의 혹독한 시기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온다. 풍차처럼 돌고 도는 희로애락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강인하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지만 돌이켜 볼 때면 수시로 약해지고 비겁해지는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계절, 잃어버린 그리움을 찾아 텅 빈 심상에 새로운 무늬를 그려 넣어 본들 어떠리. 어느 현자는 “아직 그리움이 남아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다. 비우면 채워지고 잃으면 얻게 되는 섭리가 있지 않은가.

겨울나무와 더불어 비축의 시간을, 장고의 연말연시를 가져야지싶다. 해묵은 가지에도 어지간하게 근사한 새잎들이 파릇파릇할 새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나무처럼 의연하게 살 수는 없을까. 새날에 피어날 인고의 결실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머리를 숙인다. (2015-12-24)

## 핵가족 사회에 문제 있다

유교적 전통속에 인간관계를 유도하는 삼강오륜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인륜의 기본이다. 그것들이 중국에서 전래된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세계 어디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의 기준이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재음미해하면서 새로운 뜻을 찾아야 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오륜 중의 첫째는 부자유친이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물론 존경심이나 효심도 있어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 이곳 신문에 국적을 불문한 현대판 고려장이 한국 공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JTBC (중앙동양방송 2014.1.28)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공항 지하 1층 광장에서 고령의 한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지난 해 말 한국에 입국한 이 할머니는 독일 국적으로 한국 거주권이 없어 3개월 후에 떠나야 하지만 경제력이 없다. 딱한 사정을 안 공항 측은 스위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 이 모씨는 63살의 한국인이다. 20년 동안 미국 이민생활을 하던 중, 지난 해 8월 아들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이런 신세가 됐다고 한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공항 안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설렘과 만남의 장소인 공항이 이들에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내쳐진 생이별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 현실, 이렇게 인륜의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 참혹한 사회, 이 사회적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비극이다.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생활에서는 이러한 일은 이제 당연한 일상사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숙부, 숙모, 사촌들 여러 형제들이 버글거리고 살던 시절 집안에서 할머니의 정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조카들의 재롱이 웃음꽃을 피우던 이야기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되어버렸다. 우리들의 부모 시대에 일곱 여덟의 자식을 낳아 기르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한 가정에 자식을 하나 둘만 낳아 기르는 풍토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자랄 때부터 왕자 또는 공주로 키워진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과보호 속에 넘치는 물질과 산더미 같은 장남감 속에 부족과 결핍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같이 자라난 아이들이 장성하여 부모의 보호를 벗어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친 과보호 속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되지는 않을까. 형제가 없었으니 서로 부대끼며 모를 깎는 자기 극기나 인내심과 협동심 그리고 양보심도 배울 기회가 없을 터이니 자칫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이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작은 어려움이나 결핍도 이기지 못하는 이른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자제력 없는 젊은이가 될지도 모른다.

옛날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회초리 맞아가며 자라면 시절의 아이들은 아픈 매 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깊은 정을 새겨 인륜의 길을 배웠으며, 바르고 엄한 가훈 속에 어른 공경하는 효심과 아랫사람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돋는 우애를 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단출한 핵가족 사회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란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다.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보는 얼굴, 용돈이나 주고 선물을 사주는 사람, 그나마의 능력도 없을 경우에는 그저 짐스럽고 귀찮은 노인들일 뿐이다. 결국 가족의식은 사라지고 가문이나 전통 따위는 낡은 굴레처럼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생각은 급기야 부모를 경시하거나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러한 가족간의 가치 변질은 결국 무너진 가족제도, 스스로 버린 인륜의 반대급부로 실제로 인천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핵가족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한 특징이 되고 있는 일이다.

현대 문명은 갖가지 생활의 편리함과 인간의 쓸쓸함을 잊게하는 오락기구들을 가져다 주었고 인간의 수명을 길게 연장하는 기적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줄 수 없는 분야가 남아 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 “인간의 행복”이다. 효도란 적어도 성장의 과정이거나 역사를 통해서 길고 긴 시간 안에 은연중에 배양되고 자라는 정신적 산물이다. 물론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마는 자식의 기억 속에 부모에 대한 아픔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핵가족 사회에서의 모든 부모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식의 효도에 대해 일단 포기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핵가족 사회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로원의 시설이 아닐까 싶다. 편리하고 정결한 양로원의 시설이야말로 핵가족 사회가 해야 할 유일한 경로와 효도의 지름길인지 모른다. (2014-04-18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선진국민이 되려면 질서를 지켜라

사람을 울리는 병의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질병을 따라 잡는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병이 또 생겨나니까 그 수를 더욱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겨나는 병을 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병과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숙명적인 대결의 연속 일지 모른다.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불법 시위가 고질적인 한국병일지도 모르겠다.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달 14일 소위 민중 총궐기 불법 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 주말인 12월 5일 정부의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 노동단체들의 2차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렸지만 우려했던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5만여명의(추산) 시위대의 폭력, 과격 시위 변질에 대비해 2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막대한 국고 손실인가.

무슨 일에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의 자랑이라 하지만, 법치를 거부하고 정부 무력화를 꾀하는 복면 무장 폭력시위 대를 두고 생겨난 분분한 의견들을 듣고는 그저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답답한 마음 뿐만 아니라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달에 한번 씩 모이는 계모임에 가면 곧잘 세상 인심을 읽을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예기, 그 밖에 자질구레한 소식에 이르기까지 세정의 밑바닥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감지할 수 있어서 어떤 땐 심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다.

불법시위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경찰이 습격을 당하는 과격한 폭력시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한반도의 무질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더욱이 이런 집회에서 가장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일부 지식인, 야당 정치인, 종교인이 합류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노사 분규와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로 세상이 온통 살벌해졌다. 산업 사회로 접어든 물질 문명의 진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악랄한 행동이라 하겠다.

서울 한복판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 국가 기물인 경찰차(버스)를 파괴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사회질서를 가로막는 따위의 폭행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지극히 후진적인 폭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노동조합의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후진국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평소에 늘 언론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일이다. 우리는 퉁하면 공직자를 나무라면서도 이들이 겪는 고통들을 으레 그런양 하고 넘겨버리는 버릇이 있다.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는 일반 국민보다 한층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한층 더 높은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처자식을 거느린 처지에 일터로 가면 경찰이 된 것으로 해서 날마다 시위대에 얹어 맷고 무릎을 꿇고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쩐지 만만한 게 경찰 공무원, 동내북은 일선 경찰이 되는 이런 풍토가 아쉬워서 하는 말이다. 만만한 게 일선 경찰이란 인식을 불식할 날도 언제쯤일까. 우리의 의식 수준도 그때는 한층 높아져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본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민으로서 살기 좋고 희망찬 우리 조국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가왔다.

사람의 가슴에 향수가 없다면 사랑과 애정,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어찌 자리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순수성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살벌한 사회가 될 것인가. 인간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끼리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모함의 굴레에도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안한 경쟁의 도장에 앓아 있음에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자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인정하는 자신의 성실 뿐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불의이며 죄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집단의 힘을 빌려서 사회의 규범을 흐트려 놓고 질서파괴를 가져오는 일은 이제 어느만큼 자제할 때도 된 것같다. 신물이 날 지경인 이런 작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는 억지와 생떼를 이제 우리 주위에서 몰아 내고 평화롭고 즐거운 건강한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주장 내 욕심 내 권리에 앞서 규칙과 질서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앞세우자.

역사는 준엄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낳는 법이다. 돌아보면 무서운 순간을 맞으면서도 너무나 꿈같은 격량을 안겨다 준 지난한 한해였다. 비무장 지대의 목함지뢰 사건, 대북확성기 방송, 이산가족 상봉, 외교적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한중일 정상회담 등 생각해보면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연달아 충격을 준 한해였다. 이 엄청난 세계사의 변화, 이 놀라운 한반도의 정세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는 지금 무슨 모습으로 서 있는가.

변화와 격랑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겨례의 슬기만이 요구되는 2016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는 실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급성장한 문화의 발달로 사회가 삭막해져 일어나는 고질적인 한국병을 과감히 치유하겠다는 국민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2015-12-08)

## 2 기쁨과 희망의 계절



## 새 봄은 이미 우리곁에

캐나다의 계절 감각은 아무래도 순리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엊그제 춘분이 지났는데 오늘은 봄을 시샘하는 눈발이 내리고 있다. 춘분은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로 3월 21일, 이날은 낮 시간과 밤 시간의 길이가 같다고하며 추위와 더위도 같다고 한다. 한마디로 춘분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면 된다. 이 때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채전밭을 일구며 무너진 담도 고치고 들나물도 캐어먹는다.

이곳 캐나다의 지난 겨울은(아직 겨울이지만) 유난스럽게 눈이 많이 오고 추위도 매서웠다. 눈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눈 덮인 들녘에서 살을 에는 듯 찬바람이 불어 올 때는 대지는 소리 없이 엎드려 봄을 꿈꾸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집 거실은 동쪽에 넓은 유리창이 나 있어 아침마다 집안 가득 햇살이 비쳐준다. 봄과 여름에는 새들이 몰려와 지저귀고 노래하며 토키와 사슴 같은 동물들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겨울철에는 그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뒷뜰의 설원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이 만들어 주는 하나의 즐거움이다. 오늘도 친구 이완식 군과 몇 번의 바둑게임을 하며 집뒤 설원을 감상하는 그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를 잘못 읽었는지 한쌍의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라가고 있다. 아직도 날씨가 꽤 추운데 어떻게 철이 바뀌는 것을 알고 남쪽으로 갔던 기러기가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아마 봄이 되기를 새들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도 없을 성 싶다.

예년 같으면 봄의 전령으로는 로빈이라는 울새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데 금년에는 한쌍의 기러기가 뽐내며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겨우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안타까워했던 온갖 들새들의 합창이 어느 틈엔가 이 봄의 숲으로 멀지 않아 되돌아 올 것이다. 그러면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아침 늦잠자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는 마음이 설레고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며 누군가를 만나 커피나 차를 마시고 싶어진다.

텔레비전에서는 고국의 봄소식으로 연일 산수유와 매화, 벚꽃이 핀 광경을 보여주며 봄의 북상속도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봄이 무르익으면서 봄꽃놀이 철이 열렸다. 하얀 눈을 흘뿌린 듯한 매화꽃밭은 참으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는 야생화들이 수줍게 피어 있는 것은 환상적인 정경을 연출한다. 봄은 살랑 살랑 산들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온다. 옻깃을 스치는 향기로운 바람을 느끼면 봄은 벌써 저만치서 삭막하게 얼어붙은 가슴을 유혹 한다. 철없는 청춘에는 말할 것도 없고 흰머리를 한 늙은이에게도 주책없이 봄바람을 집어넣기도 한다. 친구 완식 군과 나는 바깥 날씨도 따뜻해 보이고 해서 하던 바둑게임을 중단하고 어디쯤엔가 봄이 오고 있을 듯싶어서 시골의 산책길을 나섰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아래 넓은 설원을 옆에 두고 좁다란 길을 걸어간다. 산책길에는 새들이나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화사한 봄빛에 깨어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물을 펴 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싹이 움터오르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게다. 길옆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그 끝마다 봉긋하게 부푼 것이 금방이라도 여린잎이 터져나올 기세다. 우리들은 그 눈속에 발길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맑은 하늘과 숲들, 저 깨어 일어나는 계절의 대화음에 눈과 귀를 기울인다.

아침에 눈발이 날리더니 오후에는 따뜻한 햇빛이 봄을 재촉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길가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어느새 조붓한 물줄기를 만들어 흐르고 있다. 그 작은 물줄기의 흐름이 말해 주는 것은 알아 들을 수는 없으나 분명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 일 게다. 밤에는 아직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 때문인지 아직 산새들은 눈에 띄지 않고, 꽃샘추위라고 하는 늦추위 때문인지 이렇게 청명한 날씨인데도 이 한적한 시골 산책길에는 사람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다.

3월의 끝자락인데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넓은 농장들이 아직 설원으로 변해 있다. 저 들판의 눈 밑에서 온갖 생물들이 어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며 꽃을 피우고 싶어 하고 있을 것이다. 계곡이 아무리 깊고 설원이 아무리 넓어도 봄이 되면 봄의 기운이 어김없이 번져와 물이 흐르고 꽃이 필 것이다.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 장엄한 환희의 외침을 이 순간만은 나 혼자만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에 띄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건너는데 아마 봄바람을 마중하러 나왔을 게다.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봄이 열리는 색채를 보니 내가 아직 살아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진실인가를 깨닫게 된다.

오늘밤 일기예보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니 북쪽으로 날라간 한쌍의 기러기가 이 추위를 견뎌낼지 걱정이다.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이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벌써 흙냄새가 묻어있으니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는 새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봄이 오고 있는 길목에 나란히 들어섰다.

( 2014-04-11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아름다운 계절 4월

오늘이 4월 중순, 캐나다의 봄은 조금 이른 감이 든다. 봄의 서곡이라고나 할까. 겨울 옷을 벗어 버리고 봄 옷을 입기도 빠르고, 다만 기나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웅크렸던 몸과 마음이 한껏 기지개를 켜 볼 수 있는 때이다. 봄이 그리운 것은 추운 겨울의 혹한에 시달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봄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더니 언제 겨울이었냐 싶게 신기하게 뒷뜰에 쌓였던 그 많은 눈이 다 녹았다. 해빙이 시작된 것이다. 누렇게 변한 잔디 속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이 보이니 마음이 아주 느긋하고 편안하다. 새것은 항상 신선한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겨우내 죽어있던 나뭇가지에서 새봄의싹이 나서 새순이 돋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하다. 그 연푸름의 색깔은 세상의 어떤 화가도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한 작품이다. 봄의 전령 로빈이 다른 무리들의 새들과 함께 찾아와 뒷뜰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지줘기고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 집을 지을 자리 를 찾고 있는 중이다.

몇 해 전부터 집 뒷뜰에 작은 채전밭을 일구어 재미삼아 모종을 사다가 심고 씨앗을 뿌려 채소를 가꾼다. 며칠 동안 바람 속에 찬 기운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태양의 고도가 높아졌다. 길어진 해는 땅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텃밭의 계절이다. 무엇인가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원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채소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원을 보고 즐기는 기쁨과 함께 가꾸는 재미, 그리고 신선한 유기채소를 얻는 등 몇 가지의 즐거움을 함께 맛보게 해 주기 때문이다. 채소를 조그마한 땅, 텃밭에 가꾼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채소를 기르면서, 채소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하는지 모른다. 텃밭에서 방금 따온 야채로 식사를 해본 사람은 그 향과 감칠맛을 잊지 못한다. 싱싱함이 살아있는 상추와 고추를 입에 넣어보면 달콤함과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모두 섞인 오묘한 맛에 빠져들어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게 된다. 그렇듯 집에서 가꾸는 채소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우려에서 선뜻 밭을 직접 만들어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흔이 있다.

날이 풀리고 봄이 어디쯤 왔을가하여 뒷뜰에 나가 보았다. 벌써 채전밭에는 흙을 밀고 올라온 마늘족의 새파란 빛깔이 눈을 찌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생생한 빛깔, 지난 가을에 심은 마늘이 겨울 동안 눈과 얼음 밑에서도 싱싱한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오니 새로운 생명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마늘밭의 반쪽만 파란 쑥이 올라오고 반쪽은 소식이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올라오겠지 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나 쑥이 터나 들여다보러 다녀도 쑥은 올라올 기미를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마늘을 심었던 밭고랑을 파보았다. 이상하게도 지난 가을에 심었던 마늘이 썩어 있었다. 그럼 그렇지 마늘 쑥이 안올라올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마늘종자가 나빴던지 아니면 지난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땅속에 묻었던 마늘이 얼어 동사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마늘을 먹고나면 몸에서 배어나오는 마늘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데, 모이는 곳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금년에는 비싼 마늘을 사다 먹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남은 밭에 얼기설기 파고 고랑을 만들어 상추 쑹갓 파 씨를 넣고 흙을 덮었다. 다른 모종을 옮길려면 아직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한달 전에 오이, 호박, 토마토 씨앗을 사다가 지하실 따뜻한 곳에 처음으로 씨앗 파종을 했는데 지금 2cm 정도 올라와 있다. 5월 달에는 밭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같다. 채소를 가꾸어보면 먹는 맛보다도 기르는 재미가 있다. 나는 그 속에서 자연과 생명의 순환원리를 어렵잖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흉내를 내본다. 자연은 항상 변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화가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운치가 있으며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나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땀의 소중함과 흙의 정직함을 체험하고 살아왔다. 그 자연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연이 육체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곧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올라온 봄나물이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올 철이다. 봄나물 하면 달래, 냉이, 씀바귀, 그리고 쑥이 그 대표적인데 춘곤증을 없애 주는 봄 밥상의 보약들이다. 벌써 봄 내음을 느낀다.

## 봄나물과 채전밭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아니 봄은 성큼 우리 곁에 와버렸다. 봄이 되면 무엇보다 겨울 내내 웜츠러들었던 몸과 건강을 활력 있게 쟁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 밥상에는 집 뒷뜰에서 뜯어온 봄나물로 대표되는 참나물과 달래 무침으로 식욕을 북돋아 주었다. 금년 봄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봄나물이다. 봄철 밥상에 제격인 먹거리로 나물을 최고라고 하는데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뚫고 움트는 이 초록빛 생명은 봄의 향긋함과 생기를 가득 품고 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은은한 향을 퍼트릴 만큼 생명력을 지닌 봄나물, 춘곤증이 몰려오는 이 봄날 제일가는 건강식품이다. 참나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인데 다이어트 하는데도 효가적이며 한약제로 쓰인다고 한다.

몇 해 전 등산길에 깊은 산속에서 번식하는 참나물과 산마늘을 뽑아와 집 뒷뜰에 심었더니 금년에는 우리들이 뜯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제법 많이 올라와 있다. 참나물은 다른 풀보다 번식이 좋아 넓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그 외에도 돋나물과 쑥, 미나리, 부추와 달래가 뒤질세라 올라오고 있다. 우리들이 보통 나물이라고 하면 흔히 채소를 양념해 무친 음식을 말한다. 하지만 원래 나물은 식용 가능한 풀이나 잎사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은 나물이다. 우리는 무척 다양한 나물을 먹는다. 달래, 냉이, 돋나물, 참나물, 취나물, 도라지, 고사리, 두릅, 미나리 등등 채소를 이토록 다채롭게 식용하는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정도다. 사실 우리 민족이 많은 종류의 나물을 먹어온 것은 즐겼다기보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역사를 돌아보면 잣은 가뭄과 흉년, 외세 침략으로 제대로 농사짓지 못하는 해가 많았다.

우리는 불과 몇 10년 전까지 이른봄의 새파란 보리밭에서 시작된 보릿고개라는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어도 가을에 추수한 벼가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아 배를 꽂는 보릿고개가 매년 봄마다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곡식이 부족한 때에 살아남으려면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비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만큼 배고프고 고생하며 살아왔다. 나는 옛날 어릴적 누님이 초봄부터 나오는 산나물을 뜯어온 것을 지금도 어렵잖이 기억하고 있다.

금년에는 봄 가뭄이 오래 지속되더니 여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Victoria Day를 전후해서 며칠 동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빅토리아 데이는 비공식적으로 긴 겨울의 끝을,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이 지나면 각종 모종을 옮겨 심어도 안심을 하게 된다. 다행히 비온 뒤라 준비해 둔 부엽토와 퇴비를 혼합해서 집 뒤 채전밭에 상추와 쑥갓 씨앗을 뿌려놓았다. 채전밭이라 해야 옛날 우리 집 논밭에 비하면 조금 과장해서 손바닥만한 땅을 말한다.

이제는 남은 밭에 모종을 옮길 차례였다. 지난 겨울 처음으로 오이, 호박, 파, 토마토 모종을 따뜻한 지하실에서 가꾸어 보았더니 제법 크게 자라 모종을 이식할 때가 되었다. 작은 채전밭에 고추 모종 심을 자리만 남겨두고 욕심은 많아서 이것저것으로 다 채웠다. 그것도 밭이랑을 지어 모종을 정성들여 옮겨 심었다. 고추 모종은 오는 주일 성당에서 농사일을 전문으로 하는 미스터 강으로부터 사올 예정이다. 파는 모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씨앗을 뿌린다고 하니 농사일에 무식이 탄로 난 셈이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면 큰돈 들지 않아도 쉽게 여러 종류의 채소를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 소비하면서 힘들게 사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아침저녁으로 갓 따온 풋고추와 상추를 곁들인 밥상에서 느낄 만족감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소를 가꾸어보면 먹는 맛보다는 기르는 재미가 있다. 그 재미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물론 김을 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벌레가 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뒷손질이 따르지만,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으랴 생각하면 거들어 줄 만하다. 금년에 우리 텃밭에 옮겨 심은 오이, 토마토, 고추, 깨, 호박이 모두 성공하여 대풍이 들면 주위 친구들이 모두 먹어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내 집 사람은 나를 짠돌이 영감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만 나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 부지런한 농사꾼(?)을 마음씨 좋고 인심 좋은 영감이라고 말 할지도 모르겠다.

##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

기상학에서는 북반구는 삼월, 사월, 그리고 오월의 석달을 봄이라 했다. 봄을 알리는 계절, 해마다 오는 3월이 되었건만 기온이 뚝 떨어져 뒷뜰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고 있다. 겨울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세월인갑다. 집 뒤에는 설원을 이루었다. 흰눈이 소복이 덮혀 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 봄이 오려니하는 기다림이 있고 눈속을 헤치고 어떤 동물이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림으로 온통 귀와 눈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금년 겨울이 혹독한 추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봄을 기다리는 뜻으로 가득 차 있다.

유난히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 텃밭 (채전밭)에 아직 눈이 1미터나 쌓여 있는데 성미 급한 집사람은 벌써 상추, 파, 오이, 호박, 토마토 씨앗을 사왔다. 모종을 가꿀 흙까지 구입했으니 금년에는 확실하게 농부 흉내를 낼 모양이다. 눈으로 덮혀 있는 텃밭 위에는 길게 토끼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발자국은 일정하게 한 줄로 걸어간 것처럼 울타리 밑으로 들어와서 뒷마루(덱) 밑에 먹을 것을 찾아왔다 간 것 같다. 이런 일은 매년 봄이 가까워 올 때면 일어나는 일이다. 집에까지 들어오는 토끼를 보니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기 어려운가 보인다. 두 영감 할매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는 토끼가 나타나면 큰 구경거리이면서도 대 사건이다. 토끼 발자국이 내리는 눈에 흔적도 없이 덮여버릴 때까지 계속 화제거리가 된다. 여름철 이면 채전밭에서 먹을거리를 가지고 집사람과 쫓고 쫓기는 싸움으로 숨박꼭질을 하는 그 토끼일 것이다.

지난 3월 초순 바깥은 영하 19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추위인데도 눈발이 휘날리는 속에 집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Woodland 산으로 산행을 나섰다. 가까이 눈덮인 산을 보면서 우리들은 맑은 산의 정기를 받으며 계속 산을 올랐다. 맛밋한 언덕길을 걸어 한참 동안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니 동서남북 굽이굽이 산등성이가 밝은 색깔을 확 뿌려 놓은 아스라한 풍경화로 변하고 있었다. 장엄한 산세였다. 확 트인 공간에서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다. 도시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은 황량한 벌판의 거친 자연은 무척 신비로웠다.

산에서 듣는 바람소리는 귓전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다. 저 뺏속에 묻은 먼지까지도, 핏줄에 섞인 티끌까지도 맑게 씻어주는 것 같다. 백설로 덮인 산속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주며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준다. 숲속의 나무들은 깊은 침묵 속에 눈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따금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에 쌓인 눈이 부옇게 눈보라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린다. 그런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곡에서 흐르는 한겨울의 얼음장 속에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는 듣는 마음을 오히려 따뜻하게 하며 봄이 오는 속도를 알려주는 듯 하다. 도시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바빠 자연을 찾을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등지고 일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부드럽고 조화가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법이다.

사람의 인연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불가에서는 말한다. 이번 산행에서 알게된 정동호 선생은 알고 보니 대학 동기동창이었다. 정 선생을 눈발이 휘날리는 이 깊은 산중에서 만날줄이야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대학 초년생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거의 6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살아온 흥미 진진한 역사였다.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과 생각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정 선생과 처음 만난 날 하나절의 산행에서 끝없이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이라도 서로 공감하며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알아 보았던 것이다. 인생의 물음에는 완전한 해답은 없다. 대화를 나누어가는 동안에 또 다른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발견도 하고, 삶의 의미를 조금씩 밝혀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해야 할 것이다. 정 선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좋은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24절기의 하나이며 3월의 절기이다. 날씨가 따뜻하여 각종 초목이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날마다 부질없는 일에 쫓겨 뛰어다니며 살아왔다. 긴 겨울 동안 그처럼 봄을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그 봄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할 사이도 없이 매번 놓치고 지내버리는 것은 바로 저 봄의 너무도 빠른 변화, 빠른 걸음새 때문이다. 금년에는 느긋하게 희망과 밝음과 따뜻함 속에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곳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한반도에는 벌써 봄이와 개구리가 동면을 끝내고 연못에서

알을 낳고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피었다고하니 어디선가 봄은 움트고 올 것이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라도 켜고 봄비를 동반하고, 자연의  
계절은 이렇듯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 2014-03-27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기쁨과 희망의 계절

봄은 바람과 함께 온다. 봄바람이 겨우내 잠자던 초목을 일깨워 싹을 트우고 꽃망울을 맺게 하는 건 계절의 질서이고 자연의 섭리이다. 언 땅 풀리고 따스한 햇살에 아른아른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을 기다린다. 4월 마지막인데도 내내 부슬비가 내려 헛갈리게 하더니 오늘은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고 다시 눈발이 날리고 있으니 아직 겨울이 다 물러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4월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더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봄을 재촉하던 비가 연 이틀 계속 내렸으나 바람이 꽤 쌀쌀해졌다. 그러나 꽃샘 추위라고 웜츠릴 만큼은 아니어서 집뒤 텃밭에 나가보았더니 마늘싹이 제법 올라와 있다. 검은 흙을 비집고 올라오는 파란 새싹, 새 생명의 그 새싹을 보고 있노라면 말할 수 없이 기쁨이 가득히 차오른다. 대지와 나무와 풀이 말없이 그 비를 맞고 녹색 빛이 생생하게 퍼져 나가는 생명의 기운을 보니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긴 겨울을 이겨낸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건강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것만도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현대인에게는 보약과 같다.

긴 겨울 뒤 찾아오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약동하는 삶의 기운을 봄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계절도 없다. 하늘에 퍼진 햇살은 눈이 부셨고, 땅 바닥에 내려앉은 별은 따뜻했다. 찬 공기에는 비릿한 냄새가 났는데 그건 봄기운이었다.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하는 빛, 겨울이 지루해 질 무렵이면 바람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그 속에서는 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으며 생동감, 기다림 그리고 은근한 떨림이 있다. 똑같이 보이는 햇살에서도 그 빛은 다르다.

계절마다의 아침햇살은 내게 다른 빛으로 다가온다. 그 중 봄날의 아침햇살은 소생의 빛이다. 잔설의 차가움이 남아 있는, 그래서 뜨겁지도 너무 냉하지도 않은 그 속에 생명이 숨어 있다. 햇살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마다 잔설은 차츰 흔적을 감추며, 거친 숲 안에 잠든 영혼을 흔들어 잎 하나 피워 놓고, 꽃 한 송이 피워 놓는다. 위대한 힘이다.

나날이 부드러워지는 공기와 흙의 감촉을 즐기며 땅속에서 아직 움트기 전의 식물들이 부산하게 웅성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나무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 흙 속의 무수한 씨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부산을 떠는 소리가 날로 도타와지는 햇살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지표에 아지랑이를 만든다. 봄기운의 유혹을 못 이긴 새들도 짹짓기를 시작하며 새벽잠을 깨우는 새소리가 화려한 잔치로 새벽을 열어 주므로 이것은 비로소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바뀐다. 이렇게 새들의 감미로운 노래를 음미하는 나에겐 여러 가지 상념이 다가온다. 신선한 서정의 한 마당, 오묘한 신성의 계시, 경건한 기도의 장면 같은 감격이라고 할까? 자연의 조화와 섭리하는 신의 뜻이 완성된 극치라고 믿어진다. 조금도 티가 없고 미완성이 없는----.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단위를 그려서 날마다 새롭게 살라는 암시를 주는 지구의 자전에도 마음껏 찬미를 보낸다.

아침햇살이 비껴드는 들판에는 서서히 골안개가 스러지고, 봄바람이 신록의 내음을 실어 오고, 들판이 어느 새 녹색으로 바뀐다. 이때쯤 토론토 시에서는 매년 시민들을 위해 부엽토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늘 아침 우리는 네 자루의 부엽토를 가져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흙을 가져 갈려고 애를 쓴다. 텃밭을 일구고 부엽토를 준비했으니 곧 상추, 오이, 토마토, 호박, 고추, 쑥갓 등 씨도 뿐이고 파종 할 때가 온다. 그러면 아내의 일손이 더욱 바빠질 것이다. 파종 시기는 조금 일르긴해도 금년에도 풍성한 밭 농사를 지워 볼려고 벌써 어린 고추와 깨모종을 성당에서 싸왔다. 봄이 오면 매년 그랬듯이 우리집 뒷뜰에 자연으로 나는 냉이, 쑥, 씀바귀, 부추, 야생마늘, 돌나물을 뜯어 반찬을 만들고 봄나물의 향긋함이 입안에 가득 묻어나는 건강식품이라고 즐거워 하며 먹을 날도 곧 올 것이다.

자연의 질서를 긍정하고, 거기 순응하는 행복감에는 불안감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4월에 눈보라가 쳐도 봄이 안 올 거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변덕도 자연 질서의 일부일 뿐 원칙을 깨는 법은 없다. 잠들었던 생명이 따사로운 햇살에 깨어나는 봄이다. 꾸준히 기다리기만 하면 곧 집 뒷뜰에는 꽃 피는 나무들과 야생초들의 꽃 잔치가 열릴 것이고, 아침에 문을 열면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의 후각을 자극할 날도 곧 오리라고 믿는다. 집앞 화단에는 벌써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몇 송이의 튤립이 제일 먼저 피었다. 붉은 색이 완연하니 금년에도 봄은 화려하게 차리고 오는 모양이다. 향긋한 꽃냄새가 실 바람에 묻어오는 아름다운 꿈의 봄이----. (2015 05 07)

## 골프와 친구

아름다운 옷 입은 6월이다. 산은 온통 신록이고 들에는 꽃이 피어 있다. 변덕스러웠던 5월의 날씨가 물러나니 새삼 신록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봄은 언제나 이처럼 아름다웠을 것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골프시즌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나는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골프는 오랜 경험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정신집중과 마음의 평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나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우선 골프 클럽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본인의 체격과 스윙에 맞는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깃대 꽂힌 푸른 잔디 그린을 향해 힘을 주어 공을 쳤지만 결국 물에 빠지거나 숲 속에 숨어버리며, 구멍을 향하여 공을 조심스럽게 굴렸지만 구멍을 살짝 비켜서 공은 엉뚱한 데로 굴러간다. 특히 내기 게임으로 술 한잔을 겸한 저녁식사나 돈을 걸면 돈이라야 25전 짜리 동전이지만 공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고 원치 않는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퍼팅(Putting)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욱 마음대로 안 되니 그린 위에서는 환호소리와 탄식소리가 연발한다.

골프를 치다 보면 골프가 인생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만큼 골프 경기성적의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다. 골프는 다정한 친구와 같이 잘 다듬어진 잔디 위를 거닐며 찬란한 태양 아래서 향긋한 풀내음과 깨끗한 공기를 가슴에 담고 공을 파란 하늘에 날리며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운동이다. 특히 아내와 함께 라운딩을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나는 Stouffville 에 있는 로링 힐 골프장 (Rolling Hills Golf Club) 에서 여러 해 동안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 이곳에는 세 개의 코스 챔피온, 찰렌지, 클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클라식이 조금 쉬운 코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소리, 그린의 모양을 한번 보면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러나 꽃피는 봄날 이곳에서 한번 라운딩을 해보면 이 코스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알게 된다.

클라식 코스는 4010 야드의 짧은 코스이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오비(OB)는 없고 평평해 보이지만 숲으로 들어가면 오비 이상의 가혹한 벌타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린의 굴곡이 심하고 까다로워 정확하게 퍼팅을 할 수 없어 고생을 한다. 골프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골프 친구 김진기 선생은 이곳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즐업해야 다른 코스에서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만큼 그린이 어렵다는 뜻일 게다.

골프장에 일하는 사람에 의하면 클라식 코스 골프장을 만들기 오래 전에 이곳은 사과 과수원이었다고 한다. 홀마다 양쪽으로 사과나무, 배나무, 야생능금나무 (Crabapple), 산사나무, 라일락, 아카시아 등 야생나무들로 줄지어 서 있다. 지금 이곳에는 꽃잔치가 절정을 이루어 열리고 있다.

상상을 해보시라! 가냘프고 솜털이 나 있는 꽃잎과 함께 흰색갈로 피어 엷은 핑크색을 띠기도 하며 맑고 깨끗한 자연의 정기가 가득 담겨진 사과꽃, 청초하고 순결함의 상징인 하얀 배꽃 향기, 꽃에서 나는 향기가 은은하고 좋아 젊은 날의 추억과 첫사랑의 감동을 연상케 하는 라일락, 뭉게구름 같이 희게 핀 산사나무, 야생능금 등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화들이 뿐어내는 향기를!

티샷을 하기 위해 네 번째 홀부터 매 홀마다 티업 박스에 올라서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맑은 미풍에 묻어오는 향긋하고 혼합된 야생꽃들의 향기를 맡으면 골프를 잘 칠 생각은 없어지고 잊을 수 없는 옛날 추억들이 하나씩 떠 오른다. 5월에는 클라식 코스의 주변에는 야생화를 포함해서 수백 그루의 꽃나무들의 꽃이 일제히 피어올라 전 들판이 아니 온 천지가 하얗게 뒤덮인다. 행여 한줄기 바람이라도 불면 페어웨이(Fairway)에는 하얀 눈꽃이 눈송이처럼, 꽃송이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내린다. 그 눈꽃은 그린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사람 머리 위에도, 골프백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으며 사람들을 부른다.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한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코끝에 스민다. 특히 다른 꽃과는 달리 옛날 어린 시절에 내 후각 속에 배어 있던 아카시아 꽃향기는 그 짙은 만큼이나 두고 온 고향의 추억과 향수를 자아낸다. 그래서 일까, 이쯤 되면 진한 꽃향기에 취해 골프 스코어는 적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

초여름을 알리는 꽃잔치가 끝날 무렵에는 그 연한 색갈의 꽃무덤에서 뿐어져 나오는 향내는 후각을 자극하는 그 은은하고도 진한 향기가 고소한 내음으로 변한다.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켜고 돌아가는 길, 동서양을 막론하고 골퍼들은 골프장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날씨에 상관없이 골프장을 찾는다는 뜻일 게다. 이렇게 골프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즐기는 게임이다.

## 손자 손녀가 검은띠 (Black Belt) 받던 날

가족이란 어버이와 자식관계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집안을 이루고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농경사회의 대가족시대와 달리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한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 살림을 나가 사는 부모나 자식도 나는 가족이라 부른다. 그러나 자식들의 삶은 계획될 수 없다. 그것은 계획 없이 밀어닥치는 홍수와 같은 것이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은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젊은 연인들이 사랑의 꽃을 활짝피운 후에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부부싸움, 별거, 이혼까지 가는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민 1세들은 자식의 결혼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나의 큰 며느리는 파란 눈을 가진 영국계이고 말이 별로 없고 마주 처다보는 눈빛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순진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순종하는 성격이라 우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부엌일을 돋는다. 그래서 그런지 손자 손녀들은 아버지를 좋아한다.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에서 자란 인종을 초월한 젊은이들의 사랑은 지혜롭게 조화시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기성 세대들이 배울 점도 많다. 이제 인종을 초월한 젊은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시대는 끝이 나야할 것 같다.

손자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또 하나의 생명을 준 기쁨과 살맛이 난다. 그들이 집에 오면 어렸을 때는 우유병을 물고 오니 보기만 해도 귀여워 했는데 점점 성장해지면서 노는 모양이 다르다. 손녀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인데 손자녀석은 사내녀석이라 거칠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친구가 되어야 하고 텔레비전에 말이 나오면 말 흉내를 내어 할아버지가 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자를 업어준다고 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니 할매의 죄가 크다. 바둑알을 가지고 놀다가도 생트집을 부리며 바둑알을 뒤집어 버리니 방바닥은 검고 흰 바둑알이요, 장남감은 몇 번 가지고 놀다가 두드려 부숴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 버리곤 했다. 한국말을 가르켜 주면 뜻도 모르면서 따라 말하기도 하는데 곧 잊어 버린다.

요즈음은 그들이 전화를 걸어 재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 즐겁다. 매일 함께 살면 손자 손녀들 놀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허리가 휘어질 것인데 주말이면 찾아오니 다행이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도 반갑고 갈 때도 반가우니 늙은이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지난달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김홍양 향군회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전날 늦은 저녁에 배리(Barrie)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태권도 검은띠를 받는 날이니 와 달라는 전화연락이 왔다. 김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러웠다. 토론토를 떠날 때는 하늘에 구름이 조금 덮혀 있었으나 맑은 날씨였다. 뉴마켓트를 지나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배리에 가까웠을 때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지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요즈음 부모들은 옛날 부모와는 훨씬 달리 자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금전적 투자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공부는 물론이고 그 이외 아이의 취미와 소질과도 관계없이 예체능에 신경을 써서 피아노나 발레, 음악, 태권도, 수영 등등 학원까지 보내면서 자식을 만능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권도 검은띠를 받는 시범대회가 고등학교 체육경기장에서 있었는데 40여 명의 무도인들과 많은 관객과 친척들이 빼곡히 모여들어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경기장 벽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캐나다 국기를 걸어 놓고 있었다. 태권도는 빠른 속도와 강함을 겸비한 발차기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무술로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유산이고 스포츠이다. 캐나다는 물론 세계 곳곳에 전수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 태권도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며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체택되어 있다. 수천 년의 역사기록을 지닌 “택견”은 분명 한국 전통 무도이면서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복을 입고 나타난 손자 손녀는 더이상 말성부리던 어린아이가 아니다. 손자 브랜든은 열세살인데 1미터 70이 넘는 키이고, 손녀 애쉴린은 11살에 1미터 60이 넘으며 몸매가 날씬하다. 시범대회가 시작되자 벽에 걸려있는 국기를 향해 예를 표하는데 캐나다인 태권도 사범이 한국말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니 모두 절을 한다. 훈련과 대련이 진행되는데 한국말로 준비, 차렷, 시작, 경례, 하는 고함 소리를 다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기했다.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시작해서 돌려차기, 송판격파, 대련 등 격렬한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이 단계까지 올라 올려면 수없이 많은 반복수련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 내야 하는데 이것

이 인성교육의 한면이다. 브랜든과 애쉴린의 손놀림 발기술 등 송판 격파를 하는 데 할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검은 띠를 받는데 손색이 없었다. 사범으로부터 검은 띠를 받았을 때는 대견스럽게 성취의 눈물 방울을 흘렸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을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하다.

요즈음 어른 티가 날만큼 성장해서 두 녀석이 모두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은 컴퓨터인지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눈빛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그 바보상자 속으로 정신이 모두 빨려 들어간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진정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척도일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나의 분신인 손자 손녀들이다. 이제부터 이 녀석들이 할배 할매의 울타리가 될 만큼 성장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올려고 나오는데 그들은 정원에서 눈 사람을 만들며 서로 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사랑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 2014-01-24 부동산캐나다 )

## 순교자 성지로 가는 길

지난 7월 6일 (2013) 미들랜드 순교자 성지 (Midland Martyrs' Shrine)로 가는 날은 무더운 여름 날씨였다. 냉방장치가 없는 학교 버스인데도 마치 소풍가는 학생들 마냥 즐거운 얼굴들이었다. 미들랜드 순교자 성지는 토론토에서 약 150km로 2시간 거리의 북쪽에 있다. 조지안 만 연안 미들랜드 동편 하이웨이 #12 선상 언덕위에 우뚝 솟아있는 순교자 성지에는 숲속에 하늘 높이 치솟은 흰색 성당건물이 주위를 압도한다. 1925년에 세워진 이 성당은 순교자 성지의 상징물인 성당이다.

프랑스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1639년에서 1664년까지 휴론족들이 살았던 지역 "세인트 매리 (Ste. Marie)" 마을을 그들의 선교거점으로 삼고 전도활동을 했던 곳이다. 이곳이 17세기 중반 예수회 선교현장이었다. 성당 위쪽 언덕 위에 세워진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이 훤히 시야에 들어온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전도 거점이었던 휴론인들 속의 세인트 매리 마을과 이들의 수상 교통수단이었던 와이강 (Wye River) 이 눈 아래 펼쳐진다. 17세기 캐나다와 미국에서 휴론족과 이лер퀘이족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6명의 프랑스 예수회 심부님들과 그들을 도운 2명의 평신도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1925년에 건립된 성지이다.

이 8명의 순교자들은 1642년과 1649년 사이에 잔인한 고초를 당한 후 순교하셨는데, 비오 11세 교황님에 의해 1925년 복자품에 올랐으며 1930년에 시성된 성인들이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84년 이곳을 방문하시어 미사를 집전하신적이 있는 이 미들랜드 성지는 캐나다 4대 성지중의 한 곳이며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곳은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천주교 신부로 활약 중 순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상이 미들랜드 소재 캐나다 순교자 성지에 세워져 있다. 천주교의 성인으로 축일 (기념일)은 7월 5일이다. 꽃나무 숲을 따라 조성된 14처 끝에는 순교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상이 우뚝 서 있다. 한국 전통 의상인 갓과 도포를 갖추고 영대를 두른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성지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멀리 조지안 만 호수가 손에 잡힐 것 같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숨결을 느껴본다. 캐나다에서 순교한 프랑스계 신부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성인들을 모신 북미의 대표적 성지에 한국인 최초로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세워진 것이다.

최초의 한국인 신부로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뫼 (충남 당진군)에서 태어났다. 1844년에 부제서품을, 그 해 8월 17일에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입국해 조선 내 선교활동에 힘쓰다가 체포돼 꽂다운 나이 26세에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온타리오주의 한인성당은 매년 김 신부의 축일인 7월 5일 이 성상 앞에서 기념 행사를 갖는다. 금년에는 토론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천주교회 최규식 (그레고리 오) 본당신부님, 김명수 (마티아) 보좌신부님과 함께 신자 180여명의 야외미사가 있었다. 곧 이어 예수고난 14처 (Stations of the Cross) 에 둘러싸인 광장과 전망대 부근에 있는 김 신부님 성상 앞에서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가 이어졌다.

우리는 한 생애 사는 동안 우연이든 필연이든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오늘 성 김 안드레아 신부를 만나고 같은 성당 신자들일지라도 잘 몰랐던 교우들을 만나는 이 소중한 인연은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머무를 것이다. 이번 순교자 성지순례에 참가한 그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부활의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참된 신앙인들의 모임이며 영원한 향기를 지닌 사랑의 꽃, 당신의 삶을 본받기 위한 겸손한 마음들이 모인 그룹이다. 아담한 성당에서 드리는 순례자들의 기도는 생명의 기쁨과 영혼의 마음을 고요한 평화로 충만시키고 인도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인데도 인류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김 보좌신부님의 인도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의 행사는 끝이났다. 이번 성지순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도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야외미사 겸 일일소풍으로 Galeria에서 준비한 풍성한 점심 도시락은 그 많은 신자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세밀하게 준비한 이상훈 본당회장님과 행사 준비위원들의 희생적인 봉사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 2013-07-19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 밀짚모자와 틸리 모자

요즘같이 이렇게 찌는 듯한 한여름 철에는 밀짚모자를 쓰던 옛날 생각이 절로 난다. 밀짚모자는 재료 값이 별로 들지 않는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가격이 싸고 편리한 모자이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즐겁게 쓰고 다녔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서늘한 촉감을 느끼게 하는 밀집모자는 우리 선조들이 창안해 낸 독특한 슬기였다.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고향을 떠난지가 반세기가 흘렀으니 요새도 그런 밀짚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고향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밀짚모자를 쓰고 자랐다. 일찌기 유교를 생활의 틀로 살아온 민족에게는 먹는 것만큼 소중했던 의관정제란 말이 있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쓰는 밀짚모자도 하여간 의관 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관은 의관이되 정장의 그것이 아니고 간이적이고 서민적인 생활의 편에 든다. 밀짚모자는 모양이 우아하고 멋이나 외양을 차리기 보다는 더위를 더는 데 실속을 차리는 차림새 편에 든다. 밀짚이나 보리짚이라는 감부터가 그렇지만, 영성하게 얹는 품이며 챙을 넓게 다는 것이며가 다 그렇다. 가격도 싸서 잃어버리거나 바람에 날려가도 다른 물건에 비해서 마음이 덜 아프다.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한다. 그래야 과일과 곡식이 실하게 영글고, 여름에 땀 흘린 이는 게으르게 보낸 자보다는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래도 풍성한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밀짚모자는 벗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언제 어느 때나 써도 되는 물건이다. 그만큼 화려한 것을 멀리하고 간편한 것은 없다. 밭과 논일도 돌보는 텁텁한 농군들에게 안성마춤인 성싶다. 아버지 쓰던 것을 아들과 딸이 써도 허물이 없는 그런 물건이다. 농사일도 하고, 가다간 나들이도 해야 하는 농군들의 일상에 이 이상 실용적이고 간편한 것은 없다. 이렇게 원시적이기조차 한 밀짚모자이므로 한결 오붓하기조차 하다. 띠약볕 하나만 가리면 그로써 족하다고 하는 그런 원시적 납량철학이 거기에는 있으며 우리의 피서에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밀짚모자의 그늘에는 가난이 그어 놓은 주름살이 있고 서러운 육자배기가 있기 마련인가보다. 챙이 넓은 것은 이런 것 저런 것을 수월하게 세상을 보자는 데서 창안되었을 것이고, 우선 시야의 시원함과 활달함이 거기에는 있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평스러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 캐나다에는 만들기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밀짚모자가 없으니 옛날 고향에서 즐겼던 밀짚모자에 앓켜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거리가 없어 친구들과 만나도 밀짚모자의 화제는 들을 수 없다. 나는 모자를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 몇해 전에 아내는 특별할인으로 반값을 지불하고 틸리 모자(Tilley Hat) 하나를 싸왔다. 용도는 우리 밀짚모자와 비슷하다고 하겠는데 가격면에서는 천양지 차이가 난다. 우선 밀짚모자는 수분에 약한데 비해서 틸리모자는 수분에 강해 비오는 날에도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틸리모자는 캐나다에서 만드는데 어느 계절에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 등산, 캠핑, 나들이 등 아웃도어 용이며 비싼 가격을 제외하면 모양이 우아하고 실용적이다. 땀이 나면, 안쪽의 흡수층을 통과해 부드러운 밴드의 바깥쪽으로 이동 후 분산되어 증발하기 때문에 더위 속에서도 항상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햇빛과 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다른 모자보다 머리에 낮게 착용되어 멋진 스타일 연출에도 한 몫을 한다. 머리에 편안하게 얹히는 형태로 특히 덮고 습한 날에 성능을 발휘한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것을 두고 일거양득이라고 했던가.

틸리모자를 쓴 신사들을 요즘 등산을 갈 때나 골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모자를 쓴 품이나 걸음걸이가 조금 뻣뻣해서 마치 기생 오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기분이 상쾌하다는 뜻일 게다. 나는 채전밭 일을 도울 때나 잔디 깍을 때, 등산갈 때도 골프칠 때도 쓰고, 정장을 하고 나들이 할 때도 쓰고 하니 밀짚모자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밀짚모자에 비하면 가격도 비싸고 어디를 가나 잊어버리지 않게 간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틸리모자를 쓰면 모양도 좋아 바람둥이의 인상을 주어 마치 기생 오래비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오스트랄리아의 농부들이 즐겨 쓴다는 것이라는 데, 나에겐 밀짚모자에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만 같다. 밀짚모자를 눌러 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음담패설을 즐기는 소박한 낮은 사람들의 생활, 비록 하찮은 세상일이라도 신선처럼 돋보이는 착각이 일어난다. 논두렁 그늘에서 마시는 한 사발의 농주의 진미를 어쩌면 그 맛은 “소슬한 맛” 이기도 하고, “앞이 탁 트인 맛” 이기도 하다. 틸리모자를 쓰는 이들은 밀짚모자로 더위를 물리치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멋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2015-08-07)

## 지난 여름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대륙인 캐나다의 지난 여름 날씨는 지역별로 폭염과 가뭄, 홍수, 토네이도 등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 남부지역은 지난 7월 29일 한낮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에 이르는 최고 기온의 복더위를 겪었다. 이 날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부지역은 가뭄이 기승을 부리며 땅이 메말라 작물재배 농부들과 축산 농장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며, 매니토바에선 기록적인 초대형 폭풍과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일어났다. 동해안 지방에는 가랑비와 안개가 거듭되는 쌀쌀한 날씨에 여름이 사라졌다고 탄식을 털어 놓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연방환경성의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엘니뇨 현상이 주 요인이라고 한다.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 적도지역의 중앙부근부터 남미의 페루 연안에 걸친 넓은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며 나타난다고 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집뒤 작은 텃밭에는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미나리, 상추, 쑥갓, 토마토, 호박, 오이, 파, 고추, 깨 등이 자라고 있는데 물을 주면 잎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에서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금년 여름에는 온도가 34도까지 오르고 가뭄이 계속되니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잔디밭이 누렇게 말라간다. 이런 가뭄에도 꽃밭의 수국은 구름처럼 희게 피어올라 어두운 밤에도 뒷뜰에는 눈이 쌓인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환하게 밝다. 혹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다행이 금년에도 작은 텃밭의 마늘은 수확이 좋았다. 아내는 몇해 전에 골프장에 있는 어느 집 울타리에 청포도가 탐스럽게 영글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중 한그루의 포도나무 작은 뿌리를 캐와 뒷뜰에 심었는데 초여름에는 포도송이가 보기 좋게 많이 달렸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지 포도알맹이가 머루같이 잘게 영글어 가고 있다. 포도나무인지 머루나무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어느 새 뜨거운 여름의 칠월도 지나고 팔월로 접어 들었다. 세월은 화살 같아서 예부터 빠르다는 것이었으나, 혹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덧없다는 것이었으나, 요즈음에는 너무 빨라 그 말이 피부로 오는 것 같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계절도 여름이 덮고 많은 땀을 쓴게 하듯 사람도 젊어서 많은 땀을 흘려야 인생을 스스로 바라 볼 눈이 생긴다.

아직 가시지 않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다. 입추는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부터 농사를 지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입추의 날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곡식이 여무는 시기로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 무렵에는 하늘이 청명하면 풍년이 든다고 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흉년이라고 여긴다. 24절기 중 열세 번째 절기인 입추는 8월 8일 무렵이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며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입추가 지나고 벌써 8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기온이 33도로 올라가는 찌는 더위가 계속되니 어렸을 적에 즐겨 쓰던 구멍이 숭숭뚫린 밀집모자가 생각난다.

입추가 지나면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계절이 되면 나 유년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둑어둑 초저녁의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이면 고향 집의 앞마당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그날 하루의 이야기와 내일의 일거리 화제가 오고 간다. 그리고 갑자나 옥수수를 삶아 먹던 것, 미싯가루를 타 마시는 것, 그런 군것질도 구수하기만 했고, 세상사 돌아가는 얘기를 소곤소곤 나누곤 했었다. 그런 추억은 어쩌면 인정이 메마른 오늘날의 처지에서는 꿈 같은 이상향을 환기시켜 주기에 족하다. 거기에는 음악과 예술이 있었고, 사랑과 시가 있었고, 고향이 있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시절의 풍요롭고 평화가 가득한 이런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으리라.

금년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골프를 치게 되는데 가는 골프장마다 한인 골퍼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고달픈 이민 생활의 먼지를 털고 잠시나마 인생을 휴식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삶의 멋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휴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삶을 재생시키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노상 일만 하고 휴식이 없으면 그 생활은 여유가 없는 공허하고 건조한 것이 된다. 이를테면 쉬는 것이 곧 윤활유를 주고 삶에 보람을 주는 것이라 할까. 향수라는 것은 고향의 그리운 풍물에 대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만, 심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년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가까운 호숫가에나 녹음이 짙은 산속에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름다운 여름을 즐겨야겠다. (2015-08-13)

## 가을의 시작

하늘에는 미세 먼지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은 더없이 맑은 공간이다. 가을 오후 특유의 햇빛 역시 찬란하고 따갑다. 해마다 비료도 주지 않는 뜰의 한 구석에 복스럽고 그득하게 무궁화와 코스모스가 무리지어 흐드러지게 피어, 다른 꽃들을 제압하고 있다. 가을의 매력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선선한 날씨가 아닐까 한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 비로소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고, 무더위에 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낮 무더위와 늦은 장마에 다시금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스며들면서 그래도 가을이 이제 코앞임을 알 수 있는 시기,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더위가 그치고 공기가 다소 선선해졌음을 느끼는 절기, 바로 처서가 찾아왔다.

처서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가을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처서는 8월 23일 무렵인데 여름이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계절이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내는 때이다. 고향에는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에 논두렁, 이곳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는 조상이 영면하는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한다.

북쪽 베리에서 농사를 짓는 박형께서는 금년에는 날씨가 고르게 비가 오고 해서 옥수수, 콩이 풍작이라고 한다. 법학을 전공한 형께서는 같은 시기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늦게 시작한 농사일에 재미를 불이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존경스럽다. 오곡 백과가 주렁주렁 익고 휘영청 날씨도 맑고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때도 있었던가 싶고, 한정 없이 마음을 풀어 놓고 시절을 구가하여 모자람이 없다. 더구나 금년 가을은 풍년 중에도 대풍이라니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텃밭에는 호박이 주렁주렁 달리고 방울 토마도가 많이 달려있어 나는 심심찮게 군것질을 한다. 토끼와 기러기가 가끔 눈에 띠는데 먹을 것을 던져주면 녀석들은 겁도없이 가까이 와 먹고 가기도 한다.

이 좋은 가을, 춤도 덥도 않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리라. 선인들은 가을을 일러 등화 가친의 계절이라고 해왔다. 등불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절, 즉 독서하기에 적격인 그런 때인 것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이 이 엄청난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것이 다만 가을이라는 좋은 철을 당해 더욱 해야 하는 촉진제 구실을 해준다는 것 뿐이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현대문명의 각종 이기와 텔레비전에 밀려 허울 좋은 말장난에 비교할 정도인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 지난 겨울에는 건강을 핑개삼아 등산을 많이 했다. 등산은 산을 넘는, 즉 정복하는 것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 것은 끊임없는 시련 자체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등산을 한다는 것은, 철저한 놀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참을성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걷자, 조금 더 땀을 흘리자,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대목의 힘에 발분하도록 이끄는 것----이것에 등산의 의의가 있었다. 봄이 오고 골프장이 문을 열자 골프에만 열중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다. 요즈음 골프장에서 돌아오면 와락 내게로 달려드는 게 있다. 꽃밭과 텃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체들, 꽃과 채소들이다. 목이 마르다고, 반갑다고 질러대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만 같다. 나는 숨가쁘게 물을 틀어 갈증을 덜어준다. 이번 가을에는 오는 금년 겨울 등산을 대비해서 아침저녁 산책을 하고 시원한 공기도 쐬고 산보를 시작해야겠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조금만 걸으면 밀밭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미풍이 불어오면 밀밭의 물결은 마치 호수 물결같이 춤을 춘다. 금년 가을은 참으로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듯 뿌듯함을 안겨 준다.

십여년 전에 몇 포기로 시작된 코스모스는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자연이 때가 되니 매년 집 앞뒤 뜰에 화사한 꽃을 피워 주었으니 고맙기 그지없이 더욱 애정을 느끼고 있다. 요즘 나는 매일같이 코스모스 꽃을 즐기고 정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을인가. (2015-08-30)

##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인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나 스스로 나의 옷과 신발을 사 본 일이 없다. 나는 여간해서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나가지 않는다. 특히 옷가게나 신발가게에는 더더욱 가지 않는다. 언제나 그것은 아내의 몫이다. 옷과 신발의 치수가 맞지않아 몇 번씩 바꿔오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변함없는 아내의 몫이었다. 이렇다보니 우리집의 신발장과 옷장에는 치수가 크거나 작은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신발과 티셔츠들이 많이 걸려있다.

아내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옷가게에 가게 되면 치수가 맞는지 한 번 몸에 걸쳐 보는 것이 고작이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융통성 없는 나로서는 바보 소리는 듣기 싫고 그렇다고 깎자고 하는 위인은 못 되니 진퇴양난일 수밖에. 그런 내가 언젠가 미국출장을 다녀 오면서 친구 조 백작과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다는 숙녀옷 아우트렛에 들른 일이 있었다. 백작이 자기 아내의 옷을 사면서 이곳에서 옷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에 꼬여 마음에 드는 아내 옷을 한벌 골라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달라는 대로 옷값을 치르고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보니 문제가 생겼다. 특별히 생각해서 하나 사 왔는데 옷의 치수가 적어 아내에게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 사 왔으니 교환하려 갈 수도 없고 그 옷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선물을 기대하지 않으니 편하다.

이렇게 시장이나 가게에 잘 가지 않으려는 것은 보는 것 마다 붙어 있는 그 비싸고 만만찮은 물건 값도 문제지만 지금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을 사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박싱 대이 세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욕데일 몰(York Dale Mall)에 아내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쇼핑몰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남자와는 달리 살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불평없이 따라 다녔다. 옷가게를 수도 없이 들어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가게로 전전한다. 이쯤되면 아무리 인내력이 많은 남편이라도 바닥이 나게 마련이다. 운 좋게도 가게 옆의 넓은 공간에 몇 개의 의자가 있고 서양남자 한 사람이 앉아 졸고 있는게 아닌가. 모르긴 해도 이 남자도

자기 아내를 따라 다니다가 지친 모양이리라. 나도 아내가 쇼핑을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즐고 있었다. 상상을 해보라. 두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입을 벌리고 즐고 있는 꼴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며 지나가는 가게 앞에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욕데일 몰에는 가지 않았다.

오늘은 빨간 색갈의 여행가방과 빨간색 티셔츠와 자켓트를 마음에도 들고 가격도 저렴하여 사왔단다. 늙어갈 수록 젊은 색갈로 입어야 된다는 아내의 독특한 철학강의를 듣는다. 세상은 온통 모두가 이기기 위해 기를 쓰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어수룩하고 주변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러워하는 아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데 속도는 느리고 다른 차들에 양보만 하는 것을 보고 옆 자리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교통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지난주 어느 날이다. 아내는 최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하나 사왔다. 이 희안한 작은 장난감은 화면을 채우는 메시지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반영하고,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온갖 말장난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허허로움에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몇 해 전 고국을 방문했을 때 지하전철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만지던 장난감의 유행이 우리집에도 찾아왔다. 나는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작은 요술 같은 상자를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요술 같은 물건을 가지고 카카오톡인가 코코아주스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내의 뜻이고 벌레를 쫓듯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조금 외람된 표현이지만 양반체통에 거슬려 나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다. 인생은 왕복차표 없는 외길이라고 했다. 살아가는 보람을 어디에 두느냐에 우리들 하나 하나의 인생의 비중이 달려 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각가지 모순과 불균형 --- 그 하나 하나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시대와 사회는 많이 변하였다. 두 아들들은 며느리들에게 뺏기고, 사돈의 아들이 되었지만 내게는 알토란처럼 영글어 가는 손자 손녀들이 웃음을 안겨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인가? 아내가 들어서 서운해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해도 살아온 내 모습 이대로 또 그렇게 자연과 세월에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고 싶다.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처럼 살아온 날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리라. (2015. 3)

## 10월의 어느 날

어느덧 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왔다. 한 낮의 태양은 아직 뜨겁지만 파랗고 높은 하늘 그리고 쌀쌀한 바람까지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날씨가 시작되었다. 광활한 대지의 산과 들이 불타고 있다. 아니 산야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불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단풍이 어느새 본격적으로 산과 들을 색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푸르렀던 산과 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화려한 모습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단풍 구경은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즐비해 있다. 집앞 가로수와 뒷뜰 울타리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곱게 물들어 있다. 집뒤 광활한 들판과 농장에도 계절의 변화가 찾아 왔다. 그 넓은 황금 벌판에 곡식이 알알이 영글어 가는 열매들이 추수의 계절을 알려 주고 있다. 밀밭은 수확을 끝낸지 벌써 몇 주가 지났고, 콩밭과 옥수수 밭에는 아직 누렇게 익은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 풍족한 풍년을 예고하고 있으니 금년 가을은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한 계절이다.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이 자란 옥수수밭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 가면 녹음의 흔적은 간 데 없고 불타는 단풍과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와 들국화 꽃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럴 때엔 어김없이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혀 우술우술 소리를 내고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향긋한 들국화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코끝에 스민다. 인간은 결국 자연과 가까울수록 행복해지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 빅토리아 스퀘어는 우리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밀과 콩, 그리고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아주 작은 시골 같은 마을이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건축붐이 불어 학교와 집들이 들어서고 점점 도시화 되고 있다. 마을에서 한 불록을 지나면 광활하게 펼쳐진 농장들이 있고 농장과 이어진 숲속으로 들어서면 지금 하늘이 불붙어 타고 있다. 아래의 진한 불길이 위로 퍼지고 넓게 번지며 하늘은 온통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 붉은 색의 찬란한 향연이다.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그 붉은색은 그 어떤 붉은 색도 당해낼 수 없는 싱싱한 색감과 생생한 질감으로 살아 있다.

넓은 농장들로 둘러 쌓인 평평한 숲속은 사시사철 맑고 아름답지만 파란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날리는 이맘때가 으뜸이다. 누구나 이곳을 오면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작은 마을 거리마다 가로수가 단풍으로 물들어 전체 마을이 불타는 단풍속에 파묻혀 있다. 환상적이다. 또한 쪽빛 하늘과 황금 들판,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을색이다.

매년 가을이면 목격하는 장면인데 밀과 콩, 옥수수를 수확한 농장에는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기 위해 새까맣게 내려 앉아 수많은 기러기떼들이 포식을 즐기고 있다. 우리 마을은 시골이라 불러도 될만큼 작고 조용한 마을인데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양쪽 길가에 자라는 한폭의 그림같은 갈대밭, 노랗고 빨간 단풍이 불타는 가로수,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이지만 수백 마리가 떼 지어 날라올라 장관을 연출하는 캐나다 기러기의 비상 등이다.

수백 마리의 캐나다 기러기(Canada goose) 떼가 하늘을 가득 채우며 휘돌고 감돌고 맴돌며 소용돌이치며 군무를 이루는 장면이다. 마치 누가 지휘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으로 찍힌 그 많은 기러기 떼들이 전혀 부딪치거나 헝클어짐이 없이 휘돌아가고 맴돌아 솟구치고 하는 그 군무는 얼마나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추상의 아름다움인가를 보여준다. 북미의 추운 겨울을 피해 남쪽으로 날아갈 비행 연습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에서 월동을 하는데 이동기에는 V(브이) 자 모양으로 떼를 지어 날며, 비상중에는 거의 그칠 새 없이 울음소리를 낸다. 기러기 울음소리가 그칠 때면 언제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겨울이 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집 앞과 뒷뜰에는 무궁화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우산살처럼 뻗어 나와 아름다운 무궁화 꽃을 날마다 피워 주고 하니 무궁화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된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날마다 수십 송이씩 새 꽃을 줄기차게 피워내더니 지금은 노란 잎이 단풍으로 달려있고, 빨갛게 물든 장미와 제라늄, 코스모스들이 무리를 지어 늦가을을 보내고 있다. 텃밭에는 지난해 늦가을에 심었던 마늘을 캐낸 자리에 김장배추와 무우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잘 자라 두 늙은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지금 바깥에는 가을비가 을시년스럽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부슬비가 그치고 햇빛이 솟아 내리는 맑은 날이 오면 집앞 잔디밭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일은 힘들지만 친구들을 불러 흰 종아리를 들어내고 있는 가을 무우를 함께 뽑아 나누어야겠다. 이것 또한 가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 다시 돌아온 가을

지난주 며칠동안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라도 할 듯이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더니 이제 완연히 가을의 기색이 천지를 뒤설레게 한다. 양귀비 꽃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은지도 오래 되었고 뒷밭에 지난 봄 모종해서 심었던 토마토 포기는 이미 말라버리고, 누릇누릇 쇠가는 호박넝쿨의 모습에도 초가을의 그늘이 서려 있다.

다시 돌아온 가을.

날씨가 조금씩 서늘해지는 가을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라고 했다. 이제 날마다 쓸어져 내릴 소나기 같은 낙엽의 비를 맞으면서 나는 또다시 문득문득 가슴을 치미는 알 수 없는 감회들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산과 들을 찾을 것이다. 가을은 나에게 지나간 여수의 그리움들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이다. 그 중에도 거의 반세기 전 처음으로 나의 영혼을 감동과 흥분으로 들뜨게 하던 중남부 독일의 풍경들을, 가는 곳마다 이국적 정취를 되살리며 한달음에 아득한 모젤강과 네카강의 추억 속으로 이끌어 간다. 여행지의 가을은 조금 쓸쓸하나 평화로운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게된다. 반세기 전의 아득한 세월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금 머리 속에 떠올려 본다.

모젤 강(Mosel River)은 독일 국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시작해 동화속 풍경같은 아기자기한 구릉과 들판, 그 사이사이에 들어앉은 예쁜 집들을 끼고 돌며 유장한 흐름을 계속해서 코블렌츠 (Koblenz)라는 도시에서 모젤강은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유명한 라인강에 합류되는 것이다. 코블렌츠, 라인강과 모젤강이 만나는 지점에 요새처럼 자리잡은 도시다. 라인강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BC 9세기에 세워진 로마의 도시 치곤 현대식 건물도 자주 눈에 띈다. 첫 눈에 봐도 고풍스러움과 깔끔함이 혼재하는 묘한 매력이 풍긴다. 모젤강 줄기를 따라 펼쳐진 국도를 타고 코헴(Cochem)이라는 독일의 전형적인 시골 도시에 짐을 풀었다. 모젤 계곡은 경사가 가파르고 험하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가장 아름다운 자연미를 보여준다.

계곡에는 고색창연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웅장한 성과 포도밭이 곳곳에 펼쳐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모젤강의 흐르는 물과 포도밭이 어우러진 곳, 모젤강 유역에서도 유명한 와인 산지 중 하나다.

이곳의 와인공장 시음장에서 나는 검은 고양이 (Schwarz Katze)라는 상표를 가진 독일 화이트 와인의 참 맛에 빠지고 말았다. 달고 감미로운 맛에 얼마나 마셨는지 그 후의 일이었다. 눈 앞이 흔들흔들 밟걸음이 제멋대로 놓이니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친구에 의지하여 버스를 타고 하는데 버스가 그냥 하늘로 붕붕 떠오르는 것 같은 몽롱한 환각 상태였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에 없다. 이 일은 젊음이 유혹하는 나의 20대의 경험이었다.

독일 와인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과 달리 화이트 와인이 주종이다. 이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유명한 와인들이 생산되는데 풍부한 향과 산미가 강한 맛, 생동감과 신선함이 있는 과일맛이 특징이다. 사방이 포도밭인데 그 와인을 마시며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풍경을 감상하며 모젤강의 내음을 맡는다.

독일을 찾는 사람들은 빼 놓을 수 없는 명소,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중세풍의 아름다운 도시 하이델베르크가 있다. 라인강의 지류, 네카 강변의 대학도시이며 고성과 함께 독일 유수의 관광도시이다. 하이델베르크의 자랑이자 상징인 하이델베르크 성 (Schloss Heidelberg)은 140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해 16-17세기를 지나며 지금과 같은 르네상스 양식의 외형을 갖추게 됐다. 30년 종교전쟁, 프랑스 군의 공격 그리고 번개에 맞아 파괴되고 보수 되기를 반복하며 수난을 겪었다고 하는데, 곳곳에 무너져 폐허로 남아 있는 성벽이 그 유구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하다. 네카강 언덕 위에 자리잡은 하이델베르크 성에 오르면 시내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성에서 내려다 본 고대도시는 푸르른 숲과 유유히 흐르는 네카강, 오랜지 빛 지붕들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시가지는 하이델베르크를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 준다.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작은 도시가 세계에 알려지게된 것은 1899년 출간된 독일의 소설 "Die Alte Heidelberg" 를 영화화한 할리우드의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The Student Prince)" 때문이다. 황태자 칼 하인리히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하숙집 딸 캐티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또 이별하게 되는 황태자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맥주집 "로텐 옥센", 하이델베르크 성과 카를테오도르 다리 등을 오가며 그려졌기 때문이다. 14세기 이후 독일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수 많은 문학가,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연을 노래하던 곳이다. 언덕위의 아름다운 고성과 네카강 위의 중후한 고풍의 다리, 고도의 낭만적이던 중세기 바ロック풍의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거리들의 환상적인 정경이 가슴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옛날 독일에서 살던 나의 젊은 시절 나를 매료시킨 독일 중부에 있는 낭만의 도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안겨주는 하이델베르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고도의 대학가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젊음을 노래했고, 고성의 뜰에서 황태자의 첫 사랑 연극공연을 보며 가슴 설쳤던 여름밤을 보냈고, 타운스퀘어 주변의 자갈길을 방황하며 사랑과 꿈을 찾아 헤매었던 젊음이 있었다. 감성이 둔했던 엔지니어에게도 철학자들의 길이라는 운치 있던 언덕길을 오르며 고테의 시를 읊었던 젊은 시절이 아련하게 눈앞에 그려진다. 지난날의 추억의 모습이 반세기가 지난 기억 속에 어쩌면 이리도 선명하게 떠오를까.

집앞 잔디밭에 한잎 두잎 떨어지는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잎을 보니 어느덧 계절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우리들의 삶에서 세월이 이리도 빠른가를 피부로 느낀다. 가로수의 단풍잎이 인간의 미망을 깨우치기라도 하듯 나그네의 발 밑에 살며시 내려와 않는다. (2013-10-18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겨울 산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면서 어느 새 찾아온 봄햇살이 향긋한 요즘, 따뜻해진 봄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다. 여느 주말이나 같이 산행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토론토 주위에는 호수를 건너오는 훈풍이 불어와 벌써 눈이 많이 녹아버려 파릇파릇한 잔디가 보이고 빈 터에는 새싹이 올라오는 풀이 보인다. 시내를 벗어나자 아직 채 눈이 녹지 않은 야산의 설경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 눈 속에 묻혀 있는 산골 마을의 경치가 그림 같다.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그런지 북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차가 막힘없이 빠졌다. Orangeville 을 거쳐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Mono Centre를 지나면 눈이 내리지 않아도 구불구불 산길 도로이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코스다. Mono Cliffs 주립공원 속의 눈 덮힌 여러 산들을 등산하려는 12.5 km 가 오늘 우리들의 산행길이다. 지난 여름 철에 이 산을 오른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겨울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얼굴을 한 산이 그리워진다.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산행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연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산을 오르면 몸가짐부터 달라지곤 했다. 자연은 언제나 나에게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이곳은 지금 겨울 산의 정취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구불구불 눈 덮힌 산길을 오르느라 진땀은 흘렸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겨울철의 Mono Hill 산은 몽환적인 아름다움의 눈세상, 설국 그 자체다. 두루뭉실한 산봉우리 몇 개와 평평한 들길같은 능선길이 고갯마루를 이어준다. 바람 부는 능선길은 조망이 탁월하며 상쾌하고 나직한 계곡길은 아늑하고 힘들지 않아 자분자분 걷는 재미가 아주 좋다. 능선길의 풍경은 웅장한 반면 계곡길은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전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겨울 산행을 하다보면 산 협곡이나 능성이에 덮혀 있는 많은 눈으로 오르기 힘들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지만 앞 사람의 발자국만 밟으며 비탈길을 오른다. 산 언덕을 다 오르니 이마와 등에 땀이 송글송글 솟는다. 산의 허리를 돌고 돌아

올라가야만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 높지 않은 얕은 산이어도 눈 앞에 펼쳐지는 설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다. 주위의 산 전체가 흰 눈으로 덮혀 있는 이 장엄한 대 자연의 장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에 들어서면 시작부터 끝이 날 때까지 눈 속에서 걷는다.

한참동안 미끄러운 눈길을 걷다가 나무 등걸에 앓아 들숨날숨 깊은 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다보니 조금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아직 얼어 있는 산속의 호수에 남쪽으로 갔던 기러기떼가 보이고 사슴이 지나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눈 덮힌 바위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들짐승들의 모습이다. 곰, 호랑이, 들소, 늑대 등등. 누가 보아도 마치 웅크리고 잠자고 있는 틀림없는 들짐승들의 모습이다. 눈이 시릴 정도로 겨울 산에서 올려다보는 파랗게 보이는 하늘 빛 또 한 희망을 안겨준다. 이곳에서 올려다본 겨울 하늘이 어느 곳보다 더 높고 더 파랗게 보인다. 그래서들 사람들은 겨울에도 등산을 마다하지 않나보다. 나도 눈 덮힌 겨울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산 정상 끝 언덕에 오르니 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골짜기들이 쉬원하게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우리가 해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산 속에는 바람에 흔들리고 세월에 풀린 신화들이 넘실대는 곳, 이곳은 바람이 이야기를 하고 나무들이 듣는 곳이라고나 할까. 우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소 적막한 느낌이었다.

눈에 묻혀 보이지 않는 등산로를 따라 얕은 오르막 길을 오르다가 다시 내려와 드문드문 넘어져 있는 나무에 걸터 앉았다. 바로 눈앞에 우람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있다. 나목이 된 술한 나무들이 우뚝우뚝 솟은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이 내려오고 있다.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과 땅을 덮고 있는 흰 눈에 매혹되면 누구나 시에 취하고 리듬에 취하고 감정에 취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대지를 덮고 있는 하얀 눈과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겨울 나무들의 늄름한 모습은 내 몸에 활기가 넘쳐나게 하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 주니 설산에 들어서면 마냥 행복하다. 시들해진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겨울 산이 최고다.

삶이 힘들 때 설산을 찾아 조용히 마음 속에 쌓였던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고 소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설경을 본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건강도 다지고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2013.04)

## 메이플 시럽 축제

산행모임 일곱 가정은 지난 4월 5일(2014) 1년에 단 하루동안 열리는 엘마이라 50주년 메이플 시럽 축제 (Elmira Maple Syrup Festival) 에 다녀왔다. 토론토에서 401번 고속도로를 타고 서남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작은 시골마을 엘마이라, 캐나다에서 메이플 시럽 (단풍당밀) 축제가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리는 유명한 시골마을이다. 이곳에서 메노나이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차가 생산되어서 마차 공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을이다.

아침부터 눈발이 조금씩 뿌리기는 했으나 많은 눈은 오지 않았다. 토론토 날씨 보다 낮은 영하 3도라 쌀쌀한 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치고는 대단히 추웠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이 작은 마을의 골목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란 정말 어려웠다. 거리에는 메이플 시럽의 향기가 진동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겨울이 끝날 무렵 이곳에서 개최되는 축제에는 봄의 소식을 전하는 단풍당밀 향을 맛보고, 수액을 채취하고 시럽을 만드는 방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쇠로 된 대형 솔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 시럽을 만드는데 현장에서 재래식으로 만든 시럽을 맛보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해마다 봄이 오면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듯이, 캐나다에서는 이른 봄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시럽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로쇠 수액은 잘 알지만 메이플 시럽이 고로쇠 수액으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은 잘모른다. 그리고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가 같은 종류의 나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잎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분류학적으로도 같은 과의 식물이다.

초기 북미 개척시대 때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짐승도 원주민도 아닌 다른 아닌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싱싱한 채소를 먹기도 어려워 비타민 결핍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많이 시달렸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눈이 녹을 즈음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을 원주민들에게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긴긴 북미의 겨울을 버티어 낼 수 있는 기초 영양을 보충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풍당밀이란 보통 설탕 단풍나무, 붉은 단풍나무, 검은 단풍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시럽을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이 오면 간절히 고대했던 단풍나무 시럽의 계절이 시작된다. 캐나다는 세계 메이플 시럽의 85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 산림은 장대한 적단풍, 흑단풍, 사탕단풍나무로 울창한데 봄의 추운 밤 기온과 따뜻한 낮 기온이 적당히 어울어져 시럽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투명한 수액을 다량 만들어 낸다. 수액 채취는 주로 2-4월에 이루어 지며 평균 한 그루가 한 시즌에 70리터 이상의 수액을 생산한다. 시럽 1리터를 만들려면 40리터의 수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캐나다에서 메이플 시럽을 생산하는 지역은 퀘벡 주, 온타리오 주, 뉴브런스윅 주, 노바스코샤 주 인데 그 중에서도 퀘벡 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오랫동안 캐나다 문화의 일부가 되어온 메이플 시럽은 원주민들이 초기 정착인들에게 수액을 채취하여 그것을 끓여 수분을 증발시킴으로 얻어지는 시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메이플 설탕은 북미의 동부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설탕의 종류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 시작한 1875년 전까지 대표적인 감미료였다.

캐나다의 특산물인 메이플 시럽은 건강식품으로 손색이 없는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백설탕과는 달리 칼륨과 칼슘을 포함,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원주민들은 약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메이플 시럽에 폴리페놀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 간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조백작은 인삼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부지런히 먹어볼 생각이다. 시중에는 설탕, 버터, 사탕은 물론 씨리얼, 요구르트 등과 같이 메이플 시럽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팬케이크, 와플, 프렌치 토스트, 또는 오트밀 죽에 사용하고 제빵, 감미제 또는 향미제로 쓰인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리에는 메이플 시럽 외에도 훈제된 터키, 야생 동물들로 만든 소시지 등 많은 먹거리가 나그네들을 유혹하고 있다. 나의 건강을 위한 나의 주치의의 처방은 No Sugar, No Cream, No Juice 이지만 오늘은 이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들은 4리터의 시럽을 거금 55불에 구입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집안사람의 솜씨로 요리책에 나오는 음식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3 인연 이야기



## 세월따라 흘러간 청춘

1965년 3월 25일 새벽, 어둠을 뚫고 찬 바람이 불어되던 미지의 땅 독일의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했다. 스무살을 갖 넘은 젊은이들은 갑자기 바뀌는 언어와 환경에 어쩔줄을 몰라했다. 모든 것이 눈부시게 새롭고 놀랍기만 하던 기억, 그 신선한 충격 속에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것은 낯선 풍물에 처음으로 접한 감동과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낯선 땅, 멀고 아득한 세계로 비상해왔다는 그 꿈 같은 사실이 못내 믿기지 않아, 가눌 수 없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곧 새벽이 어둠과 빛이 바뀌는 자연의 연출인 일출, 태양의 그 장엄한 위용에 위축당한 어둠의 잔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세상은 선명히 모습을 드러낸다.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은 배고팠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우리들에게는 온통 신비로 가득했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필리핀(170달러) 태국(260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파독 광부들은 지하 쟁도 곳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한국정부의 해외인력 수출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광부는 7932명, 간호사는 1만 천여명이다. 이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연간 5천만 달러로 한때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2%에 달했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잣 돈 역할을 했다. 이렇게 광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해서 한국은 1억5천만 마르크 (당시 30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서독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상업차관이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빈곤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광부와 간호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고국을 떠났는데 이제 반세기가 흘렀다. 지하 1000m의 쟁도에서 목숨 바쳐 일했던 파독 광부들과 동양에서 온 천사라는 말을 들으며 헌신했던 파독 간호사들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초석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정든 고향을 떠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물설고 낯선 땅에서 목숨 내놓고 일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도,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

국도 결코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은 땀과 눈물이 얼룩진 우리 젊은이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60년대 가난을 이기고자 정든 고국을 떠난 선배들의 힘들었던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광산회사와 3년 계약으로 이루어진 독일생활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강한 의지와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낭만도 있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추억여행을 하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닭으며 이렇게 변하는 세월과 환경 속에서 함께 변하는 자신을 본다. 옛날 독일에서 살았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전설의 고향이 되어 지금은 흐릿한 흔적이 되어 버렸으나 나는 아직도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헨(Aachen)시의 고풍스런 명소들을 즐겨 찾았던 운치 있는 벨기에, 네델란드의 삼개국 국경 시골지역에서 살던 많은 추억을 회상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 한다. 내 인생에 독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곳에 남기고 온 나의 젊음과 내 가슴에 담아온 그 나라의 문화 탓이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추억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곤 한다. 아헨은 독일의 서쪽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그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을 처음으로 도시로서 발전시키고, 온천으로 유명한 이곳을 매년 여름마다 머문 곳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벨기에, 네델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Westfae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1870년 개교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서, 루르 지방의 공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세워졌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국제대학이며 필자는 2년 동안 이 대학에서 청운의 꿈을 키우면서 젊음을 보냈다.

아헨은 중소형 도시이며 유황온천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로마시대 때부터 온천 도시로서 내려오면서 번성된 역사 깊은 도시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헨 대성당(Dom)과 엄청난 규모로 인상깊었던 구 시청(Rathous)은 이 도시의 유일한 관광명소이다. 아헨은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가 대관식을 치른 곳이고, 그가 죽고 나서 이곳 아헨에 묻혔다. 그 묻힌 자리에는 비잔틴 양식에서 시작하여 고딕 양식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의 변천을 보여주는 초기 유럽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아헨 성당(서기 780-800년)이 자리하고 있다. 약 30대에 이르는 왕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뤘다. 2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하헨돔을 본 것은 아헨에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나가는 세월은 잡을 수는 없다. 한낱 꿈을 쫓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젊은 날의 열성이 우리를 강인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다.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사랑과 야망, 그 허무한 환상을 찾아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들의 젊은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렸다. 인생은 영원이 아닌 순간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인생은 이제부터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청춘이란 어떤 시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나아가서 강인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 삶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을 탐내며 나이가 아무리 많아 지더라도 청춘으로 남도록 노력할 각오를 다진다.

(2013.10.11.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토론토의 겨울

건조한 폭설이 솟아져 내리는 캐나다의 겨울은 길다. 남부 온타리오의 토론토 지역에서는 싸락눈이 내리는데 드문 일로 최근에는 함박눈이 평평 내리고 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토론토의 겨울은 조금은 쓸쓸하고 어두우면서 또 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토론토 관광의 시작이자 중심인 CN 타워를 오르 내리는 사람들도 겨울철에 토론토를 찾는 사람들은 북부 온타리오 지역에서 눈위의 설상차(스키두)를 즐기면서 설원과 광활한 자연을 찾아 호수 위를 달리기도 하고, 얼음 낚시를 할 수도 있다. 좋은 풍경이 나오면 잠깐 설상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은 협곡으로 산책길이나 호수 표지판을 보고 곁길로 빠져도 좋다. 운이 좋을 때는 무스, 사슴, 산양 등 야생동물과 우연한 조우를 즐길 수도 있다. 얼음과 눈으로 덮힌 한겨울 캐나다의 설원과 호수 위에 쌓인 하얀 눈밭을 가르는 스노모바일의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는다. 토론토를 찾는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명소는 당연히 나이아가라 폭포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겨울철에 평소와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한국의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소제로 한 겨울 빛 축제는 폭포조명, 눈꽃 안개와 얼음꽃을 입은 나무들의 조명,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야외 콘서트, 촛불행렬, 코미디 페스티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금년에는 북극의 소용돌이 제트기류가 만들어 낸 섭씨 영하 37도까지 내려가면서 빛어진 극한의 추위에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거대한 고드름을 이뤄 장관을 만들어 냈다. 북미를 강타한 기록적인 “냉동고” 한파로 관광 명소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어 붙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꽁꽁 얼어붙은 오리들을 소방대원들이 구출해내는 아슬아슬한 소식을 전해온 날씨가 103년만에 찾아온 혹독한 추위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으로 보내는 하루는 가슴 뿌듯하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든 어떤 모임에서 새로 만나 알게 된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며 만났던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우리는 항상 만남 속에 살았고, 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업을 이루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나쁜 업을 이룬다는 불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웃깃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다”는 불교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희용 씨가 토론토에 거주하는 친구를 찾아왔다. 나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엔지니어들은 문학을 한 사람들 보다 감성이 둔하다고(실례)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내가 만난 김희용 씨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인데 외모상으로 나타난 인상과는 달리 그분의 음성과 생각은 온화하면서도 믿음성과 설득력을 주는 묘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잉크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캐나다의 인상은 너무 평화스럽단다. 김 선생 내외분을 집으로 점심을 초대했는데 집 뒤틀의 설원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다. 새하얀 들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깨끗한 눈밭 그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발로 밟으며 걷고 싶다고 한다. 복잡한 서울에서 살다 모처럼 겨울 휴가를 캐나다에서 보내니 눈내리는 시골 풍경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개인 단독 주택 안을 본다고 했다. 서울의 아파트 빌딩 숲속의 생활과는 다른 모양이다.

그의 아내 김여사께서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집사람의 솜씨가 서툴렀는지 직접 빈대떡 (녹두를 갈아서 부쳐 만든 떡) 을 굽는 솜씨는 한국에서 온 전문가답다. 맛있는 빈대떡을 만들어 손님이 주인을 대접하는 격이 되었으니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정을 느낀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보여버린 것은 무슨 조화였을까. 믿음, 신뢰, 동병상련 같은, 대충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김 선생은 아직도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비록 처음 만나는 인연이며 지구 반대편에 사는 벽안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캐나다를 지나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인상이 깊게 남아 있음은 김 선생 내외분이 어떤 인간을 끌어들이는 흡인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모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를 기대해 본다. 금년에는 캐나다에도 눈이 많이 내렸지만 한국에도 너무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난 캐나다의 겨울 여행, 마지막 토론토의 겨울밤을 고국의 소식과 함께 훈훈하게 녹였다. (2014-03-14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태극기와 애국가

산업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나라 밖에서 바라보는 조국은 지금 이념갈등과 정쟁으로 혼란스럽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한민국호가 침몰했다는 언론인들의 무책임한 경쟁심리와 인기영합 위주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침몰하지도 않았고 침몰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희비애락의 감정이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팽팽하게 부푸는 감격의 순간 가운데 하나는 역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봉창될 때이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의 축구 대축제인 월드컵이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 남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화려하게 그 막을 올렸다. 가슴 졸이며 긴장과 흥분속에 치러지는 한달 간의 축구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 대잔치를 말한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의 국기가 종합운동장이나 선수촌과 같은 훌륭한 시설과 거리 곳곳에 펼력이고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는 사실 다른 나라에 있어서 맨 처음으로 느껴지는 한 나라의 얼굴이기도 하다.

2002년 태극전사들이 일구어 낸 4강 월드컵 신화로 회자되는 영광의 순간은 한 민족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고국에서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땅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는 울려 퍼졌다. 월드컵 경기에 앞서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애국가가 제창되는 동안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직립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이곳 TV 화면에 보인다. 이 순간에는 한반도에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가슴 깊이 울리던 충격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응원석의 한국인들이 우르르 일어나 태극기를 휘두르는 광경과 국가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태극기와 응원도구, 붉은 악마 머리띠가 TV 화면에 선명하게 보인다. 동포들이 보여 준 그 때의 그 행위가 조국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면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가? 축구 경기 게임에서는 패했지만 대한의 건아들은 세계의 무대에서 나라를 빛내고 잘 싸웠다. 그들을 응원하는 해외동포로서 아픈 통증을 느꼈지만 그들이 자랑스럽다.

그리웠던 내 조국, 앞으로 무한한 번영과 풍요의 내 조국, 천 번도 더 부른 애국가가 제창될 때면 지금도 내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애국가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나는 또 그때 일을 기억하며 눈시울이 뜨거워 온다. 이곳 한인회관에서도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등의 국경일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 시기를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요즈음에는 국기가 게양, 하기될 때나 애국가가 제창될 때엔 우리도 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경건한 자세로 바로 서서, 마음 깊이 나라 사랑의 염원을 다질 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주는 변화요 발전이라 하겠다.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브라질의 모습들이 세계 방방곡곡의 안방에까지 전해지고 있어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한다. 브라질을 상징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상은 리우데자네이루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코르코바두 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상징인 동시에 브라질의 랜드 마크로 자리잡았다. 연간 약 180만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곳인데 여행자들의 선망의 명소이다. 주체국인 브라질 정부는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대회를 준비한 만큼 축구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특수 효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데 경기장 밖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격렬한 가두시위로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모가 한창이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떠들썩한 큰 잔치에는 어느 곳이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인데 이곳 브라질도 예외는 아닌것 같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몇 천 명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니 월드컵 축구 큰 잔치에도 안전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애국가를 더 많이 불러야 한다. “국가 없이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고 말한 도산의 말씀이 생각난다.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인 태극기 달기에 앞장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한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태극기의 모든 숨겨진 의미를 모두 다 알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해야한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 가정에 태극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나에게는 태권도를 배우는 열 세살의 손자와 열 두살의 손녀가 있다. 태권도장에서 배워왔는데 이들이 태극기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본다. 이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알겠는가마는 조국의 푸른 번영을 염원하는 일로 이보다 더 정성스런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 인연 이야기

인생은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옛 철인들은 우리의 일생을 “너와 나의 만남” 이란 말로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였다. 목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 이외의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의 무한한 반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함이 아주 예외가 아니고는 슬슬 가까워져야만 오래 간다고 한다. 냄비처럼 쉽게 달궈지면, 식는데도 그와 같아서 그런 모양이다. 이만큼 살아오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연을 맺었고, 맺은 만큼 떨쳐진 것도 많았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인연도 흘러가고 또 다른 인연과 사람들이 자리잡고는 한다.

사람과 사람의 모든 만남이 고마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모아 그룹 멤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뜻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초기 시절인 1975년 계모임 형식으로 시작해서 구성원들의 마음과 뜻이 맞아 특히 그 당시에는 토론토에 한인 이민자들이 적어 만날수록 정이 들어 이곳 이민자들의 기둥이 되어, 이민의 온갖 고뇌의 밤이 아무리 어둠에 삼켜지더라도 한달에 한번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고 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의욕차게 견디며 이겨내는 힘을 얻곤했다. 더우기 모든 것이 설기만 하고, 역경투성이인 이민생활에 있어서는 그같은 정신적 지주 없이는 현실에의 적응과 극복이 극난한 것임을 체험자는 실감하고 있었다. 개인의 사업과 이민생활의 그 바쁜 와중에도 공동체의 발전과 친목 도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웃사람들간에 친목을 다지고 상부상조한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계모임이 성행하였다.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큰 상호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민생활에,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견디고 굳건하게 다져져서 우리들의 모임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1977년 14명으로 구성된 우리 그룹은 초대사장으로 (고)성낙윤 선생님을 모시고 모두모아 투자주식회사 (Modumore Investment co.Ltd) 를 설립하게 되었다. 회사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마음 한가족이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80년대에는 세 개의 쇼핑 플라자를 소유하는 큰 기업체로 떠올랐다. 회사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데는 경제성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시대의 경제흐름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임원진들의 성실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모르긴 해도 한인사회에서 모두모아 그룹만큼 오랜 기간동안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성장해 온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기업체에는 말도 많고 분열이 생기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그룹의 주주들 대부분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을 전문인에게 일임해서 계속 성장해 온 것이다.

회사 덕택으로 지난 몇 십년 동안 세계 곳곳을 찾아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여행을 많이 했다. 감히 혼자서는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90년대 남부 카리브 해에 있는 작은섬 세인트 킷츠(St. Kitts) 에서의 주주총회겸 겨울 가족여행은 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 작은 섬의 땅을 밟으니 냄새부터 달랐다. 바닷바람 속에 묻어오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에 마음 까지 상쾌해졌다. 바다 위 노을을 바라보며 즐기는 저녁식사에는 바다가재(Lobster)가 나왔다.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육질의 바다가재는 우리들의 입을 더 없이 행복하게 해 줬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회사 덕분에 많은 곳을 다니기는 하지만 가족을 동반한 우리 그룹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는 시간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만나고 보고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명예도 부귀도 필요치 않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형제 자매처럼 흉터물 없이 더 가까워진다. 어찌 보면 우리 그룹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사가 설립된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창복 씨를 사장님으로 모시고 8명의 주주들이 상부상조는 물론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 여덟 명의 주주들은 이창복 안종훈 한천석 공재용 이태근 이영민 구철희 김종호들이다 .

사람의 생애는 아름다운 예술이여야 한다. 그 예술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전혀 상처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주고 받는 추억을 날줄과 씨줄로 하여 다양한 무늬를 수놓아 가는 거대하고 유니크한 한 폭의 양탄자 같은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 자신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인물이란 몇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애란 상대방 마음속의 수치심이나 상처를 슬쩍 덮어주는 너그러움과 유머, 그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들 삶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인간애란 거창한 것도 거룩한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 언제나 널려 있는 성냥개비 같은 것이다. 불만 붙이면 밝게 피어오르는. 우리 그룹의 어느 누구도 살펴보면 무난하고 서로 도우며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 내 인생에 최고의 만남이라고 자부하며 언제나 즐겁게 살고 있으며, 언제나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는 인간의 모든 발자취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숨길래야 감출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무엇인가의 교훈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도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어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넓고 깊은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는 독일과 일본의 폭력이 세계를 무법천지의 무대로 이끈 침략과 전쟁, 파괴와 수탈로 얼룩졌습니다. 동아시아의 7년 전쟁 (1592-1598)과 식민통치 36년으로 대표되듯 관계의 파탄은 늘 “일본요인” 때문이었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한-일관계는 언제나 평화로웠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냉전 체제와 전쟁, 분단과 대립 등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서로 돋고 협력하여 잘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정의와 존엄이 지켜지고 인권이 보장되며 빈곤에서도 해방되어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이며 한국인의 배척 행위가 일본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또는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그것도 한국인들의 거주지며 상가 일대에서 수백 명이 행렬을 짓고 요란한 반한 구호로 “한국인들은 일본 땅에서 물러가라!” 고 목청 터질듯 고함치는 백주의 횡포와 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극우파들의 만행을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 극우파들의 만행이 일본열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평화와 정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질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날의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식민주의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컨대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런 문제들이 마무리되어야 양국 사이에 진정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청산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지난날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더 나아가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요즘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과 정치인들의 망동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일본과 달리 2차대전 종전 직후 미래지향적 자세로 과거사 청산절차를 밟았다. 지도자들이 과거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공식적 화해정책을 수립해 일관되게 시행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적대국이었던 폴란드를 방문했다. 그리고 나치 정권하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은 독일총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이 사건은 지구촌 모든 양심인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다. 실로 역사적인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인간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이로써 양국간의 진정한 화해가 시작됐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폴란드, 프랑스, 유대인과 세계의 마음을 얻은 뒤 마침내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독일은 지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언제든 실수나 악행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통해 인간과 세계는 발전한다. 일본은 과거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주변 국가와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같은 사소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과 중국 국민뿐만 아니라 자국의 오키나와 주민들 까지 분노케 했던 교과서 편집과 같은 일은 포기해야 한다. 난징에서의 대학살과 731부대의 생체실험, 위안부 동원 등 나치의 독가스실 못지않은 만행을 저지르고 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일본,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자멸뿐일 것이다. 또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 일본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금 숙고해 봐야 할 문제다.

기상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금세기 말에는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1m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어 태평양에 떠 있는 많은 섬들이 수중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일본이란 나라, 지진과 원전사고로 초유

의 재앙과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들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도 마땅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벌인지도 모르는 지각변동, 나는 결코 일본열도가 바다 밑으로 침몰하는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 전함이 아니되기를 빌며 일본 전체가 화산 폭발의 지질학적 변동의 비극으로 잿더미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선진민주국가 한국과 일본은 반성과 화해, 관용과 선린, 평화와 인권 같은 인류보편가치를 세계를 향해 함께 내놓는 문명국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나라인 한-일 관계가 진정한 반성과 관용, 사과와 화해,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가치의 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2014)

## 저무는 섬나라 일본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영토 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침략의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왜곡과 국가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지난 낡은 과거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국가나 민족은 감정을 지닌 거대한 유기체이다. 국가간의 관계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개인과 같은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다. 상대의 마음이나 문화감각을 잘 이해하는 사이라면 오해나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세 나라가 서로 이웃한 지정학적 이점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일본이다. 침략과 학살과 종군위안부 등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인식도 일본 국민 사이에 점점 널리 퍼지고 있다.

일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화합을 이끌어 나가길 원한다면, 일본은 과거를 청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한다. 주변국들과 계속 영토권 (독도와 센카쿠/댜오위다오) 및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분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가 목표를 삼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정치적 화해를 추구할 것이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본의 극우주의적 정치인들은 일련의 민족주의 분출과 행동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논란을 부추긴다. 그들은 제국을 건설함이 옳고 따라서 이에 대해 과거 잘못된 행동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 특히 주변국 침략,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왜곡 및 망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 일본 아베 총리가 발표한 국민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고 외국에 나가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꿈은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전쟁헌법으로 바꾸어서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싶은 성격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 말하기를 초조감 때문이라고 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자연재해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할 수 없는 방사능 누출, 계속되는 장기 불항으로 중국에 경제대국 자리를 내 주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위기감을 느낀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건국이래 최근 급격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는 맹렬한 추격을 허용하다 보니 이대로는 더 이상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하얼빈 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은 사형 판결받은 인물”이라고 밝히는 등 일본의 집권세력이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제국주의 침탈에 앞장선 원흉을 응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 민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만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와 세계의 자각이라고 했다. 동양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저해하므로 적이 된다고 했다. 동양평화론을 구상한 안중근 의사야말로 한국역사에 있어 훌륭한 애국지사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일본과는 달리 2차대전 종전 직후 미래지향적 자세로 과거사 청산 절차를 밟았다. 지도자들이 과거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공식적 화해정책을 수립해 일관되게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지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도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과 같은 사소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며, 과거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를 반성치 않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 일본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금 숙고해 봄야 할 문제다.

명치유신 후부터 1942년까지 이어진 일본인의 노력은 군사대국의 극을 이루었다. 그 과정은 전후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놀라우리만큼 많은 일치점이 있다. 양적으로는 다를망정 질적으로는 같은 구조이다. 군사대국 일본이 멸망한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경제대국 일본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일본인들은 일본이 계속해서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를 새로운 협력과 화해의 시대로 이끌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것이 자국 미래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지말고 지금 더 늦기 전에 군국주의가 자국을 전멸시킬 위험에 빠뜨리는 길을 피하고 이성적인 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2014-02-2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순교자의 성지 미들랜드

여름 티가 날 정도로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다. 미들랜드(Midland)로 가는 길에는 신록의 푸르름도 한결 색깔이 진해졌다. 시골 도로 양쪽으로 뻗어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에는 무심하게 자란 감자 밭인데 소금을 뿌려 놓은 듯 꽃이 피어 하얀 꽃밭을 이뤘다. 그 중에서도 자주색 감자는 역시나 자주색 꽃을 피웠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다지만 식량으로 이용되는 감자꽃의 소박한 모양과 연한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변화도 몰라보게 달라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온타리오주의 한인성당은 매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인 7월 5일 미들랜드 순교자 성지에서 야외미사겸 기념행사를 갖는다. 미들랜드 순교자 성지 (Midland Martyr's Shrine) 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호수와 계곡,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의 생태가 그대로 담겨 있고 시간의 발자취가 봉인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온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계획은 더더욱 필요 없다. 그저 무작정 야외소풍을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성지의 언덕에 올라서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드넓은 산야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름을 맞고 있는 수많은 숲들이 수줍게 고개를 들며 내미는 듯한 모습들이다. 사방은 고요한데 숲속에 하늘 높이 우뚝 서 있는 성당의 종소리만 은은하게 울리고 있다. 그 종소리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다. 순교자의 성당은 여덟분의 순교자를 기리는 동시에 1639년에는 휴론족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에 세인트 매리 마을을 설립한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의 성스러운 종교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25년에 건립되었다. 이 곳은 바로 죄지안베이 지역에 살던 휴론족에게 전도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이곳은 세계 여러나라의 성인들을 모신 북미의 대표적 성지인데 한국인 최초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상이 죄지안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에 세워져 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충남 솔뫼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였다. 열여섯 살인 1836년 신학생으로 중국 마카오에 유학, 1845년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고국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제들의 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배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강 새남터에서 26 세의 꽃같은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다. 우리들이 매년 방문하는 이 순교자의 성지는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온타리오주 미들랜드 가까이 있는데, 자동차로 하이웨이 #400과 #12를 이용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다.

토론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천주교회 최규식 (그레고리오) 본당신부님과 세 분의 보좌신부님들과 함께 신자 230여 명의 야외미사가 우아하게 집전되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에서 은은하게 울려오는 종소리는 순교자 성지와 세인트 매리 전 계곡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토론토 시내를 벗어나 야외미사겸 1일 소풍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했다. 님을 향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숭고한 정신을 만나고 그 동안 소원했던 이웃들이나 새로운 교우들과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7월의 녹음은 우리들을 숲으로 부른다. 우리가 신록 속에 있으면 영원히 젊음을 간직할 것 같은 안정을 얻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인트 매리 마을의 골짜기에는 짙은 신록으로 뒤덮여 있었다. 작년에도 아니 재작년에도 와 본 곳이라고 싫증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혼자 거닐어도 좋고 가족들과 걸어도 좋지만 친구들과 거닐면 더욱 좋은 곳일 뿐이다. 이 맑은 물과 푸른 숲에서 하루를 즐긴다는 것도 그만큼의 행복을 소유한 셈이 된다. 여기저기엔 가족 동반의 즐거운 정경이 눈에 띄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산을 바라보라.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산과 언덕을 덮고 있는 이 때 하늘과 땅, 나무와 풀잎 사이에서 은밀히 뿐어 나오는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호수를 건너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속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충심으로 찬미하고 감사할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새들과 자연의 신비로움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곳, 도시락을 준비해서 숲속의 쉬원한 그늘에서 친구들과 한없이 머물면서 한수의 바둑을 두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 (2014 07)

##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우리 인간은 사랑할 때만이 건강하고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겠다. 예리히 프롬의 정의는 사랑의 총체성을 의미한다. 이 총체적 사랑에는 크게는 아가페(Agape) 와 필리아(Pilia) 그리고 에로스(Eros)로 나눈다. 아가페적 사랑이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구원적인 사랑이며 필리아는 친구와 동료간의 사랑을 뜻하며, 또한 에로스란 남녀간의 성애에 속하는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 방법이다. 정신적 사랑, 육체적 사랑, 물질적 사랑 등등, 그 중에서도 정신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아득한 그 옛날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말해 왔고, 지금도 사랑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인류의 선각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 문인들의 글로써, 시로써, 노래로, 영화로써, 그리고 예술작품으로써 이 사랑을 말하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글과 시, 노래와 예술 작품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 사랑에 대한 그 마지막 말과 표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이 충만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며 또한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 각자에게 항상 특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격적 삶의 본질을 말해주며 인간적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추와 미움으로 변하여 아무것도 창조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대상과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차는 법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고도 부족을 느끼며, 완성을 찾아 미완성에 머무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기독교적 사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완성된 사랑은 오직 예수의 사랑뿐이라는데 어찌하여 불완전한 사랑 투성이인 이곳에서 사랑이란 허술한 이름만이 이리도 난무하고 있는가.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랑은 젊음이고 용기이며 우리 인생

에서 필수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속이나 집착, 원망에서 벗어난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이든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면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죽는다해도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고,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이다.

인생의 홍역이며 행복을 위한 진통이라는 사랑의 고민은 그래서 위대하고 장엄한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고 그의 몸짓, 언어,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상처받곤 합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인생을 향해 함께 가기로 결심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칠고 험하고 언제 돌개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데 사람은 이외로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 사랑하던 첫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인간은 계절을 따라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이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인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기의 갈길을 세워야 진실한 의미에서 복된 길이 트인다고 할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바람에 쓰러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생각”이 꾱꿋해지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을 바라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의 정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계절을 따라 꽃처럼 핀 사람도 있었고 삶의 휴식을 같이한 보옥같은 벗들도 있었다. 잡을 수 없는 저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함께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사랑은 비켜 가고 말았지만 오늘도 그 비켜 간 사랑에 대해 그리워 하기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은 가고 없어도 옛 임에 대해 생각한 것은 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방적인 집착과 구속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기에 상대를 인정해주고, 떠나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일부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언젠가 만나겠지 하는 기다림은 이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종국에는 아주 먼 훗날에 사랑했던 그 추억, 그 기억을 즐겁고 기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는 추석맞이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옛 임이 달로 변해 달빛 곱게 내려

앉아 그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은가 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옛 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인연이 닿지 못하고 만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옛 임을 생각하면 면목 없지만, 이 아침 옛 임이 지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옛 임에게 부족하기 그지없던 자신을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나, 죄송한 나, 실망을 주었던 나, 이승에서 내가 지은 잘못 중에 하나가 옛 임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임을 생각합니다. 이승에서 이 잘못 갚을 길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청하는 용서가 옛 임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디 임의 일생이 행복하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시간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아름답지 않겠는가. 기억은 마음을 흔들고, 잊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가슴을 흔든다. 연민은 아니지만 서글픔 비슷한 흔들림, 계절을 따라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이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 기억이란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세월 속에 흔적이 없어졌으나, 그러나 봄이면 해마다 뒷동산에 피는 진달래꽃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달래꽃을 그대에게 바칠 길 없지만 진달래꽃 안고 임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2015-09-29)

## 콧수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장발 머리를 하거나 콧수염을 기른 친구가 더러 있는데 눈꼴 사납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젊은이의 장발 묶은 머리와 콧수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생활에선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윗사람 앞에선 젊은이가 눈꼴 사납게 콧수염을 달고 나타나면 주위 어른들이 심화병이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할 일이다.

오래 전의 일이다. 우리 회사 운전기사 Ron은 나의 수족이나 다름없이 호텔에서는 없어서는 않될 바자런한 일군이다. 호텔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손수 고치고 해결하는 손재주가 있는 젊은이다. 나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는 회사차는 물론이고 내가 아끼는 승용차 링컨을 타는 것도 허용되었다. 일종의 호텔 특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콧수염을 수북이 달고 다니며 손으로 아래 위로 쓰다듬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늙어 보일까봐 콧수염을 깨끗하게 밀어버리는데, 그는 수염을 기르므로 젊음을 뽐내는지 무슨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는지 자랑삼아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수염을 손질한다. 어떤 날은 히틀러의 콧수염을 닮은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담장 기어올라 가듯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그가 우리 회사로 들어온 그 날부터 그 콧수염이 마음에 걸려 말은 못하고 콧수염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 마음 모질게 먹고 콧수염이 나의 마음을 몹씨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콧수염을 깎든지 회사를 그만 두라는 일종의 권고사직이었고 협박이었다.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씁쓸한 얼굴로 돌아갔다. 3일 뒤에 나타난 그는 그 콧수염을 깨끗이 밀어버리고 말쑥한 신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월급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콧수염을 깎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몇 해 전 독일에서 온 나의 친구 김군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독일에 가서 반세기 동안 구라파에 살다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설마 구라파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로 삼을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코밑에 수북이 수염을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콧수염에 길들어져 있지 않은 우리집 강아지 패티도 마치 외계인의 침입을 당한 듯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동안인 그의 얼굴에 걸맞지 않게 달려있는 콧수염은 일종의 익살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염을 기르게 된 그의 이유는 더욱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바깥 출입이나 시장에 가면 아내에게 아들이냐고 묻는단다. 아내의 숨은 고민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위신이 설 것 같아 수염을 기르니 아내로부터 남편 대우를 잘 받고 있단다. 특히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영웅 대접 하듯 맞아들이는 아내의 매너야말로 콧수염을 기른 덕을 톡톡히 본다고 한다. 콧수염 하나로 자기 인생을 한 계단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렸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록 친구 사이지만 무척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이것은 수염에 얹힌 미담이다.

토론토에 반세기가 넘게 사귀어 온 나의 형제나 다름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깨끗하기로 소문이 난 친구다. 집 청소는 물론이고 신발이나 골프채 청소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다. 그의 집에 가면 먼지 하나 보기 힘들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식사후 밥그릇과 자기 옷도 직접 빨아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다. 그의 결백성이 이러하오니 말은 않해도 함께 사는 안사람도 힘들 것이란 나의 추측이다. 친구는 원래 수염 술이 적은 데다 이제는 나이에 밀려 빠지고 바래고 했지만 아침마다 면도를 대는지 가까이 보아도 흰 털 오라기 하나 눈에 띄지 않는다. 그의 머리는 어떤가. 머리 술이 많이 빠지고 없어지니 깨끗한 그 성격에 그의 머리에도 “중용”은 통하지 않는다. 집안 청소하듯이 머리 전체를 안전면도로 빽빽 밀어버려 윤이 나고 미끄러워 파리 한마리도 앓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의 말을 빌리면 집안 청소하듯이 매일 얼굴과 머리를 손질한다고 한다. 나는 그의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게으른 편이다.

나는 수염을 한번 길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품어본 때가 있었지만 길러본 일은 없다. 머리는 더부룩한 채 2개월에 한 번씩 깎지만 빗질도 별로 안하고 거의 아침마다 전기 면도기로 수염을 깎는 편이다. 나는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눈을 감고 이발사에게 운명을 내맡긴다. 불안은 조금도 없다. 이발사의 섬세한 손놀림에 텔깃들이 사뿐히 내려와 살갗을 스친다. 이럴 때 나는 “천사의 손”을 연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관이 아닌 서양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영 사정이 다르다. 주인이 가위와 빗을 들고 처삼촌 산소 별초하듯 대강대강 머리를 치면 5분도 걸리지 않아 끝이 된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릴적 한국에서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깎아주고 손 면도로 깨끗이 얼굴을 밀

어주고 머리를 씻어주는 한국사람들의 그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놀림에 길 들어진 나는 서양인들의 그 거친 손길을 꼭 참으려니 불안해서 지금도 한국인 이발소를 찾는다. 나의 얼굴 수난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신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수염만은 면도를 해서 얼굴이 깨끗해야 된다는 아내의 그럴듯한 풀이를 매일 듣고 산다.

아침과 특히 저녁 파티에 나서기 전에는 나의 얼굴은 아내의 일종의 검열(?)을 받는다. 가끔 면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과 목덜미까지 만지고 비비고 문지르고 하는데, 갓 돋은 고슴도치털로 변한 나의 수염 때문에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우울해지기 시작한단다. 저녁 파티에서 숙녀와 춤을 추다 뺨이 서로 닿거나 턱으로 이마를 스치거나 하면, 그것만으로도 실례가 될 터인데 갓 돋은 고슴도치털로 비벼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머리에 흰 빛이 늘어나고 유난히 마음을 설레 주는 듯 한데 아내는 머리에 염색을 하면 10년을 더 젊어보인다고 극성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수염을 한 번 길러 보았으면 하던 생각을 아예 포기해야 될 것 같다.(2015-04-01)

##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대회에 부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 돌아보니 조국을 떠난지가 50여 년이라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에 날개라도 달린 듯 지난 인생이 한순간에 훡 어깨를 스치고 날아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굴곡이 많다면 참 많은 인생이었는데 지나보니 한순간이었던 듯 합니다. 이쯤에서 지난 삶을 돌이켜 보는 것이 남은 날들을 위해 필요한 준비란 생각을 합니다. 희미한 기억들을 하나 하나 들추어 내다보니 모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세대는 청소년 시절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하는 감격을 맛보았고, 6.25를 당해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후복구를 위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세대들이다.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느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넜던 아직 젊었던 우리들은 활기 있고 또 용감했다. 우리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이역만리 낯설고 말조차 통하지 않은 미지의 땅 독일을 향해 떠나간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겐 인력수출이란 반세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파독광부란 지금의 젊은이들에겐 낯선 단어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자원은 물론 수출할 만한 기술력도 없었기에 인력, 즉 사람도 수출했다. 전 국민 2400만명에 실업자가 250만명이 넘던 시절이었다. 광부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모국 정부에서 독일에 파견한 인력인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에 간 광부가 7968명 그리고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을 말한다. 그땐 낯설고 물 선 땅에 수많은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울러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시련도 만만치 않았다.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석탄 캐는 일은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 인생 초년병인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작업 시작전 지하로 내려갈 때는 “글뤽 아우프” 라고 서로 인사를 한다. 죽지 말고 살아서 지상에 올라오라는 뜻이다. 파독 광부들은 지하 막장 곳곳에서 피나는 땀과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다. 허리에 해머를, 안전모와 구두, 물통, 무릎보호대, 머리에는 충전배터리 등불로 중무장을 하고 숨이

막히는 탄총에서 땀 흘리며 악착같이 벌어서 고국으로 보낸 돈이 당시 우리 나라 외화수입의 3분의1이 됐다니-----.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자금이 조국 산업화의 초석이 된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60년대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투신했던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대회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독일과 미국 등 먼 곳에서도 찾아와 250여 명이 모여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빛냈다. 이 모임은 60년대 모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이 모여 재회의 반가움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몇십년 만에 만난 우리들은 젊은 시절의 옛 추억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독일생활은 힘든 일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연치고는 너무도 우연인 구세주 같은 멋진 드라마가 등장한다. 병원 곳곳에 한국의 젊은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때 병원의 간호사 기숙사에는 금남의 자리였다. 그럼에도 못말리는 젊은 광부들이 이 핑개 저 핑개를 대며 밥도 얻어먹고 데이트도 하고, 만나면 짹이되어 주말이면 독일 땅 아니 유럽이 시끄러웠다. 그렇게 맷어진 부부들 대부분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는 북미로 이민 와 살고 있는데 모범적 시민가정으로도 소문 나 있다. 그들의 궁합은 천생연분이라는 말대로라면 하늘의 뜻이 된다. 짹을 찾아 독일 어느 곳이라도 들락거리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술이 없는 머리카락에 서리까지 내려앉았으니 흘러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먼 옛날 우리들의 젊었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지금은 흰머리에 주름살이 늘어나 있어도 젊음으로 되돌아와 만난 기분이다. 반갑고 즐거웠다.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그 추억에 산다"고 한다. 그 추억이란 우리들의 젊었던 시절 독일생활을 이 자리에서 들추어 내야 하는데 누에가 뿩잎을 먹고 살아가듯 이제 그 자락을 더듬어본다. 그 많은 추억들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의 기억이기 때문에 지나온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순간 아름답고 행복을 느낀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도 남들 못지않게 많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행복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가끔 곱씹으면서 지루해지려는 삶을 추스를 수 있는 활력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크고 작은 행복감의 공통점은 꼭 아름다운 유리그릇처럼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가을 문턱을 넘고 나서도 다음 만남의 기쁨을 꿈꾸다니-----.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는 기능이 남아 있는 한 그래도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니 아직 철이 덜 들은 모양이다.

독일 뤼프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방독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 때문에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생하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광산 촌을 찾아왔고, 식순에 따라 애국가가 시작되자 감격에 찬 광부와 간호사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생전에는 다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반드시 만들어 줍시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도중에 울음을 터트렸고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다. 곧이어 식장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60년대 루르탄광에서 흘렸던 우리들의 눈물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정성의 극치였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고 굶주린 조국을 떠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고향에 보내려 했던 가련한 국민들을 만나 흘린 눈물은 진정성 그 자체였다. 그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억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우리들을 또 울린다.

## 마캄성당, 그리고 억만장자

1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마캄 대성전(Markham Cathedral)이 있는데 성당건물의 모양이 제법 화려하고 웅장하다. 오늘 같은 날은 성당주위에 눈이 쌓여 있어 오솔길에 발목이 빠지기도 하고 잎을 떨군 나무들은 맨몸 자체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듯한 자세로 겨울을 나고 있다. 그리고 눈보라와 같은 매서운 꾸짖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14층 높이의 거대한 마캄성당은 3종악을 연주하는 종탑과 3개의 금으로 만든 돔으로 설계되었고 1984년 교황 Pope John Paul II 에 의해 카톨릭 성당으로 축성되었다. 금 광산으로 거부가 된 Stephen Roman 씨가 이 성당을 세웠으며 그 어른은 감히 어느 개인이 생각할 수 없는 값진 대성전을 남기고 1988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회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마을에도 이만한 뜻깊은 재벌이 있었다는 것은 더없이 큰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분과는 옷깃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 한번 서보거나 만나본 인연도 없지만, 같은 마을에 살았던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쩐지 마음이 흐뭇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딸 과 Slovak Byzantine Rite Catholics의 불화로 성당의 문을 닫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꾸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 그들 사이에 어떤 다툼(?)을 벌리고 있다는 풍문을 듣고 탐욕이란 얼마나 무서운 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 어느 한쪽에서 양보해 버린다면 해결이 날 것을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소리도 되고 무례한 짓이 되기도 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설립자 Roman 씨가 마캄 마을을 사랑하고 대성전을 남긴 것을 보면 그런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성당문은 닫혔으나 얼마전까지만해도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매마른 가슴 속에 단비 같은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 들곤 했다. 금으로 장식되었던 원래의 유리창들은 없어지고 폐쇄된 성당의 이마에 박힌 크고 둥근 시계는 눈을 맞으면서도 돌아가고 있었다. 문이 닫힌 성당은 자욱하게 눈에 덮여 두껍게 쌓인 눈 속에서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다.

그 동안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내린 눈들이 쌓이고 쌓여 동네 건물들의 지붕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다. 지금은 주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성당이 처음 문을 열고 가는 길에는 넓은 들판이어서 시골 같은 맛이 있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하늘에서 펄펄 쏟아지는 눈꽃송이를 맞으며 걷는 객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면 뾰드득하고 눈이 우는 소리를 듣는 맛조차도 무수한 자동차의 소음으로 해서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인간 삶의 진실하고 소중한 가치들은 국경도 민족도 인종도 문화도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선과 악이 있을 뿐이다. 사랑, 평화, 용서, 나눔은 동서고금의 선이며, 전쟁, 기아, 미움, 탐욕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악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성당문이 평화롭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개인의 탐욕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다. 함께 사는 생활에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 싸움에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어떤 다툼이나 갈등도 그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없으니, 누구든 먼저 자기 잘못만큼만 물어서면 즉시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눈은 뜰해졌지만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되고 있다. 마침 마을이 낳은 위대한 인물 Mr Roman의 이름이 헛되지 않고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기대감으로 이 글을 쓰게 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2015)

## 눈 치우는 소리

지난 11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어제도 그제도 멈추지 않고 내려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쌓였다. 캐나다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겨울이 길다.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춥다. 지금 온 세상이 새하얗게 옷을 갈아입었다. 하얀 눈은 우리에게 투명함, 정직과 고고함이며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기에 모두가 눈을 좋아한다. 흰 눈을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지며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기분이 들뜨고 감성에 젖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날에는 나이를 잊고 손자들과 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길에 내린 눈은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눈이 얼기 전에 치워야 하며 더구나 차도에 내린 눈은 운행에 위험이 따르니 소금과 모래를 뿌려 녹인다. 아무리 우리가 눈이 내리면 즐거워 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을 한다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사정없이 치워버리니 이기적인 인간 삶의 한 형태가 아닌가.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내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눈을 오래 방치하면 빙판길로 변해 낙상사고가 빈발할 수 있어 집 앞 눈은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치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눈 치우기 작업은 만만치 않은 시간과 체력 소모가 따른다.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눈, 치워야 하는데 너무 추워서 나가기는 싫고, 하지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집 앞에 쌓인 눈 치우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자동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눈은 가벼워 보여도 수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치우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실내생활이 많고 신체 활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눈 치우기를 노동이 아닌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눈은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 얼음처럼 단단해지고 무거워져 막 쌓였을 때보다 치우기 힘들어 되도록 눈이 그친 뒤 바로 치워야 쉽고 체력 소모가 덜하다.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집앞 차도 눈은 차가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내 손으로 다 치웠다. 어느 해 였던가 눈을 치우다 너무 무리를 했던지 허리를 다쳐 고생을 오랫동안 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일년에 한두 번은 그 후유증으로 허리를 조심하고 있다. 아마 늙어가는 증거일 것이다. 그 후 부터는 눈 치우는 사람이 제설차를 몰고와 우리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녘에 말끔히 치우고 간다. 이렇게 기계의 힘을 이용한 제설작업은 놀라울 정도의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인지의 개발과 더불어 과학의 발달을 기쁘게 생각하며 행복스러운 장래를 기약할 수가 있다고 본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에 내린 눈으로 온통 다른 세상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부터 눈을 치우고 있다. 우리집 앞은 제설이 다 되어 있어 기분이 상쾌하다. 우리집 눈 치우는 사람을 일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매년 가을 1년 계약을 맺는 날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외모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조금 모자란 듯 한데 일하는 것을 보면 빈틈없이 정확한 일꾼이다. 우리집 잔디도 자기가 깍겠다고 하는데 나의 기력이 더 떨어지면 하라고 했더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고마운 사람이다.

야간노동의 종류는 산업에 따라, 작업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하겠다. 눈 치우는 일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차가 나갈 수 있게 차도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가 하는 일은 여름에는 여러 사람들의 집들을 가꾸는 정원사로 겨울에는 눈 치우는 제설가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부지런한 가장 중의 한사람이다. 현대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착실한 일꾼이다.

우리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언제 왔던지 밤새 내린 그 많은 눈을 깨끗히 치우고 가는데 낮에 시에서 나온 도로 대형 제설추력이 지나가면서 쌓아둔 눈을 다시 와서 치우고 간다. 겨울 휴가중에도 사람이 집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눈을 치워주니 마음이 편하다. 매년 겨울이 오면 아침마다 눈 치우기에 한바탕 땀을 흘리며 허공을 향하여 뜻도 없는 욕을 하기도 하며 중노동을 했는데 요즈음은 아침 늦잠을 잘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우리대신 밤에 와서 눈을 치워주는 그의 수고로움과 고마움을 크게 느낀다. 봄이 오면 시간을 만들어 함께 아침이라도 같이 해야겠다. 금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만큼 도로변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높은 둑을 만들어 놓았다. 겨울이 아직 길게 남았으니 어려움도 많겠지만 느껴지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을 것 같다. 바깥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으니 오늘 밤에는 새벽 잠결에 눈 치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2014-03-2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바둑과 인생

옛날 젊었을 때 재미로 배웠는데 나는 바둑을 좋아하는 편이다. 유년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기력과 친구의 도움으로 아마추어 3급 정도 된다. 어느 누가 오늘 바둑 한 수 둡시다고 하면 거절 못하는 것이 바둑꾼들의 기질이다. 바둑은 흑과 백의 돌을 사각의 판 위에 가로 세로 각각 19줄이 그어진 바둑판 위의 361개 교차점에 돌을 번갈아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것을 겨루는 놀이다. 세상에서 바둑처럼 오묘한 내용을 담은 오락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바둑돌은 흑백 2종의 작은 돌에 지나지 않는다. 크기도 무게도 서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돌이 바둑판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치가 생긴다. 패착의 돌이 되기도 하고 승부를 뒤집는 묘수의 돌이 되기도 한다. 흑백의 돌들이 하나씩 놓여 가는 중에 바둑판 위에는 변화무쌍한 함축성을 지니고 싸움이 전개된다. 우리 인생이 이 바둑판 위에 있다니 사람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자리잡느냐에 따라서 바둑돌처럼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바둑의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5-7세기 사이에 한국으로 소개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인터넷으로도 즐길 수 있다.

한번 놓인 돌은 바둑판 위에서 움직이거나 들어낼 수 없다. 바둑 용어로 이것을 일수불퇴라고 하는데 한번 놓은 돌은 무를 수가 없다는 뜻이다. 무를 수 없는건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번 결정한 길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바둑에서 한 수만 잘못 놓으면 실패로 떨어지고 말듯이, 인생도 한순간에 명암이 바뀔 수가 있다. 상대방이 동등하게 시작하는 바둑을 맞바둑이라고 한다. 실력에 차이가 나는 상대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흑돌 몇 개를 화점에 미리 두고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접바둑이라고 한다.

바둑의 재미를 알면 중독이 될 정도로 진짜 무섭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컴퓨터 게임 따위는 우습다고 보면 된다. 게임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재미있다. 상기한 대로 행동(행마)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음 번엔 누가 무슨 수를 둘 지, 그리고 어떤 수를 두면 다음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하며 보는 재미가 쓸쓸하다.

중국 진나라의 왕질이라는 나뭇꾼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두 동자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지켜보다가 그 중 한 동자가 건네준 굴과 비슷한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무언가의 열매를 받아 먹으니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 그 덕에 더욱 정신없이 관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두 동자는 각각 수명을 관장하는 북두와 길흉을 관장하는 남두였고, 이런 우주구급 존재의 대결을 보게 된 나뭇꾼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끼 자루가 썩어 있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내려가니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황천행이 되었고, 자기 집에 가보니 증손자 뺨 되는 후손들이 자기가 나무하러 간 날을 기일 삼아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처럼 바둑게임에는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겨울이 되면 날씨 관계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바둑을 두게 된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Mr김 (2단), Mr오 (1단) 는 한국에서부터 상당한 바둑 실력을 갖춘 분들이다. 이 두 사람이 대국을 할때면 완전히 적장으로 바뀌는데 말이 없고 얼마나 신중하게 돌을 하나 하나 놓는지 하점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착점하기도 한다. 나의 바둑실력은 이들에 비해 하수인데 Mr오에게는 2점, Mr김은 3점을 놓고 접바둑을 두는데 3번 계속해서 지면 1점씩 올라가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요즘 나의 바둑이 슬럼프에 빠져 Mr김에 4점으로 올라갔으니 원상복기할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Mr김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그것도 시간문제 일 것이다.

바둑 게임이 한번 시작되면 두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모두 게임에 힘몰되어 밤인지 낮인지 식사시간인지도 모르게 되는데, 참지 못한 아내님의 출현에 바둑판이 뒤집혀 버리면 게임이 끝나게 된다. 바둑판 위에 정성들여 돌로 쌓아올린 집이 허무로 돌아감에 받는 스트레스, 바둑판이 뒤집히는데 받는 스트레스로 남자들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드니 오후 통제라.

현대의학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바둑게임은 뇌를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소한 걱정거리나 몸이 아플 때는 바둑 한 게임을 하고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니 바둑게임이 바로 무병 장수로 인도하는 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의 가정의사를 만났더니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하니 아내님들이여 남편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영감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14-04-03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메노나이트(Mennonite) 이야기

엘마이라의 메이플 시럽 축제를 보러가는 길목에 있는 메노나이트 중심지 세인트 제이콥스 마을은 키치너-워털루 지역 외각의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에 창시된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일파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를 경유하여 19세기 초기에 이곳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종교상의 이유로 이주 초기의 검소한 생활과 자급자족을 지키며 교통수단으로 지금도 마차를 이용한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종교개혁에 등장한 개신교 종파로 이미 유아세례를 받은 성인 기독교인으로서 진지한 신앙고백과 함께 신자의 세례를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재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종교적인 소수민족으로 재세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평화를 애호하는 무저항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유럽에서의 종교학대를 피해 이들은 미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처음으로 메노나이트 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갔다. 그러던 것이 1800년대 초기에는 좀더 싸고 개발되지 않은 땅인 온타리오 주 남부로 이동하여 많은 메노나이트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온타리오 주의 메노나이트 교파는 2만5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문명을 등진 채 외진 곳에서 살며 마차를 타고 다니는 올드 오더 메노나이트(Old order Mennonite) 숫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전기, 자동차, 전화 등의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생계수단은 농업과 축산으로 또는 과일 잼이나 주스를 만들고, 단풍나무에서 메이플 시럽을 채취하며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내다 팔아 생활을 한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과 생활방식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인구 1700여 명 남짓한 조그만 마을 세인트 제이콥스 이 마을의 중심가는 킹 스트리트로 시작된다. 도로 양편으로 19세기의 가옥을 개조한 집들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이다. 우리 일행은 이 마을에서 유명하기로 알려진 킹 스트리트에 있는 Stone Crock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독일 스타일의 뷔페로 가격은 조금 비싼지만 오랫만에 먹어보는 독일 고유의 소시지에 사우어 크라우트의 맛은

일품이었다. 독일어로 “신맛이 나는 양배추” 라는 뜻을 가진 사우어 크라우트는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요리이다. 좀 신 맛이 있지만 우리들의 김치에 가까운 음식이다. 특히 소시지나 고기 구워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새콤달콤한 것이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요즘과는 달리 지난 60년대 초에는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김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옛날 20대의 젊은 시절 독일에서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고유 음식 김치를 그리워 하면서 먹었던 그 사우어 크라우트(Sauer Kraut) 맛이었다. 우리들은 포식을 했다. 이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재침례교파로 알려진 메노나이트 교파의 사람들과 메이플 시럽 축제를 보기 위해 이 고장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세인트 제이콥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하나의 볼거리 파마스 마켓(농부시장)에는 공예품, 골동품, 민예품은 물론 인근의 메노나이트들이 생산한 무공해 야채와 과일, 식품, 잼, 치즈, 소시지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메노나이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턱 아래에 끈을 묶는 스타일의 보네트 모자를 쓰고 긴옷을 입으며,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으며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용을 금하는 등 일부 현대 기계문명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 전기시설도 없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나이든 메노나이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절제생활을 하고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겨울에도 마차를 타고 다니며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과 철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이다.

결코 크지는 않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사색의 시간을 주는 이 마을들, 세인트 제이콥스(St. Jacobs), 엘마이라(Elmira), 엘로라(Elorra) 등이 메노나이트들이 형성하고 있는 마을인데 이곳의 여행은 색다른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자연의 섭리와 순리에 맞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현대 문명 속의 우리들 삶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내일이란 이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내일은 저만치 멀리 있는 걸로 치부해 두고 살아왔다. 내일이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란 걸 이제야 눈앞에 실감으로 느낀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들을 치고 하지만 참 어리석기가 여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리석게도 오늘이 곧 내일이란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일에 쫓겨 내일을 걱정할 겨를이 없기도 했지만 나는 그동안 내일에 대해 별로 걱정을 않고 살아왔다. 뒤늦게라도 깨닭았으니 오늘을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자신을 찾아나서는 여행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이다. 마음이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올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올바로 느낄 수 없다. 욕망과 꿈과 희망, 미래가 그대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킨다. 무엇이든 그것이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속이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일 것이다.

글을 쓰는 나의 외국생활은 50여 년이 넘었다. 그 동안 보고 듣고 터득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써 풀어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이나 어느 여행길에서 만난 그 지역 토박이들의 생활과 아름다운 사연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해방 후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은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의 재산이 파괴되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어려움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인내심과 근면과 자립정신을 배웠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우리 세대들은 몸시 어렵게 공부하였으며 군대생활도 최전방에서 오늘날의 군대생활과는 달리 배고픔을 참아가며 고된 훈련과 작업을 하면서 고생하였기에 참을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참을성은 제대를 하고 난 뒤 사회생활을 할 때와 직장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민생활을 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특히 복합문화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모두 다른 문화권의 인종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참을성이란 괴로움이나 노여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기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유명한 말도 있다. 내 성격을 극복하고 참을성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젊은이는 꿈이 생명이고 꿈이 등대이기에 꿈이 없는 젊음은 죽은 청춘이며 내일이 없는 어둠이다.

나도 젊었을 때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대개의 젊음이 앓는 일종의 열병이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졸업 후 학교에서 보내준 직장과 주임교수님의 충고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험한 세상을 택했던 나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의 눈에 이슬을 남기고 떠나온 정든 조국은 이제 먼 곳에 있다. 이민을 와서 우리가 선택한 삶은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갈구한 욕심, 그러나 지난 생활은 우리 자신과 치른 힘든 경쟁이었던 것 같다. 한국과 독일, 캐나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괴로워하며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계속 분리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것은 해방될 수 없는 나의 운명이었다. 지금도 동양과 서양문화의 아름다운 화합속으로 나를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나 내일에 그치지 않으며 일년이나 이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긴 생애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언제나 필요하다.

옛날 학창시절이나 군대생활을 회고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심적 물적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많은 도움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 너무나 미미하여 송구스럽기만 하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도덕 윤리성의 결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까지 우리가 민주화되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배금주의 사상의 고취, 윤리도덕의 일부 후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 정신의 결여 등의 바람직하지 아니한 부산물이 생겨난 데 대하여 뜻있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요즈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렸을 때 나에게 닥쳐왔던 힘들었던 일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과 참는 습성을 길러준 길잡이였다. 절약과 검소를, 인내와 노력을, 만사에 감사함을 가지라고 일깨워주시던 부모님의 교훈과 지혜가 나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이제는 일제시절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회복기를 거치며 새로운 땅으로 옮겨와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면 우리들의 후세들은 인디언

원주민들의 전철을 밟아 북미에 정착한 외로운 이민자들로 남기 보다는 한국의 좋은 유산과 카나다의 좋은 문화를 한 그릇에 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두 아들은 잘 자라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독립해서 이곳 주류사회의 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잘 살고 있다. 우리 내외는 아직 건강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골프도 할 수 있으니 분명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주위 환경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제와 오늘은 완연히 다름을 느낀다. 이 산뜻한 느낌으로 나는 과거를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연결하여 계속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인간과 건망증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에 우선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을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지고, 또 백 살도 훨씬 넘게 오래 살고자 한다. 그러나 깊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소유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일종의 노욕에 불과하다. 피할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가지만 누구나 자신의 일생이 한결같이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저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변화의 단계를 의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인간은 각기 나름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노화 과정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도 해마다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아침마다 느껴지는 몸의 이상 기류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우리는 다 생명체의 생리법칙에 따라 인생의 진행 과정을 순리대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상한 일이다. 나이 탓일까. 그렇게 좋았던 기억력이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여름이었다. 한 라운드의 골프게임을 끝내는 데는 보통 4-5시간이 걸린다. 그날은 신나게 초원에서 즐기고 돌아오니 집안 전체가 뿐연 연기로 꽉차 있었다. 나는 직감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이도 불은 나지 않고 부엌에 올려 놓은 국솥이 새까맣게 타 버린 것이다. 아내가 아침에 국솥을 올려 놓고 잊어버리고 전기를 끄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가 항상 아끼던 솥은 버렸지만 그 일로 인해 집안에 매캐한 연기 냄새로 한달이상이나 고생을 했을 게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집에는 대문에 “부엌의 전기 확인했나요?”라는 메모지가 붙어있다. 물론 남편에게 알리는 일종의 명령(?)이다.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그 메모지를 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친구네도 우리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는 우리도 대문에 메모지를 매달아 두어야 할 것 같다.

늙는다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질 수 있겠지만, 우선 뭐니뭐니해도 기억력의 감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본다. 가까이는 주말 친구들이 모이는 친목

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반드시 끼어 있는데 모임에서 부르는 옛날 노래만 해도 알기는 알되, 확실하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입가에 뱅뱅 돌면서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고, 누가 부르면 속으로 따라 부르곤 한다. 노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좋았던 시력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는 사람도 조금 먼 거리에선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실례를 가끔 범하곤 한다. 이 황혼기에 더 밝은 시야를 소유하려는 자의 허상 같은 것은 또 무엇인가. 어느 때는 골프장에 가면 웬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나는 전연 기억이 없는데 함께 골프를 몇 번 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통 기억이 없다. 이쯤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돌리는 것이다. 하여간 모든 일에 잘 잊어 먹는다는 것이 늘었다. 그래서 차츰 늙는 것인가 하는데, 따지고 보면 망각이라는 것은 으례 있기 마련이나 그것이 나이가 들면, 좀 심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력이 저하되고 기억력과 청력이 둔해진 만큼 세상에 나온 핫수가 늘면, 마음의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무디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눈에 안경을 걸치고 돋보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젊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요즈음 같이 나이 들어서는 세월이 정신없이 빨리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한해라는 길이의 단위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터이지만, 다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판이한 것이다. 요새는 그저 금시에 날이 새고, 어느 새 낮이고, 벌써 저녁인 느낌이다. 어찌 그리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에 스스로 유감해지는 것이다.

잊어 먹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을 더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잊어 먹지 않고 온갖 것을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인생은 숨이 답답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까지 듦다. 젊은 청춘들의 눈에는 늙은이들의 건망증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우습게 비칠지도 모른다. 다만 그들과 다르다고 해서 아름다운 청춘을 구가하는데서 인색하고 싶은 마음은 호리도 없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친한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하려는 참인데 이름을 잊어버려 면전에서 친구의 이름을 물을 수도 없고 얼굴만 쳐다보며 당황한 일이 한번 두번도 아니다. 이쯤되면 옆에 있는 익살쟁이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임시변통으로 꾸며낸 말인 지는 몰라도 건망증은 장수할 좋은 징조라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2015-11-28)

## 4 민족문제에 대한 생각



한반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건국 후 우리의 국가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일본 강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완전히 유린당하고 살아 왔다. 식민지배 그 36년간 빼저리게 느낀 것은 나라 없는 백성은 노예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리 값진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조국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해방을 맞이하여 미친 듯이 기뻐하던 백성들은, 그것도 잠시 뿐 이 불우한 백성들은 또 다른 악랄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불한당들의 노략을 받게 된 것이다. 북은 공산주의로 굳어지고 남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며 근근히 연명해 오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공모 아래 김일성이란 자가 그의 적화통일의 전면전으로 기습해 온 전쟁이었다. 불의에 밀고 내려온 공산군은 삽시간에 남한을 쑥밭으로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예기치 않은 기습 남침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내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약하고 힘없는 나라는 아무쓸데가 없구나하는 깊은 뉘우침의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일생의 긴 세월 동안 세상이 여러 번 뒤바뀌면서 우리는 빼저린 죽음의 교훈을 체험해 온 것이다. 한 세대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도 기구한 운명 속에 놓여질 수 있을까!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몽땅 빼았기고 황폐화 된 한반도는 많은 피를 흘리고 시련을 당하면서, 배를 졸라매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오늘의 한강의 기적이란 것을 이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의 현상을 바라보는 나그네는 그 쓰리고 아프고, 비참한 역사 과정 속에서 빼저리게 체험한 교훈들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가는 사실들을 보고 너무도 놀라게 된다. 지금 한반도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후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분단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 종주국도 망하고, 그 이념은 너무나 낡아빠진 비과학적 사상인 연고이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유령이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침입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중 가면을 쓰고 권부와 정치계, 언론계와 학계, 정보와 안보 분야, 종교계 그리고 젊은 세대와 시민단체 등에 침투하여 어느새 둥지를 틀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능숙한 선전술에 기웃거리는 틈을 타고 조직적으로 그물을 펴 온 것이다. 이 속에서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안 밖으로 날뛰고 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원이 가담한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 음모했다”고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밝혔다.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의 공식 죄명은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인 대역죄로 처형되었는데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참으로 험악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 무리들이 있다하나, 이렇게 비인도적인 무리들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동족이 살고 있는 남과 북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만행을 보고 있는 동포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엄숙히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권력 구조 안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는 국내의 좌파 성향 명망가들로부터 저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대량아사, 숙청과 공개 처형, 그리고 주민들의 공포에 대한 반응을 듣고 싶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원칙과 신뢰를 기초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토대로 쌓아가는 신뢰 프로세스와 국민통합과 복지정책을 역점과제로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에 휘말려 민생문제와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 놓지 못한 상태다. 언제부터인지 일부 세력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트집잡더니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국가안보의 골격인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기능까지 폐기 하려는 세력까지 나타났다. 대북 정보기관은 정치와 권력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깨달아야 할 필수 덕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리에는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핏발선 슬로건을 외치며 불법 철도파업이 일어나 열차운행이 제한적이 되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한반도여 그대는 과연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옳은가.

오늘의 국가위기의 핵심은 이념적 사상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그리고 국민의식과 대중생활의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이는 나라의 총체적 위기로 몰아 갈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정치판이 난장판이라고 해도 우리가 목숨걸고 지켜야 할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을 사수할 수 있는 정신만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모를 다 분쇄하고 위대한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반도의 정쟁 소식보다는 국민 통합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2014-01-17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한반도에서의 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칼럼 2014.04)

한반도는 정치지리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요충이라는 이유 때문에 19세기 이래 세계열강에 의한 첨예한 각축장이 되었고 이윽고 동시 냉전시대의 긴장을 집중시킨 전후 분단상태로 몇십 년을 지내왔으며 아직도 전후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분단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소련 및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 권이 붕괴된 뒤에 나타난 민족주의, 종족주의들의 나쁜 긴장이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고 지난날의 서구 산업사회가 일으킨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된 사실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세련된 민족국가를,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버릴 수 없다.

한반도 내의 통일 문제가 아직도 냉전 체제의 유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공동의 문제 제기에 남북한이 일치되어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는 그 어느 시기 보다 통일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의 것이었으나 통일은 그 외세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부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정치의 최고 형태라고 말해도 좋게 되고 있다. 한반도 역내의 분단 체제는 서로 앞으로도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통일을 위해 있는 것으로 만들고 따라서 그것은 냉전 논리의 구태를 제거하고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의 다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우를 통한 합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기보다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꿈은 현실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의 역설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독일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 시대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에 의한 교류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은 통일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민족 생명체를 둘로 갈라 놓은 시대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 곧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

필자는 한반도 미래 발달을 새삼 강조하거니와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한반도의 꿈은 한반도의 민족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건설에 있게 되는 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수호를 위한 통일의 가능성 이야기로 근대 사회의 진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중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대적인 지원과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사회간접 자본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에 분단이란 아픈 경험을 공유한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통일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까지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계속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남한에 침투하여 중요시설들을 찰영하고 또한 청와대 상공을 비행해 찰영했다고 하며 그 무인항공기들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무인항공기의 영공 침입, 정찰은 군사적으로는 분명한 기습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30살 지도자 김정은은 무력통일을 공공연하게 외치며 설치고 무인비행기를 청와대 동산에 날려 보내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군부대를 찾아 실탄훈련을 참관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인데 그는 할아버지(김일성)의 꿈인 적화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다. 그는 자멸을 초래하는 영웅인가 철부지의 천방지축인가. 현재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조언할 수 있는 후견자가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북한은 고의적이든 무작위적이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화면에 비친 북한 인민들의 표정이 알려 주듯이 상대적인 빈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영양 상태의 부족이나 최저 생활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정신 무장을 다그친다 하더라도 정신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의 해결이 대중으로부터 일차적으로 환영받는 것이다.

권력이동과 같은 현상이나 자본주의 시대의 첨단 문명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문제, 삶의 질 문제 따위 없이는 전시대적 이념 지상주의는 그 존립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를 재통일로 회복하는 것

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역사를 나아가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만드는 인류사의 미덕까지도 한반도의 통일에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통일은 국제적 지지를 필요로하며 이런 점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세계사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이제 한반도의 꿈은 한반도의 민족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건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통일민족, 통일국가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의 역사를 향하여 냉혹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2014)

## 통일 한반도를 그리다

오늘 날 한반도는 물론 세계 곳곳마다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타당성의 낯말은 여기저기서 유행어처럼 들을 수 있다. 제 3국들이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새 체제와 역사와 사상과 삶의 방식까지 크게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질화 되었다. 고대 한국은 한반도 이북의 중국 동북 대륙을 그 교향악적인 영역으로 삼고 웅거했던 때가 있었다. 고대 중국의 역대 국가보다 훨씬 큰 영역 국가로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있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 때는 민족을 단결시켜 자주성을 높이기도 하였지만, 분단과 분열의 와중에서 국력을 소모하기도 하였다. 우리 겨례가 염원하는 민족 통일은 통일이라기보다는 빼앗긴 본래의 우리의 땅과 역사와 삶을 함께 도로 찾아가려는 것인데, 혈연과 자연의 동일성에 반해 의식의 이질성은 그 정도가 극도로 심화되어 온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8천만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진실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통일에 임해야 정당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21세기 오늘 날 우리의 처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흐름과 나라의 되어 가는 형편들을 공동체의 아픔을 안고 진단해 볼 때 누구나 그 증상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70년 전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갈라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내전과 침략, 빙곤, 인도적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의 장벽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민족은 하나의 통일국가를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민족이 갈망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고통을 덜어가고,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만 대군으로 무장하고 미사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동족을 말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단합을 위하여,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에는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2500만 동포가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포정치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종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란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3대에 걸친 세습체제 1인 독재는 70년간 이어지고 있다. 세월의 흐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북한은 전체주민을 눈멀고 귀멀게 하면서 마치 우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정치체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의 기본 법칙은 자유 경쟁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의 결점과 폐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공정한 자유 경쟁의 원칙 때문이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진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자유로운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이와같이 지금 남과 북의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경제강국을 자부하는 남과 민생경제 문제를 고민하며 군사강국을 자임하는 북이 함께 고민해야할 길은 통일밖에 없다.

여기에서 나는 내 주장이 다른 주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통일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역사 진행의 현재성으로 인식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의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화해와 통합과 평화의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하는 평화적 흡수통일만이 해법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흡수통일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흡수통일에는 평화적 흡수통일과 무력적 흡수통일을 들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남한과 3대에 걸친 세습 독재와 모든 상생 수단은 국가에 속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체제의 북한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의 대등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지혜를 모아 남한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끌어안고 흡수통일을 이루해야 한다.

남북통일만이 우리민족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디딤돌 삼아 연해주와 유라시아로 뻗어 가는 길만이 한민족이 크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의 통일 과제와 전망

한반도는 아시아의 동남단에 위치하면서 만주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연안으로 연립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건너서 중국 대륙을,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와 이웃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변경지대적, 완충지대적 성격 때문에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역사를 통해본 우리들의 선조들은 무수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마무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전승국인 강대국들의 테이블 위에서 관계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시킨 독일과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하고 서로 통일전략과 적화전략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일을 이룬 민주국가인 독일은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를 흡수 통일을 하였고,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무력으로 불법 침입하여 최악의 빙국이 잘사는 월남을 적화통일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당연하게 독일식 흡수 통일을 바라고 핵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십여 년간 도와준 보람 없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미사일로 핵포탄으로 오히려 우리의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는 반면 북한은 위장전술과 적화전략으로 일관되게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본 현재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가로서 존립 전망이 없는 실패한 국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한의 안보와 통일, 그리고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친북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활개치고 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친북성향으로는 더 이상 전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넘어 보다 확고한 틀이 잡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이 중요시되는 지금 시점에서 그 수렴될 지점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헌법체계라 할 수 있다. 좌든 우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낸 번영과 발전의 역사를 토대로 모두 함께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틀인 헌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전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의 기본적 인식과 절차, 방법 등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통일 문제를 민족사적 요청에 의해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온 민족의 복지 국가를 이루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북한은 통일을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계급 투쟁에 입각하여 전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문제로 본다. 남한은 통일 문제를 남북한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려는 데 반하여,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통일을 두 개의 정치 체제 사이의 통합이 아닌 “남조선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은 통일을 민족의 모든 성원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민족사회 건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무력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의 침략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어 북반부 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무력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 통일이라는 것도 남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의해 수세에 빠져 통일의 길에서만 살길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남조선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양측의 계속적인 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방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는 실질적인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핵문제 해결의지를 더욱 높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많은 부분에서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경제적 풍요와 민족 문화의 융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이어야 한다. 단순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2013.11.1 한인뉴스 부동산 캐나다 )

##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통일은 우리 시대의 숙원이자 핵심 과제이다. 분단과 대립으로 왜곡되어온 우리 민족의 삶과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해소시켜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고 염원이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반추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개해 준다.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주변 국제환경에도 존재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일차적 관심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 등 자국의 이익에 직접 부합하는 데 있지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현상의 변화는 부차적이다.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결정으로 이뤄질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주민은 장차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상생, 공영의 대상이지만 북한체제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1인 독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에 철저한 국가 안보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 역시 말로는 “조선은 하나” 이고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외치지만, 속내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핵전쟁을 불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는 한이 있어도 체제의 근본적 변화나 정보와 교류의 활성화로 민심이 남한으로 경시되는 상황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의 주민을 굶겨가면서 우리와 세계를 향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고도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인민들의 먹을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서 자위권 핵 억지력을 외치며 빈곤속의 허세를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도 계속되고 있어 마치 이성을 잃은 무리들의 집단으로 비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북미간 남한을 배제하고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은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킨 뒤 남한 내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연방제 공산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막후에서 민생경제에 전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총괄하는 북한의 2인자 장성택 부위원장은 한국을 경협의 최고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인 대역죄란 죄명을 씌워 공개처형을 당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작금의 가장 주의해야 할 글로벌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도발과 체제 불안정을 꼽았다. 이처럼 총체적 변환기에 있는 북한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도 오랜 노력을 통해 민주화가 만개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사회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긍정적 동력으로 수렴되기에 아직 먼듯 하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국내외 여론이 서로 다른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저 한사람의 생각만은 아닐 듯하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녹여 내어 공통의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와 정성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에 핵, 인권 등 이슈에 대화로 신뢰를 쌓고, 신뢰가 쌓이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포기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게 언제든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성큼다가 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북한쪽에 달려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통일은 8천만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경제적 풍요와 민족문화의 융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이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여야 한다. 단순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으로 평화적 흡수통일 만이 유일하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칼럼 2014.02)

## 한겨울날의 작은 통일

금강산에는 2미터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다고 한다. 이 혹한 날씨 속에서도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형님, 언니, 아버지, “내 아들아 이제 왔니?” 눈이 솟아져 내리는 이 한겨울날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호텔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지켜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이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한평생을 못만나던 부모 형제들이 다 늙은 뒤에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부등켜안고 몸부림치며 통한의 눈물바다를 이루는 비극, 이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요, 누구도 감히 지울 수 없는 생생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수십년의 길고 아픈 분단의 질곡을 뛰어 넘어서 오늘 이 한 순간에 남모르는 감격의 “작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이산가족의 재회는 처절했던 전쟁에 의한 분단의 아픔을 우리 손으로 감싸는 화해의 몸짓이자 이념과 체제의 분열을 넘어 민족통합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커다란 걸음의 시작이기도 하다.

60여 년 만에 만나는 부모형제들의 슬픈 가족사를 통해 이념과 전쟁이 만들어 놓은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새삼 느끼면서, 어쩌면 천만이 넘는 모든 이산가족들 중 이번에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도 한시바삐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고 보다 상시적인 만남을 보장하는 장소를 위해 남북 당국간 협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실 혈육이 떨어져 그것도 타의에 의해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산의 한은 잔인무도가 연출한 수치스런 희비극이다. 절대로 못만날 것만 같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아 이제라도 만났으니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 잔인함이었고 무도함이었다는 말이다.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세상의 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모르는 일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서로 만나고 오가는 중의 어느 한순간에 짐작도 못한 통일의 날이 오고 말지를 어느 누가 알겠는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100번 이상의 외세침입을 받았으나 선조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나라를 지켜왔다. 불행하게도 우리 세대에는 국토가 두 동강이 나고 남북이 두 눈을 부라리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오늘을 사는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없이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의 조국, 즉 통일된 조국을 꿈꾸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케케묵은 이념과 백만이 훨씬 넘는 군인들이 겹으로 두른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38선, 휴전선 철조망이 우리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된다면 그와 함께 우리민족의 통일의 꿈도 이루어 질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전격합의한 이후 최근 두 차례의 남북 고위급 정부인사들의 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남과북이 적이 아닌 형제라는 생각,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확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실로 남과 북이 하나의 조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서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한 목소리로 상호불가침 선언을 내놓아야할 것이며, 그에 따른 믿을 만한 후속조치로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군사협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다시 한번 이번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한겨울의 “작은 통일”에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의 무르익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기를 같은 동포로서 빌고 또 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남의 손에 의하여 동족이 갈라지고 등지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데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와 군사적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이 문제를 놓고 남북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사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수십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거대한 호텔에서 상봉한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와 감정을 너무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들의 고향마을을 찾아보고 가족뿐 아니라 친지와 친구,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나타나는 해빙의 기류가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봉에서 정치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며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상봉에서 고향 방문으로, 그리고 다시 남북간의 자유왕래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조국을 만드는 “작은 통일” 일 수 있는 것이다. (2014-02-28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칼럼)

## 지금 무슨 모습인가

한국을 떠나 멀리 외국에 나와 살면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고향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워 하고 사랑하게 되고 가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첨단 언론매체를 통해 매일 한국의 어두운 뉴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편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가지의 괴로움과 번뇌가 많아서 산다는 것을 괴롭게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해 보면 한반도는 살기 힘든 곳이다. 조용히 편하게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들은 성숙된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 갈등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갈등은 허용될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 바다에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탑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과 제주로 항해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174명만이 구조되고 이 화창한 봄날에 피어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사망하고 실종되어 진도 팽목항은 통곡의 울음바다로 변했다. 물속에서는 호흡이 불가능하고 체온을 쉽게 빼앗기므로, 바다에서 조난당하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인명을 구하려면 1분 1초를 다투어야 하는데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생명구조는 나 몰라라 하고 맨 먼저 탈출해 버린 희대의 무책임성을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선원법에는 선장과 승무원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실망과 충격, 상식의 초월범위를 넘어 안타깝고 생각할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통을 증폭시킨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떠난 타이타닉호는 영국민의 자랑과 꿈을 싣고 미국 뉴욕으로 처녀항해를 시작했다고 한다. 4만6천톤인 이 호화 선박은 당시 가장 크고 안전한 배라는 평을 들었다 .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배”로 불리던 이 호화선은 영원히 미국의 부두에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다. 아직 이른 봄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서쪽 바다에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면서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배에 타고 있던 2224명 중 710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1514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구조하고 끝까지 남아 배와 운명을 같이했다고 하니 세월호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에서 문제가 있다. 중고 배 수입, 무리한 증축, 화물 과적, 미숙한 항해, 무책임한 선장 등 어른들의 욕심과 비겁함이 어린 학생들을 찬 바다에 밀어넣은 결과를 초래했다. 전쟁의 참화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부러움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던 세계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사건 뒷면에 가려진 후진국의 어두운 얼굴을 국제사회 주요 외신들은 대서특필로 살살이 보여주었다.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면서 안전체계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 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완벽한 인재로 밝혀졌다. 승객들의 구조활동에 전념해야할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는가 하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망망대해에서 자신보다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살신성인을 실천한 이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며 이런 이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때는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한국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수준, 격과 속성을 깨달아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국민적인 각성 위에 하나씩 바로잡고, 원칙과 정의를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저력은 다시 빛을 발하리라 믿는다. 이번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많은 구조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자식을 잃은 비참한 심정의 부모들과 온 국민이 슬프고 우울할 때 정부만을 탓하기보다는 정부를 밀어주고 잘못한 곳에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고향 대한민국은 우리를 사람답게 자라게 해주었고 어른과 스승을 알게 가르쳤고 손아랫사람이나 선, 후배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하였고 친구와 사귐의 예의를 알려주었다. 나아가서 나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까지 함양시켜 주었다. 지난날 그런 고향은 탕아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다. 이 힘 때문에 나그네 같은 떠돌이도 고향이라는 심상과 기억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옛날 고향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번 침몰사고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

## 통일의 꿈은 언제쯤 오려나

한반도의 분단은 7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통일은 여전히 감감한 느낌이다.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가이며 한때 적국이었던 일본총리에게 미 상하양원합동회의에의 연설이란 영예가 주어진다고 한다. 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놀라운 소식은 뭔가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한 시대의 종언이라고 할까, 그런 역사적 상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적 상징성 때문인지 한반도에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기 위한 통일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어떤 국제적 질서를 변화하려면 즉 통일이 이룩될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첫째로 남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둘째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체제의 붕괴로 일어나는 흡수통일,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이다.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 어떤 방법으로 달성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남북당사국의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이며 숙명적인 통일의 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올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대적 국제상황에 따라 각 정부들마다 저마다의 통일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역대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기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고, 둘째가 한민족 전체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다.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화해와 통합과 평화는 먼 훗날의 통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며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것의 기초는 “선 평화유지 후 통일”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통일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원칙적으로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몽상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도 연방제를 통한 남한사

회 전복이라는 공세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북한정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체제유지와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정권이 목적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과 평화조약체결을 통한 체제안정구축이고,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한 정부들이 주장해왔던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분단현상유지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에 평화는 군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평화통일은 그 어떤 힘의 균형이 체제경쟁에서 어느 한편이 무너졌을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내부적인 문제로 갑자기 붕괴되지 않고 현재의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고 있는 남한과 3대에 걸친 세습 독제와 모든 상생 수단은 국가에 속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핵 개발과 공포 정치, 굶주림 같은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최종 해결 방법은 흡수통일을 착수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마침 한국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북통일은 단순한 공간적 통일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질적인 체제의 주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사회로 통합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이한 사상과 교육, 정치체제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70년을 지내온 두 가지 이질적인 가치관과 사고로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사회에서 융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두 체제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등성을 회복하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의식적 통합은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 주민들 간에 생활 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나가면서 동질성을 회복해나가야 될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변화된 동북아 정치, 경제, 군사 형태로 보아 남과 북이 마음을 트고 얘기를 시작하면 찰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 국가와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바로 국민과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행복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남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시대의 절대적 사명이다. (2015-04-07)

## 민족 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지금 70여 년이 되는 분단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를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다. 그리고 이 문제만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지식인에게만 내맡겨서는 안 될 전체 민족 자신의 문제이다. 지금 남북한의 각자 분단 체제 헌법, 그러니까 남북한 단독 정부가 반포한 헌법은 다같이 한반도 전역을 그 영토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국가와 정체를 서로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적대 관계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남한은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우리는 동서독의 흡수 통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전례가 되지 않겠지만 냉전 체제의 와해로 인한 북한의 남한적 개방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수세에 몰린 북한의 동향에 세계적인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거의 절대적이었던 정통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북한이 이제 그 정통성의 시효를 벗어나서 자급자족의 한계에 다다랐다. 정통성이란 정치 명분으로서의 반외세 투쟁에 있었고 자급자족은 사회주의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의 북한은 소련과의 동맹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의 일정한 개방 정책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 남한 쪽에서는 남한에 유리한 것이 작금의 국제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역사 진행의 현재성으로 인식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의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의 통일이 완성되는 것을 예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는 오늘 당장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남북분단 체제의 상호 극복에는 그 동안의 분단이 쌓아온 분단의 기득권에 대한 창조적 지양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청산하는 제도적, 구조적 작업은 보다 더 철저해야 하겠다.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분단 자체까지도 통일의 전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선 힘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 쌍방 사이에서 흡수 통일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통일을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외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나가야 하겠다.

올미년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하더니 또 다시 한반도의 분위기가 동토처럼 얼어붙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핵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핵무기 10-16개를 가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3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강성대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백만대군과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UN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고 경제제재 등으로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즘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강도 대남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연설에서 북한 외상 이수용이 필요하면 미국을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5년을 통일 대전 완성의 해로 선언하며 이러한 북의 “벼랑 끝 전략”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남과 북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대화의 불씨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벗어나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갈 긴 도정에서 상호신뢰의 결실이 첫번째로 이룩되어야 하며, 갈등과 대결의 분단역사에서 화해와 협력의 통일역사로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이 역사의 대전환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도 거역할 수도 없다.

인권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머나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5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들의 동포다. 그들은 우리와 말이 같고, 풍습이 같고, 생김이 같은 형제다. 다만 역사 격랑기에 이데올로기의 선택이 달라 민족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나뉘었을 뿐이다. 평화통일은 민족 전체의 교향악적인 발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것이 남북한 국민 및 해외동포의 전민족권 공감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무쪼록 금년이 우리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2015. 3)

## 우리 민족이 사는 길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대부분 앗아가고 말았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황폐해 졌고, 공장, 발전소, 건물, 교량, 철도 등의 경제 시설도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1년 5월 16일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공업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국가를 중진국 반열로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는 이 시기 지상 최고의 과제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는 놀랄 만큼 성장하여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수출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해외에서는 독일 루르탄광과 병원에서 눈물 흘렸던 광원, 간호사, 목숨을 건 월남참전용사들, 더운 날씨의 중동건설노동자들이 피땀흘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60년 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되지 않던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하기까지, 단군 아래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했던 분들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화려한 성장 뒤에는 그만큼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문제로 인한 분쟁, 산업재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흘러들어 빈민의 신세로 전락하면서 세상살이가 점점 힘겹다고 한숨짓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의 호소가 가장 많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다시피 하는 거친 언사들에서 우리는 사람들 안에 더욱더 쌓여 가는 폭력성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으로 심하게 상처 입은 가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 내며 희망찬 삶을 누리려면 굳센 용기도 필요하고 주위의 따뜻한 벗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이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 계산되거나 예측되어 얻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지역, 빈부의 갈등이 극심하게 보인다. 같은 동포임에도 남북이 서로 원수로 갈라져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치적으로 갈라져 생각이 다르기로 첨예하다.

개개인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지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불행한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한 미대사 마크 리퍼드 공격 사건은 한 사람의 테러 행위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막칠을 한 격이 되었다. 한 사람의 종북, 좌익 과격분자의 잘못된 자화상, 스스로를 민족주의 영웅으로 위장하고 싶은 이번 테러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큰 사건이었다.

한때 외국인들은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다. 지금 회외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국은 마치 공권력 부재의 나라처럼 보인다. 법질서 수호의 공안기능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악처럼 간주하고 있고 그것이 민주화 투쟁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 좌파들이 날뛰는 자세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리퍼드 미대사 테러 사건을 계기로 종북 세력의 폭력화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한국인들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경제적 도약과 번영을 일궈냈지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념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해방 이후 못지않은 극도의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달려온 고난의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앗수르, 애굽과 페르시아 등 19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자기의 말과 글을 잊지 않고 민족정신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하에서는 600만의 유대인 민족이 학살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민족의 아픔을 자기 혈관 속에 끌어안으며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는 구호로 더욱 단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동족애의 결의가 혈관 속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처럼 과거의 험난했던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통곡의 벽”에서 통곡을 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애국심에 뭉친 젊은 남녀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도 민족애에 대한 사랑으로 뜰 뜰 뭉치고,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교육함으로써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민족도 배우고 간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민족의식과 애국혼을 가져야 한다. 한 목표에 집중된 정신력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 민족에도 신라시대 독특한 무사도로서 국가 민족의 수호를 이념으로 궐기한 청소년들의 화랑도, 자발적으로 조직해 애국운동을 전개했던 화랑정신이라는 혼이 있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슴을 펴고 자신을 가져라. 민족혼을 가슴에 지니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정신을 이어 간다면 우리 앞에는 평화통일은 물론 반드시 승리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2015.3)

## 한-일 수교 50년, 그리고 전망과 미래

2015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각별한 해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와 지배를 당한 나라가 국교를 맺은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과정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일 관계를 돌이켜보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에서 한-일관계는 양국의 국민 감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양국 간의 역사논쟁과 동북아 국제 질서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안보, 경제, 국제사회의 규범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2천년 이상 교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야와 백제의 멸망으로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했고, 통일신라와 일본은 적대관계에 있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은 막대한 피해와 약탈, 수탈을 당했고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발생했고, 여기서 승리한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합병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징용, 징병 등의 착취, 식량-자원-문화재의 대량 약탈이 이어졌다. 주권을 잃은 조선의 물적, 인적, 역사적 피해와 손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한국은 분단된 상태에서 6.25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나은 패전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 정치, 경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식민지 시대의 피해에 대한 반일감정을 자제하고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국가로서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짓고 화해함으로써 정치, 경제의 협력 틀을 확립한 계기가 됐다. 일본이 제공한 식민지 보상금 성격의 청구권 자금과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한 자본 및 기술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을 들어 일본인들은 포항제철소 건설이나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던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양국의 과거사 및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화해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의 협력 틀이 이루어졌고, 세세한 분야에서 아직 갈등과 경쟁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갈등분야는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영토, 위안부,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의 한-일관계의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2007년 미 하원 결의안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식민지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베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결코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국적,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것이다. 즉 양국은 역사 문제에 많은 정치적 자원을 배분해온 지금까지의 편협하면서도 근시안적인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의 논리를 발견해 구체적인 협력 작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막대한 피해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국제 위상이 하락했다. 반면 중국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서 경제력과 국제위상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상승했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협력관계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과거사 문제 등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베 정부가 국수주의적 우익사관을 고수하고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외교정책을 취하면,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질서의 변동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저하에 따른 지역 내 국제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G2로 부상한 글로벌 환경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방안을 추구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대등한 입장에서 영토 분쟁이나 안보 위협, 과거사 분쟁 등의 갈등 요인을 자제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면, 한-일 양국은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9-17)

##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21세기의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세계의 5분의 1 이상이다. 인구, 국민통합, 체제, 연구개발, 군사력, 경제력 등 국력의 기본요소 차원에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전략적 경쟁이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추진하는 이유이며, 대북-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국가를 핵심 주변국가로 간주하는 이유다.

1992년 8월 한중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1세기를 지향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치는 중국 이미지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리는 국가이며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국가,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인은 어느 때 보다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며 협력상대로 보고 앞으로 양국간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중 FTA협상을 통해서 두 나라의 전면적 협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복잡하다. 모처럼 한중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중국이 주변 국과 벌리는 영토분쟁, 군비증강 움직임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구상들은 첨단 군사력의 확장 및 현대화, 동-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영토 팽창, 대규모 경제 지원 및 투자를 수단으로 한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등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중관계와 한국인의 대중 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 핵심에 북한과 북핵 문제가 있다.

한국인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한반도 비핵화, 남북통일 지지와 같은 정치적 수사만 반복되면 협력 분위기로 흐르는 한중관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양국 FTA 체결을 통해 양국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두 나라 사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쟁보다 상생하는 한중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하는 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지역질서 개선 등 중대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그 밖에 쌍무관계 측면에서 한-중 양국 사이에는 수교 이전에 이미 나타났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확정 문제와 조선족에 대한 인식문제, 재중 탈북자 문제, 고구려 역사문제, 이른바 "간도"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기 정치관계와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다. 과거 인류 최대의 전쟁 참화인 제2차대전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기념 행사에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었다. 박대통령 방중의 가장 눈부시고 감탄할 만한 성과는 한중 상호 신뢰 증진이며, 한중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사상을 가진 국가들도 서로 신뢰한다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각 개인은 이상과 추구하는 바가 있고 모두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 개인의 전도와 운명은 모두 국가 민족의 전도 및 운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국가가 잘되고 민족이 잘되어야 비로소 모두가 잘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통일한국의 위대한 중흥의 실현은 영광스럽고도 험난한 일이며, 8천만 한민족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흥이고 한국의 꿈은 통일한국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한중 양국은 동방의 지혜를 통해 두 가지 아름다운 꿈을 더욱 웅장한 아시아의 꿈으로 성취시켜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관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실리이다. (2015-09-23)

##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 선조는 흥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해 왔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뜻이다. 다른 여러 가치관들은 그 높은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 들이다. 인간이 자연을 범용 또는 정복할 수 있다고 파악함으로 인생의 경험 과정 즉 인간 역사가 경제에 의하여 좌우된다. 인간이란 자유의지나 이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순 물질이거나 본능적인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육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인간 역사이며 이 역사가 역사를 증명한다는 소위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다. 즉 모든 존재물이 생성 원리인 물질 상호간의 충돌, 갈등, 마찰,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법칙적 절대 사관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큰 나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장사상과 공맹 정신이 어우러진 전통문화사상과 서구정신을 융합시켜 가면서 한두 세기를 더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는 중국만큼 크고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기에 서구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더 크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 어느 편이 더 많은 국민을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는 역사의 해답으로 남을 것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력이 좀 강해지자 중국 주도의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반드시 필요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MISSILE) 요격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육군 참모총장과 외무차관 방한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이 편치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한국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두가지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의도하는 동북공정은 그들의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이 저지르기 시작한 패착이요 자충수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다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로는 동북공정의 역사 위조, 현재로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놓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들은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칭기즈칸까지도 위대한 중국인이라고 역사를 날조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었다. 엄연한 역사 사실이지만, 원나라는 몽골족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해 건설한 식민정권이지 중국 역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원나라와 청나라에 365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역사도 그렇게 날조하고 조작해 대는데 먼 고구려사를 위조해 대는 것은 그들에겐 너무 쉬운 일일 것이다. 이런 사태는 경제력이 좀 강해지자 바로 정치 야망을 드러내는 중국 지도부의 오만과 경박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구경거리의 하나다. 그들의 그 성급함에 대한 대가는 세계적인 불신과 고립만 좌초할 것이다. 동북공정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으되,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올해는 2차대전 종전 70년, 한일 수교 5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격량에 싸여 있다. 잔잔해졌다가는 다시 출렁이는 물결처럼 한-일 관계는 오랫동안 부침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의 한-일 갈등은 식민통치 망언, 위안부, 역사 왜곡, 독도문제, 야스쿠니 참배 등을 둘러싸고 야기되어 왔다.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에서 유럽통합을 주도한 지도자로 거듭난 독일의 역사 여정이 같은 과오를 저지른 일본에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화해를 위한 전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수정주의 행보는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지난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장기 기획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다는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기회 있을 때마다 냉각된 관계개선 희망을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미국 유명 정치전문가 조지 프리드먼(Friedman)이 전망하는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이며 한국은 10-20년내 통일되어 일본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 일본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국력은 유지될 것이며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내다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며 중국을 불신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은 붕괴되는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며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이 통일되면 상당한 규모의 기술 중심지가 되며 강대국이 될 것이고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 70년 분단을 청산하고 평화통일로 가자

2015년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이자 한반도로서는 광복 70년의 세월이며 동시에 분단 70년의 한 시대의 종언이라고 할까, 그런 역사적 상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수치가 지닌 상징성 때문인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0년은 갖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궈온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이제 남과 북을 포함한 한반도 사회는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내야 하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거대한 전환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의견과 사상의 차이로 우리는 서로 대립될 수는 있어도 민족에 대한 사랑만은 같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8천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 선대들이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듯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다른 도약의 역사, 즉 미래를 향한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마음과 에너지를 결집해 국민 통합과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과 의지를 재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이다.

최근 비무장 지대 휴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맞서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시작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위기가 남북의 극적인 협의로 수습되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어떤 이유로도 남북한의 무력충돌은 쌍방의 기간시설과 인명이 파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핵무기를 내세우며 도발을 감행해 오던 깡패적인 북한정권도 이번 사태로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남북 고위급 판문점 접촉에서 양쪽이 지뢰폭발 유감과 대북방송(확성기) 중단 등 현안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합의, 그들이 희망하던 민간인 교류(금강산 관광 등) 활성화의 약속을 이뤄낸 것은 성숙한 남북의 태도라고 평가된다. 이번 고위급 접촉은 관계 개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군사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급조된 대화의 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만남은 특별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 남북간에 타결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결은 여러가지를 보여 주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이 남긴 유익한 교훈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즉 우리가 꿈꾸는 민족사랑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스스로 기대하는 체제 안정이나 경제 발전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기보다는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고, 또한 지난 70년 동안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위기가 남북 고위급 접촉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겠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접촉과 회담이 반복될 때 서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길 만이 한민족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져야 되며 훼손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해야 한다. 분단이 갖는 의미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서적 이질감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한 역사 복원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구축해야 한다.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가 원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2015-09-06)

## 이 나라가 바로 설려나

요즈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정부 방침에 대한 찬 반 논쟁이 폭력 시위로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인을 앞세우고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온 사회를 “이념 전쟁”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많은 이가 정치에 어떤 희망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인 것이 현실인데,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권,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종교계,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부추겨서 길거리에 나와 과격한 시위를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번 폭력시위로 파괴된 추정 손해 피해액이 3억8천만원이라고 하니 놀라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이렇게 폭력집회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가 사회의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화 역사 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와 역사학자 전문가들의 그 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청소년 교육에 달려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했다. 청소년은 민족의 싱싱한 묘목이요 미래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요 위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저수지인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정성껏 교육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일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이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핵심 문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를 비교하고 그 지도자의 자질을 대비시켜 북쪽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북이념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그런 교과서를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장 또는 위장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우여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12일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추고, 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서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역사에는 인간의 모든 발자취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넓고 깊은 학문적인 연구와 함께 그 성과의 보급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반만년의 우리 역사를 하나의 통일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은 너무나 방대하여 전문적인 역사학자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한국사학계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우리 역사의 실제 모습과 그 내용을 편향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미래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들이야말로 민족의 지난날을 더듬어 보고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가 등의 질문들을 끊임 없이 우리의 조상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한국 사회에 던져야 한다. 민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확한 역사를 만나고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민족의 고난과 영광을 철저하게 되새길 수 있으며 다가오는 세기에 이 땅에서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 자주적인 통일 민족 국가를 만드는 데 역사 주체로서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정치인과 종교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역사 교육을 이념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산업화된 근대 국가로 발전하여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이룬 이 자랑스러운 성취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게 역사 교육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은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단체도 특히 국민이 뽑은 국회위원회라는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서 길거리에 나와 부끄러운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가에 맡겨라. (2015-11-22)

##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미래 향한 이정표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냐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빛어지면서 중단됐다. 지난 2015년 11월 1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은 3국 관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3국은 아직도 과거 역사의 굴곡에서 비롯된 불신과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1세기의 국제관계 속에서는 어느 국가도 경쟁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경제,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역시 각각 별개로 추진돼 하나의 단일한 방향성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힘의 분포가 분산된 현재의 국제질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역사 문제 등 뿐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머리를 맞된 이후 3년 반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과 대립으로 얹혀 있던 동북아 지역이 과거의 질곡을 딛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얹매여 반목과 갈등으로 공존공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3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 평가된다.

56개 항목에 이르는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냉랭했던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정상화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3국 정상회담의 틀이 복원됐다고 해서 곧바로 세 나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고,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이 여전하다.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여 의견을 서로 나눈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과거사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단 역사와 영토 문제 등 어려운 문제는 접어두고 경제와 교류 등 상호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3국 협력 체제를 더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서울 청와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개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연 1회 개최로 정례화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 하기로 합의했으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영토 분쟁과 과거사 등 3국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고 정례화 약속이 또 언제 깨질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면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대하는 동북아의 경제, 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합해 동북아 모든 이들의 공동의 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경제적으로 공동 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핵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강국인 중국과 일본과 같이 경제협력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논의할 위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 및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동북아 평화 및 안정 도모에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산다는 것은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21 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계속하지만 역사의 번영무대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바뀔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은 동북아의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세 나라가 다음 세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21 세기를 통해서 한반도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행동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5-11-09)

##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다툼

현재 중국은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 내 유관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안보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를 향해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정 등을 통해 입지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70조 규모의 원전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현대화와 주요 글로벌 파워로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중국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지금 남중국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인공섬 건설에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밀어붙이기와 미국의 반격이 남중국 해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불안한 신호들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바다 아래 있는 암초를 매립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 이라며 “중국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건설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12해리 안까지 미 해군 정찰기와 함정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중국이 불도저로 남중국 해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향후 중국이 인공섬을 토대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 할 것이다” 라며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된 경제력을 통해 점차 현대화 하고 한층 더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넘은 주권 간섭을 한다며 일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인공섬 건설은 재난 대비와 어자원 확보, 군사적 안전 도모 등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며 완벽히 중국의 주권 범위안에 속한 일” 이라며 “미국의 태도는 지역 평화를 해치고 각 나라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7개 산호초 주변 바다를 매립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매립하는 암초와 산호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선택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의도는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실효 지배하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남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중국 하이난 성에서 1000km,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480km, 말레이시아에서는 550km 떨어진 요충지이며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인공섬의 길이는 3000m에 달하고 폭은 200-300m로 추정된다. 선박을 위한 항구와 비행장을 만들고 있는 인공섬들은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이 양국의 핵심 이익을 서로 존중하자며 중-미 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전형적인 갈등 사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뒤 해양강국을 역설하며 대만, 신장, 티베트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한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에 남중국해는 원유 수송의 핵심 바닷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는 시진핑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계획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해상 실크로드 계획)”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해상 두 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며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범중화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의 영향권에는 60개국 44억명의 인구가 포함된다. 이에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했는데, 그 첫번째 활동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도 남중국해다. 일본을 앞세워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견제하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중이 남중국해의 몇몇 작은 섬들의 갈등이 양국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공유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세계평화의 유지와 테러리즘 반대, 하나의 중국원칙, 대만의 분리 독립 반대, 북한 핵 폐기 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양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문제, 대만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양국은 현상유지를 택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 노력을 계속될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의 힘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경제력의 부상은 거의 예외 없이 군사 근대화 프로젝트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미국은 지역전략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5-10-30)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외교

지금 동아시아는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대한민국은 성취면에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 한가운데에 있다. 지구촌이 평평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가 다중심적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하다. 곧 우리는 지구촌 근대화의 마지막 단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근대화라는 시각은 각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사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을 점검하고 앞날을 바라보는 데 유용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판단과 다양한 국민 여론에 따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서방 여론에 한국의 중국경사론이 만만치 않고, 일본이 이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의 전례 없는 모험이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외교질서에 대한 관심이 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마치 일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새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비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적 균형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균형”이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등한 외교적 친밀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물리적 개념의 균형은 아니다. 대신 외교 전략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한국 처지에서 어떻게 그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또한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관계의 핵심 토대로 삼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해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점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어떠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지도 관심을 끌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을 유일한 동맹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구조의 중요성을 잘 아는 한국 처지에서 외교적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세계 중심권 국가의 하나가 됐고, 국가이익은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매우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얹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로만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와의 선린외교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적 특수성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분단된 5개 국가 (독일, 중국, 베트남, 예멘, 한국)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가안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해야만 국가안보도 유지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외교안보 목표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균형이라는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보면, 결국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동북아 역내질서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중-일 간 협력과 갈등 구조가 더욱 분명하게 공존할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소위 미국 중심의 인프라 (무역, 금융 등)를 자국 중심의 지역 인프라로 대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설립과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동북아 및 동남아 등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영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군사력을 동원할 해법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아시아 안보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 어느 하나 우리의 국가이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사안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이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한국의 국가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주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균형"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나 이론은 쉽게 들리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게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중국, 일본과 어느 시대보다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외교노선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대전제는 미-중 간 평화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등을 상호협력과 동북아의 안정으로 떠미는 한국의 역활이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은 피할 수 없고, 그 방향성 또한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처지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핵심 외교자산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G2로 알려진 미-중 시대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걸쳐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2015-10-31)

##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규탄한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은 한층 공격성이 증가되고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돼왔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북한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변화의 길을 거부하는 가운데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대결적 구도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놓고서 지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수소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지하에서 강행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규탄 받아 마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 민중에게 심각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유엔안보리는 이번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신뢰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이며,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실험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핵전면전쟁 능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이제껏 사용했던 방법도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데 아무런 긍정적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효가는커녕 오히려 북한에 원자폭탄을 수소폭탄으로 바꾸어 만들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줬다고 하는 게 맞겠다.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을 만든다는 거짓말로 우상숭배와 독재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에는 인권과 인민의 생활 향상은 뒷전이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면 민심은 떠나게 마련인데 이번 핵실험으로 자멸의 시간을 더 옥 앞당길 뿐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두고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이견을 드러내 입장 차가 커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과 달리 중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북한편을 들 수 밖에 없는 중국은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데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직무를 망각한 셈이된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남한으로 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사드(THAAD)와 같은 비대칭 무기가 한시도 지체없이 가동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검토 언급에 중국의 반대와 협박에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북핵 해결책은 한국의 핵 무장뿐이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자체 핵무장 대응 핵개발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조만간(2월중)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발표가 국제사회에 나왔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6-02-03)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미래

북한이 핵 국가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 또다시 기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에 먹구름을 만들었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와 전 세계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무모하고 기만적인 만행이다. 연초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과 2월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고 긴박해졌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김정은 정권과 체제 유지의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현 집권세력이 핵무기를 최대 업적으로 부각해 주민을 결속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그다음은 대남 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며 통치 체제를 초법적인 "수령 유일지배체제"이다. 평양의 호전적인 행동방식은 군사 강국을 외쳐대는 김정은 1인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핵도 미사일 개발도 포기시키지 못했고 북한은 회피와 어기기만 했다. 새로운 UN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제재가 포함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은 그 동안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으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고, 한국정부에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북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인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엇 PAC3,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드는 주한미군 배치라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미중의 동북아 패권 싸움과 이어진 전략카드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 미 일 3국 군사협력의 연결고리로서 중국 견제용 동맹 네트워크로 전환될 것이다. 사드가 북한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로서 중국과 한국은 불편한 사이가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는 북 중 러 안보협력 체제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 미 일 3국 세력과 북 중 러 3국 세력 간의 갈등구조가 서서히 재현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다양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신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남은 북을 변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현재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통일문제, 유라아시아 이니셔티브인 대륙행단 철도의 미래 비전의 희망이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의 상호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스럽게 보인다.

북한의 호전광들이 남한의 정부 주요 인물에 테러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이 시점에 정쟁에 휘말려 현재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이(?) 난국을 초래한 책임이 정치인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지혜를 모아 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가는데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정치적 과오를 솔직히 반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하리라 믿는다. 참회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일은 이 어찌 정치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 지금은 우리 온 국민들에게 진정한 나의 반성, 나의 참회, 나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민족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남북의 정치인들은 한반도는 우리들만 살다갈 땅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부끄러운 선조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남북의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한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2016-02-20)

## 방황하는 한반도

우리 사회가 왜 이리 거칠고, 과격해지는 걸까. 남한도, 북한도 아주 막가는 사회 같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 가는 걸까. 우리 모두 조용히 머리를 맞대 생각해 보자. 우리 민족성이 내가 제일이요, 최고이고 어떤 일에도 워낙 조급해 그렇다고들 한다.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할 것인지. 오늘날의 한반도의 현실이 19세기 말, 단명했던 대한제국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무렵의 사태가 오늘과 비슷하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북한은 70년이 넘도록 2천만이 넘는 그 많은 민중을 헐벗고 굶주리게 해놓고 계속 다스리기에도 힘에 겨운 일임에 틀림이 없고, 정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만든 핵무기만 끼고 하루가 멀다하고 남한을 향해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북한은 년초에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는 불꽃놀이, 군중대회 등 연일 축하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미사일과 대동포를 허공으로 쏘아되더니 지난 24일 고출력 고체 로켓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분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전시동원령을 발표하고 북한 전체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란 생각할수록 기막힌 것이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어쩌면 그렇게 도 악착같이 밟고 싶어 하는 것인가?

북한의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전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다. 북한의 지도자는 지금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면 북한정권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청와대 위협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대응하여 원점 타격으로 몇배의 보복을 하겠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호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차원에서 스텔스 폭격기와 현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 (Raptor)가 한반도 상공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날마다 더 악화되는 긴장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태평스러운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해외에서 볼땐 참으로 신기하다.

정치권은 어떤가. 요즘 고국의 정치판의 화두는 4월 총선후보의 '공천'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가 안보도 없고 민생도 없으며, 오직 어느 누가 총선 후보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의 끝에 공천을 얻은 자는 기쁨에 못이겨 춤을 추고, 그렇지 못한 자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잠기거나 아니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에게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고함지르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풍경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공천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어제의 제 패거리들 향하여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는 배신의 몸짓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정치판처럼 어지러운 유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내노라 하는 정치꾼들이 국민을 우롱하듯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 당 저 당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나들고 있으니 국민들이 구경만하기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야권이 갈라져 새로운 당이 생기고 여당이 공천문제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혼돈에 빠져 앞으로 완전한 정당으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어딜 향해 가는 것인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이 불가피하고 혼란과 무질서도 막을 길이 없어보인다. 이로 인하여 온국민들이 혼란한 정치판에 대하여 한탄하고 염려하는 일도 이대로 간다면 아마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지 못하고 부패한 정치꾼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다시는 죽는 날까지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는 일일 뿐이다. 오직 그 길만이 제 자신과 가정을 살리고 정치판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2016-03-26)

## 5 나의 기행문



## 여행의 기억

여행이란 일상으로부터의 떠남이고 일탈이요 탈출이다. 매일 반복되던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서 맞는 아침과 잠자리, 여행은 일종의 자학이며 슬픈 기쁨이다. 그것이 여행이라 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가. 여행은 우리의 견문의 세계를 넓히고 경험의 영역을 확대시킨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시선의 변화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여행 중에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색과 성찰의 기회가 되며 지나온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사실 너무 현실적인 생활의 고삐에 매여, 우리는 여행이 주는 감미롭고 신기한 분위기에 젖어들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새 바람을 쏘일 수 있다는 것은, 답답한 일상생활에는 통풍구를 트워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여유를 못 갖고 우리는 너무 현실생활의 노예 구실에 충실히 왔다고 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여행을 꿈꾸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행을 꿈꾸고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행 코스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여행기간, 예산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여행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몹시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여행지가 결정되면, 가고자 하는 곳을 대상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계획을 짠다.

늘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 보며, 내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나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는지, 나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자신에게 진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행이나 귀향을 통해 이와 같은 시간을 갖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 여행의 기억이란 두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발에 새겨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기억을 남긴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

습니다. 처음의 기억이 워낙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시간의 힘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기억이 점점 더 아름답게 가공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찾아갔을 때 대개는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다. 땅도 변해 있고 자신도 변해 있는데, 오로지 기억만이 변하지 않고 남아 옛날을 회상하는 것, 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특히 고국을 찾아갈 때마다 정든 데가 하나 둘 없어져 가고 해마다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게 아무리 발전이라는 거라 해도 그게 고향의 일이고 보면 어찌 쓸쓸한 일이 아니겠는가.

흘러가버리는 시간에 대한 슬픔, 여행의 진리는 바로 그것이다. 머리로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 한 번 거쳐간 땅, 그것도 특별히 아름다운 기억을 남긴 땅으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편이 좋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곳으로 자꾸 발길이 흐른다. 참 아름다운 친구의 기억이 발에 새겨져 있는 까닭에, 슬픔을 각오하고 발길이 그곳으로 흐른다. 첫사랑은 한 번뿐이듯, 헤어지는 일은 언제나 참 힘이 들었다. 이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첫사랑을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듯, 인생은 그렇다. 여행은 인생의 즐겁고 아름다운 음악이다. 인생을 젊게 만드는 것은 사랑과 여행이라는 프랑스 사람들의 말이다.

나는 많은 여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여행 중에는 언제나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바다를 건너며, 산과 오솔길을 걸으며, 차를 타며, 하늘을 날으면서 어느덧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존재의 의미이다. 여행은 나그네길이나 고달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귀중한 선물이다.

세월은 아주 넉넉히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세월이 사라진 그 허공에 무수한 그리움과 약속들이 날아다닌다. (2015-11-26)

## 상해 (Shanghai)의 어제와 오늘

지난 5월 11일 토요일, 주말 새벽 이웃집 사람들이 늦잠을 즐기는 시간인데도 급하게 잔디를 깎고 2주간의 중국 여행길에 올랐다. 토론토에서 상해 푸동 공항 까지 7540 마일, 14시간의 비행이었다. 이른 봄 상해에 처음 들어서던 날, 그 경 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많은 화물선들과 거대 도시의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경은 필자의 눈에 새로운 중국을 느끼게 했다. 중국은 날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 미국과 맞먹는 최강국의 하나가 되어 감을 이곳에 와보니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19세기에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상해는 강제 개항 이후 갑자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1930년대 100만으로 증가한 인구에 불과했으나 외국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인 진정한 국제 도시였다. 당시 세계를 휩쓸던 현대사상과 소비 도시의 비전은 중국의 열정과 만나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었다.

토론토보다 10배나 큰 도시 상해, 지금 인구 2천3백만의 거대 도시 상해는 세계가 놀라워 하는 미래도시다. 푸동 지구는 개방 중국을 대표하며 하늘을 훼뚫는 첨단 비즈니스 빌딩들을 쭉쭉 뽑아내고 대중문화의 중심지이자 극동의 가장 큰 상업도시가 되었다.

천지개벽, 약동하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해, 백만불짜리 야경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매혹시키는 상해의 화려함 뒤에는 근대 초 서구 열강의 조계지였던 혼돈의 역사와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열사들의 뜨거운 열도 함께 서려있다. 상해의 현재는 물론, 전통과 과거 그리고 미래 발전상까지 넘나드는 관광지이다. 우리들은 Wyndham Bund East Shanghai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14시간의 긴 비행과

시차 때문에 피로가 함께 몰려와 곧 잠이 들었다.

5월 13일 중국에서 첫 아침이 밝아온다 .

호텔에서 조반이 끝이나고 상해시의 중심인 인민광장에 자리한 상해박물관에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북경, 남경, 서안의 박물관과 더불어 중국 4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이 곳은 중국에서 현대적인 종합박물관으로 귀중한 전시물이 넘쳐 난다. 4층으로 된 전시관은 중국 고대 청동관, 도자기관, 역대 서예관과 회화관, 새인(옥새, 도장), 화폐관, 명청대 가구관, 소수민족 공예관 등으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상해 박물관은 1952년에 지어졌지만 이 곳 신관이 지어지고 정식 개관된 것은 1996년 말로 역시 지어진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인지 세련되고 깔끔하다. 그 많은 관람객 중에서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도 만날 수 있어 과연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해의 고대 거리를 구경하고 국제도시로 부상 중인 상해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다른 어디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고, 건물과 인테리어도 동양의 도시 같지 않은 이국적 매력을 풍기는 난징(Nanjing)거리에는 세계에서 몰려온 인파들로 붐비고 있었다.

한국사람이 상해를 찾는다면 꼭 들르지 않을 수 없는 관광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이다. 1919년 9월 11일 일본 제국의 침략과 한반도 강점을 부정하고 국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청사로 사용되던 곳이었다고 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곳,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처에서 한국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던 곳, 지금 제 안의 애국심과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상해 음식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름기가 많고 맛이 진한 특징을 풍기는 점심을 먹고 우리 일행은 황포 강(Huangpu River)의 유람선에 올랐다. 무역항 구 상해 시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황포 강이다. 강물은 맑은 빛깔이 아니라 황토색갈의 강물이 흐른다.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날라다니는 새와 오리,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다. 안내자에 의하면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새들이 떠났으리라는 설명이다.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상해의 하늘에는 초 고속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대기 오염의 산업가스가 뿐옇게 상해 시를 덮고 있다. 화물선박, 유람선, 석탄운반선박들의 왕래로 필자의 견해는 독일 라인강을 연상케 한다. 30도의 무더운 날씨에 유람선에는 인도인, 한국인, 중국인, 백인들이 뒤섞여 붐볐다.

황포 강을 끼고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상해의 개발은 지난 20년 전부터 현대와 미래의 고층 빌딩 숲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 상해를 만들고 있다. 미래 상해의

상징물, 동방의 빛나는 진주로 불리는 동방명주 전망대는 옥쟁반 위에 진주가 올려져 있는 모양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TV 송신탑인데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총 높이가 468 m로 아시아에서 첫번째,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탑이라고 한다.

상해의 중앙을 달리는 자기부상열차 431 km/hr 의 초고속으로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상해는 변하고 있다. 유람선을 통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개발을 볼수록 보이지 않는 중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견해 뿐이 아닐 것이다. 안내자에 의하면 황포강이 상해 시를 휘돌아 감고 흐르는 형상이 마치 용의 머리 모양이라고, 계속 들어서고 있는 고층 빌딩들과 상해 전망대가 용의 여의주라고 하며 지금 현재의 속도로 산업이 성장하면 용의 승천만 남았다고 한다. 이 거대 도시의 빠른 성장을 표현하는 무서운 말일 것이다. 초현대 미래 빌딩들의 그 호화로움이란 내 무딘 필치로는 도저히 다 그려 낼 수가 없다.

상해는 밤의 도시라고 해도 될 만큼 야경이 아름답다. 난징동루, 와이탄의 해안 산책로, 황포강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와이탄과 푸동지구, 서구적인 낭만이 물씬 풍겨나는 신티안디 거리의 야경은 유명하다. 저녁 식사와 함께 이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쇼, 스토리가 있는 극을 만들어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 준다. 생동감 넘치는 무대에서 그들 고유 의상의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마지막 무대를 보여주었다. (2013 . 5 .31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만리장성과 진주 목걸이

5월 23일 아침 만리장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도로변에 이렇게 많은 장미가 피었느냐고 안내양에게 물었더니, 장미가 아니라 월계화라고 했다. 지금 북경의 도로에는 풍화월계화가 베이징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장미의 일종인 월계화는 현재 북경시의 시화로 지정된 꽃이며 영어로 The Chinese Rose 라고 한다. 영문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의 장미이다. 월계화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상록관목으로 꽃은 5월부터 가을 늦게까지 계속 피고 지며 홍자색 또는 연분홍색이다. 또한 겹꽃도 있으며 미풍이 불고나면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마비시킨다. 길 옆에 매혹적인 꽃잎이 피어났을 때, 그 위로 작은 빗물 방울이 떨어진 모습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월계화는 향기가 좋아 화장품 원료로 쓰기도 하고 열매는 약재로도 쓰인다고 한다. 동시에 도시를 가꾸어 북경을 방문한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



2시간이 걸려 팔달령 만리장성 언덕에 도착했다. 중국의 만리장성 (The Great Wall of China)은 2천 여 년 전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진나라 시황제 때 북쪽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명나라 때 몽골

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옛 과거에는 타국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산성이 현재는 타국을 불러들이는 중요 관광지가 되었다. 2010년 첫번째 왔을 때는 캐이블 카를 타고 올랐으나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들은 수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는 팔달령 장성에 걸어서 올랐다. 높은 산성에서 몸을 굽혀 아래를 내려다 보면 지세가 매우 험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달령장성은 북경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진시황 때 군사 요새로 조성한 곳이라고 한다. 수도를 호위하는 문이라 할 수 있다. 계곡에 있는 관

문을 기점으로 동서로 솟은 산등성이를 따라 건설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른 만리장성보다 구간이 짧아 비교적 쉽게 둘러 볼 수 있다.

북경여행의 하이라이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으로 지도상 연장 길이 2700km이며, 중간에 갈라져 나온 지선들까지 합치면 총 길이가 약 6000km라고 한다. 보통 만리장성하면 진시황제를 떠올리지만 사실 만리장성은 그보다 훨씬 전인 춘추시대 (BC770–BC443)부터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들 성벽을 연결하고 증축했다. 만리로 뻗어있는 만리장성의 주요 성벽은 대부분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으며, 끝없이 굽이굽이 펼쳐진 산등성이를 따라 만리장성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꼽힌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군사적 방어가 절실한 시기에 가장 중요시 되었다. 중국 선조들의 피와땀, 그리고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중화민족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만리장성은 높은 관광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5월이 가져오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윽한 꽃향기와 신록이 토해 내는 청량한 공기에 매료되어 정신없이 높은 곳으로 걸어 올랐다.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지난 역사를 떠올려 보면 마치 옛 전쟁터의 용맹하고 위풍당당한 군대가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화민족 고대문화의 커다란 역사이자 지혜의 결정체로 남아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정신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성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돌 계단에는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또는 기념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만리장성 관광이 끝나고 계곡을 내려오면서 안내양은 오늘 점심은 진주박물관에서 거창하게 한단다. 여행을 하다보면 안내원들은 선물센터나 한방원 등을 소개하며 물건을 구매하기를 유혹하는데 이번 여행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때부터 아내는 몇년 전에 큰 아들이 싸준 진주 목걸이가 마음에 안 든다니 혹시 가짜일지도 모른다니 불평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나는 침묵으로 오늘 큰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잠자코 있었다. 하필이면 왜 진주박물관에서 점심을 한다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가 부인과 함께 캐나다 여행중 우리집에 일주일간 머무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의 부인은 거액을 지불하고 진주 목걸이를 세개나 싸간 일이 있다.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으나 나의 아내는 보석에는 그렇게 극성스럽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 또한 시골 출신이라 목걸이나 귀금속에 관한 사치품에 상식이 부족한 사람인자라 우리집에서는 보석을 위한 돈의 낭비는 적다. 여성은 화려한 장식의 도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때가 더 아름답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즉 손과 목에 끼고 걸치는 보석이 아니고 마음에 끼는 보석을 지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캐나다를 떠나기전 중국을 여행한 친구들의 충고는 이구동성으로 중국물건은 거의가 가짜이니 쇼핑을 하지말라는 것이었다. 아내는 절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싸지 않겠다던 2주 전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함께 동행한 여성분들과 어울려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목에 걸어보고 하는데 그 중 몇분은 완두콩알보다 큰 진주목걸이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소시민들의 일년 봉급에 가까운 거액이 아닌가. 아내의 눈치를 보니 그냥 물러날 것 같이 않아 이럴때는 우선 선제공격을 써야 해결이 되는 법이다. 완두콩알보다 큰것을 하나 고르라고 했다. 아내가 가격을 물어보더니 놀라나자빠질 뻔 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나는 혼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내는 콩알만한 작은 것으로, 가격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 골라왔다. 아내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진주박물관을 빠져 나왔다.

저녁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북경오리 음식인데 원나라 시대부터 전해내려 온 북경의 전통 요리라고 선전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비싼 값을 치른 진주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은 입맛이 썩 가 버렸다.

(2013.08.23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양자강(Yangtze River)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1)

(중국기행 5) 양자강과 삼협댐

양자강 (장강 또는 양쯔강)은 중국 대륙 중앙부를 흐르는 강이다. 대륙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양자강은 쓰촨성(사천성)의 중경에서 큰 줄기를 이루어 흐르다가, 대륙의 핏줄같은 작은 강물이 우한에서 모두 합하여 굵은 강줄기로 변하여 구불구불 대륙에 황룡이 기어가듯 도도한 황토물을 상해 앞바다에 쏟아낸다. 그래서 하구 지역은 델타 삼각주를 이루며 넓은 바다도 온통 황토빛갈이다. 양자강 유역은 한때 고대 중국 문화가 화려하게 꽂피었던 곳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자, 나일강과 아마존강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기도 하다. 강을 따라 청두, 중경, 우한 등의 중요 공업도시, 난징, 상해 등의 상업도시를 포함한 중국의 19개의 성(시, 자치구)이 있고, 전 유역의 인구는 4억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옛부터 수상 교역이 번성했던 중심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상류는 진샤강으로 불리며, 하류는 양쯔 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양자강 남해안은 벼농사 지대로 강남이라고 불렸고, 특히 하구의 동해안 지역은 강동이라 불렸다. 양자강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 있는 쿠룬산맥에서 발원하여 티벳 고원을 남

동쪽으로 가로지르는데, 길고 좁아 매우 험준한 협곡을 형성한다. 상류의 1600km 구간은 1km에 해발고도가 평균 2m씩 낮아져 강물의 속도가 빠른 편이다. 쓰촨성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삼협에 이른다. 삼협에서는 험한 습곡 산맥을 관통해 흐르고 있다. 강 양쪽으로 우뚝 솟은 높은 산은 안개와 구름에 자욱하게 둘러싸여 산수화와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 삼협은 약 90km의 구간으로 폭은 180m 를 넘지 않으며 강 양쪽으로 350—600m 높이의 바위로 된 수직절벽이 놓여있다. 이 지점에서 강의 수심은 최대 150m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으로 기록된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 댐인 삼협댐(싼샤댐)이 건설되었다.

협곡을 빠져 나오면 여기저기 호수가 흘어져 있는 평야지대가 나타나고 강폭은 넓어진다. 하류 구간에서는 강의 수위가 주변 평야보다 높은 곳이 많은데 자연제방과 인공제방으로 인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양자강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논농사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한편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강 수위가 제방을 넘어 대규모 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류의 남쪽에 상해가 자리잡고 있으며 총 길이가 6418km나 된다. 북쪽의 황하가 수량이 부족하고 물이 오염되어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양자강은 깨끗하여 식수로 쓰이며 수량이 풍부하여 상해에서 중경 등 서부로 물자를 운송하는 수상 교통으로 이용되는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다. 상해에서 의창까지 1700km를 버스와 비행기로 온 것이다. 의창에서 중경까지 660km 양자강의 유람이 시작되었다. 양자강 삼협을 배로 왕복하는 크루즈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로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우리들이 탄 유람선은 230명이 승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양자강의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중국대륙을 보는 것이다.

5월 17일 새벽 크루즈 선상에서 중국인이 가르치는 운동 Tai Chi 연습장에서 토론토에서 산행을 같이 하는 이승희 씨 부부를 만나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홍콩이었으므로 우리들은 중경까지 크루즈 여행을 같이 했다.



상해에서 본 양자강은 황토물이었다고 하면 이곳 의창의 강물은 너무나 맑고 푸른 빛이다. 유람선을 타고 올라 가면서, 명승지에 내려 고대 문화유적에 빠져 구경도 하고, 배는 명승지에 도착하면 몇 시간씩 자유시간을 주고 사람들이 다시 타면 출발한다.

호북성 의창에서 중경까지의 좁은 계곡의 경치가 멋있고, 그 주변에는 옛날 삼국시대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유적들이 있어서 관광명승지로 꽉꽉을 받고 있다. 유비가 관우, 장비의 목숨을 갚기 위해 오나라와 결전을 치뤘던 전쟁터 의창을 출발 첫번째 선택관광으로 삼협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밀림지역인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삼협곡을 “양자강의 밝은 진주”라고 부르고 있다. 삼협(싼샤)은 세 개의 좁은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유람선 선장의 추천으로 일인당 미화 45불을 지불하고 동행했다.

밝은 진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고대 중국 문화인 Ba, Chu, Jujia 소수민족의 사는

모습과 풍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계곡의 입구에서부터 부족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데, 양자강에서 잡은 생선을 튀기고 굽는 냄새는 우리들의 미각을 한층 북돋아 주었다. 그들이 여행자들에게 보여주는 고기잡이 배와 그들의 풍습과 전통, 그리고 전통혼례 장면인 결혼식 광경은 우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다. 협곡으로 올라갈수록 양쪽으로 기암절벽이고 밀림지대가 시작되는데,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바위와 나무들, 때묻지 않은 비경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밀림계곡으로 올라 갈수록 환상적인 원시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풍광에 반해 나는 그 좋은 숲과 물, 밀림계곡에 마냥 머물고 싶었다.

두번째 관광지는 삼협댐이다. 선착장에 유람선이 도착하고 여행자들은 여기서 내려 버스를 타고 댐과 주위 관광지역을 구경한다. 이곳에는 5개의 계단식 아파트 건물처럼 생긴 것이 배를 지나가게 하는 5단식 갑문이 있다. 수로 2개가 있어서 상행 선박과 하행 선박이 동시에 갑문을 이용한다. 이 갑문을 넘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삼협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고기잡는 작은 어촌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가 된 댐이다. 만리장성 이후 2300여 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대의 역사라 할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높이 48m, 폭이 900m로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삼협댐에 비하면 조족지혈 (새발의 피)이라고 한다.

양자강의 삼협댐은 길이 2335m, 높이 101m, 넓이 115m로 2011년에 완성된 32개의 발전기는 22500 MW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한다. 이 역사적인 수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홍수조절과 선박운행을 활성화 시켰으며, 사회 경제적 성공과 대기 오염가스 방출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3-06-28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2)

(중국기행 6). 삼협댐에서 우산으로

5월 18일 우산(Wushan)이 가까워 오면서 여명이 밝아온다. 우산은 댐 건설로 잠기는 수몰지구의 고민을 보여주는 곳이며 또 다른 불청객은 지독한 안개와 높은 습도, 변화무쌍한 날씨다. 안개에 가려 양자강 양쪽의 험준한 산들이 묻혀 있다. 강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고 화물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마치 시집가는 새색 시처럼 운무에 가려 산 꼭대기(정상)들은 좀처럼 자태를 들어내지 않고 있다. 깊은 계곡의 연속이고 작은 지류의 강물이 양자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삼협댐이 완공되기 전에는 양자강에서 가장 험난했던 물길이 바로 구당협(취탕샤), 무협(우샤), 서릉협(시링샤)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협곡 양쪽으로 전개되는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힌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할만큼 아름다운 절경인 삼협은 의창에서 백제성에 이르는 192km 구간이다. 우산은 삼협 가운데 중간인 우샤의 상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깎아지른 협곡 사이로 펼쳐진 양자강 줄기는 이백과 두보, 소동파 등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지어 찬양했고, 1700년 전엔 유비, 장비, 관우가 천하를 도모했던 삼국지의 무대였다고 한다.

옛 사람들의 숨결이 남아 있는 촉의 땅이요, 유비가 통치하던 촉한이 있던 땅으로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러 멀리 이곳까지 온 것이다. 위와 오와 촉이 팽팽하게 대결하던 삼국시대, 유비와 제갈량이, 조조와 손권이 있었던 그 시대. 천여 년 후, 그 땅을 밟으려고 하니 벽차오르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산시는 인구 60만명에 석탄광산이 주요 산업이며 소삼협을 옆에 두고 있어 관광산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조반이 끝나고 작은 배로 바꾸어 타고 양자강의 지류인 좁고 휘몰아 돌아 흐르는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빛나는 진주와 같은 소삼협(The Lesser three Gorges), 양자강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며 강 양옆으로 인상적인 높은 절벽과 숲은 보는 이를 황홀하게 한다. 소삼협은 용문협(Dragon-gate Gorge), 파무협(Misty Gorge), 그리고 적취협 (Dicui Emerald Gorge) 이 세 계곡을 일컬는데, 160 헥타르의 숲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강 양쪽으로 날카로운 절벽과 높은 산으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어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곳은 따닝허라는 양자강의 지류인데 협곡이 매우 좁고, 경치가 삼협보다 아름다워서 "소삼협"이라고 부른다.

소삼협곡의 상부는 강이 너무 좁아 더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가는데 배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주변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계곡을 올라갈수록 수려한 봉우리들이 연달아 나타나고 구름은 봉우리를 감싸고 돌고, 봉우리는 구름속에 감쳤다가는 나타나곤 하는데 진짜로 그 모양이 천태만상이다.

사람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높은 바위절벽 곳곳에 인공적인 동굴이 뚫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네 무덤과 같은 곳으로 이 지역에 살던 소수민족들의 장례관습인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관에 넣은 뒤 줄에 묶어 동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 일종의 풍장인 셈이다. 동굴 아래에는 아주 좁은 길이 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유명한 잔도의 흔적이다. 영혼이 하늘과 가까이 있어야 쉽게 승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른 장례풍속이 있지만 상당히 특이한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산뜻한 마음으로 활개쳐 가며 계곡으로 들어서는 작은 배에는 어느 새 산의 향기가 서리서리 풍긴다. 고요하기 태고 같은 이 풍경 속에서 잠시나마 악착스러운 인간 생활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안에 안겨 본다는 것은, 항상 오만한 인간 생활의 순화를 위하여 얼마나 긴요한 일일까. 하늘을 쳐다 보니 계곡 양쪽의 산과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에 우쭐우쭐 들어선다. 하늘빛보다 더 푸른 물빛이 흘러 가는 것을 즐기며, 좁은 계곡을 들어서니 문득 절벽에 나타나는 야생 산양들과 원숭이 무리들이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사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동경하는 선경의 모습이 아닐까. 그 속에 평화롭게 어울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심산유곡에는 신선들만 사는 곳이지 우리 같은 범부에게는 너무 호사스러운 곳으로 감히 근접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고산 준령 사이를 흘러 내려오는 강물은 얼마나 맑은지 옥색 물빛에서 풍겨오는 처음 느껴보는 물냄새는 코를 자극하고 있다.

양자강 크루즈는 봉절현에 도착한다. 소삼협(취탕샤) 옆 산인 백제산 기슭에 백제성이 있는데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고 양자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양자강에서 바라다 본 백제성은 구름과 물 사이에 떠 있는 형국이다.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곳이 바로 이 백제성이다. 양자강 삼협 중 구당협의 입구에 있는 유명한 명승고적이다. 황제의 상징인 백룡이 출현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촉과 파를 정벌한 군벌 공손술은 하늘이 돋는다고 여겨 일찍이 이 지역에 성을 쌓고 백제성으로 부른 것이 그 유래이다. 삼국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는 촉한의 건국자 유비가 의릉 전투에서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주한 곳이 백제성인데, 유비가 전쟁의 실패로 핫병을 얻어 유명을 달리 할 때 제갈공명에게 두 아들과 나라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던 곳이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백제묘라 새겨놓은 사당에는 유비가 제갈량에게 아들을 부탁하는 장면을 연출한 조각상들이 놓인 탁고당이 있다. 권력보다 의기를 소중히 했던 유비와 제갈공명의 숨결이 담긴 백제성의 진면목은, 제갈공명에게 권력을 부여한 유비, 그런데도 유비의 아들에게 대를 이어 충성한 제갈공명, 그런 권력 이동은 불안한 오솔길이면서도 당시로서는 대도가 아니었을까. 전쟁으로 나라를 망쳐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그의 고행도 천여 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겁으로 보면 천년도 짧은 세월 (잠시동안)이었던가! 고작 칠십 생애에 희노애락을 싣고 다투다가 한옹큼 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서글프고 산란하다. 이곳에는 유비, 제갈량, 황충, 마초, 조문, 장비, 관우의 사당이 있다.

당조시기 역대의 유명한 시인들인 이태백, 두보, 백거의, 육유 등 유명한 시인들은 이곳에서 주옥같은 많은 시들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백제성을 일명 "시의 도시"라고도 한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양자강변의 위대한 자연과 그 자연을 무대로 이어지는 절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3-07-05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3)

(중국기행 7) 봉절, 석보채

아름다운 지질경관을 보여주는 봉절은 중경시 봉절현에 속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만든 위대한 작품이다. 땅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굴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가느다란 틈이 생겨 자연의 기묘함을 보여준다. 삼협댐 건설로 인해 낮은 여러 지역이 수몰되었으나 양자강에 비해 해발이

천여 미터나 높아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천길 절벽위의 소나무 그리고 바위산 위의 정자와 누각, 구름이 걸쳐 있는 높은 산과 기암괴석, 그리고 그곳을 흐르는 강, 굽이굽이 산 꼴짜기의 조그만 오두막집과 그곳에서 밭을 가는 농부, 인적 없는 강에서 일엽편주에 낚시를 하는 등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닌가 싶다. 봉절의 지형은 천개지붕, "하늘이 만든 구멍과 땅틈"으로 불리우는 두 명소는 서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흥룽진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이곳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무더운 삼복철이라 해도 시원함을 유지해 피서의 좋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고산지대라 기후는 변덕이 아주 심해서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가도 어느새 구름이 밀려와 소나기가 쏟아지는가 하면 주먹같은 우박이 쏟아질 때도 적지 않다. 시원한 기후와 변덕많은 날씨에 나지막한 산봉들에 둘러싸인 흥룽은 길지 않은 도로와 도시를 훌러 지나는 강물에 의해 자연스러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봉절을 지나온 크루즈 선은 5월 19일 (2013) 아침 7시에 석보채(Shibaozhai Pagoda)에 정박했다. 석보채에 도착하니 우리들이 탄 배는 부두에 바로 접안하지 못하고, 다른 배 옆에 붙어 있었다.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우리들은 다른 크루

즈 선을 통과하여 물에 올랐다. 석보채로 올라가는 언덕 길 인근 마을은 고층 아파트와 상점들이 즐비했고 차들도 많이 다녔다. 거리에는 구걸하는 걸인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상품들이 여행자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안내양을 따라 한참을 걸은 우리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현수교 위를 지났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나무로 바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리는 꽤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석보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흔들다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곳이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 본 강변은 매우 평화로웠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소년들이 벌거벗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여인들이 빨래 방망이를 들고 빨래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니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중국의 현실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양자강 삼협의 진주라 불리는 곳, 석보채가 있는 산을 옥인산이라고 부르는데 옥인산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석보는 태초에 인류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 속의 여신이 하늘의 갈라진 틈새를 메우고 남은 “오색의 돌” 이란 뜻이며, 이 바위산은 오채석이라는 독특한 무늬가 있는 돌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예로부터 석보라 불렀고, 마치 옥으로 만든 도장과 같다고 하여 옥인산이라 불렀다. 이곳은 역사적인 요쇄지역으로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농민봉기의 요쇄로 사용되면서 석보채란 이름이 붙여졌다 고 한다.

이곳은 양자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청나라 강희제 때 (청조시기 1796-1820년) 옥인산 절벽에 건설된 절벽사원, 깎아지른 절벽에 세워진 사원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사원 정상에서 바라보는 양자강의 모습이 일품이다. 절벽산 정상에 오르니 선경이 또한 우리들을 기다린다. 훤히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물줄기가 구비구비 골 안개에 싸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강이다. 이 협곡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비치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도 선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천성 충현에 위치하고 있는 석보채는 단 하나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56m의 돌산 위에 세워진 12층의 고층 옥탑(전당)이기 때문에 중국 8대 불가사의 건물 중 하나라고 한다.

사찰 뒤에는 조그마한 돌구멍이 있는데 그 돌구멍을 “유미동”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 돌구멍에서 매일 쌀이 얼마정도 흘러나왔는데 이곳 스님들의 매일 식량으

로 쓰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스님 한 분이 욕심으로 그 구멍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쌀은 안 나오고 스님은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곳 절벽사원에는 충현이 배출한 삼국시대 (220 -265 AD) 때 영웅으로서 유명했던 장군 관우(Guan Yu)의 사당이 있으며 충절의 상징인 감녕, 엄안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며 그들의 초상화가 우리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석보채는 축구장 두 개 정도의 넓이를 가진 작은 섬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맑고 푸르던 강물이 지난 밤에 내린 비로 이 넓은 양자강이 황토 빛깔로 변해 흐르고 있다. 그 흐린 강물에서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4)

(중국기행 8) 풍도, 중경

크루즈선 Century Diamond 호는 양자강의 협곡을 누비며 중국의 서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석보채를 떠난 배는 귀신들이 사는 성으로 알려진 풍도로 가고 있다. 풍도는 동주 때부터 있던 고성으로 한나라 때 음장생과 왕방평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도를 깨우쳐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음왕”이라고 한 것이 “지옥의”으로 해석되어 귀성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 귀신들이 총 집합해 있다는 귀신성, 명산 정상에 위치한 풍도귀성에는 불교와 도교 사원들이 모여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죽음을 맞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한다. 저승 또는 중국신곡의 고향이라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저승의 건축물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서 숨진 후 모든 영혼이 모인다는 풍도귀성은 산위 고지대에 있어서 그 위치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고, 그 아래 있던 풍도시는 양자강 삼협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되어 강 건너편 고지대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옮겨 갔다고 한다. 삼협댐 건설에 따른 수몰 지역 이주민이 65만 명이나 된다니 정말 놀라운 숫자다. 도교 명산의 하나로 귀신성에는 유교, 도교, 불교 문화가 어우러져 민간 문화예술의 보고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안내양의 설명이다.

풍도를 지나고 크루즈 종착지인 중경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크루즈 선에는 선장의 환송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승객들이 많지 않아 조촐한 분위기에서 파티가 이루어졌다. 다과와 샴페인이 계속 제공되었고 관광객들과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저 끼리 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저녁식사 후에는 다시 양ズ클럽에서 가무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쇼가 진행되었다. 크루즈선의 승무원들인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쇼였지만 그네들의 미모와 재치로 관광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전혀 지루하지 않게 진행되었고, 관광객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번 크루즈 선에는 여러나라 민족들이 함께 여행을 했는데 각 단체들의 특기나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었다. 캐나다에서 온 우리 한인동포 28명은 서기문형제를 단장으로 하여 아리랑에 한국 고전무용을 추었고, 그리고 그의 기발한 아

이디어로 뱃노래 “여기영차 뱃노래 가잔다, 언니는 좋겠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를 불러 1등의 명예와 샴페인의 상을 받는 행운이 따랐다.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단 한번의 선상 연습으로 서기문 형제의 빠들어진 모자에,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배 젓는 몸짓에 맞쳐서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과연 못말리는 한인들이다. 그렇게 양자강에서의 밤은 깊어만 갔다.

5월 20일 이른 새벽 양자강 크루즈 종착지인 중경(충칭)에 도착했다. 상해에서 중경까지 2360km를 버스, 비행기와 크루즈선으로 온 것이다. 사천성의 동남부, 양자강과 가릉강 사이의 반도형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3천년 역사의 고도 중경은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이며 인구는 3200 만명이 넘어서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캐나다 전체 인구 3300만명에 비하면 일개의 도시 인구로는 놀라운 숫자라 하겠다. 중경은 원래 사천성에 속했으나 1997년 중국의 네 번째 직활시로 독립하여 서부 제1의 도시로 유명하다. 상해 항구로 들어온 물류가 양자강을 타고 배로 중경시 까지 올라와서 하역되어 트럭, 기차로 서부지역으로 보내진다.

역사가 오래되고 고대 파국의 도읍지였던 중경은 교외에 자연 풍경지와 역사적 명소가 매우 많다. 또한 삼협과 수상운수선의 시발점이며 수많은 유람선의 시발 및 종착 항구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여름에는 최고 온도가 43,8도C 까지 올라 가지만 사계절이 분명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과 비지니스맨들이 찾는 곳이다.

상해에서 서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음식물이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맵고, 사람들의 키도 크게 보인다. 2차 세계대전시에는 일본 비행기의 폭격은 있었으나 점령당하지 않았다고 하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였으며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양자강을 따라 곳곳에 펼쳐져 있는 산과 물의 조화와 비경 그리고 유적지, 중국이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자손들 석상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에는 사천성에 오는 길이 산세의 혐난함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한다. 그곳을 찾아온 것이다. 두보도 가고 육유도 지나가고 당 현종도 가고 수많은 시인 묵객들과 못사람들이 사천땅을 넘나들었는데 아무리 혐난하기로 이름난 곳이라도 찾아온 것이다. 이곳에는 이백의 영혼이 우리들을 환영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술이 있고 거나한 눈으로 붓을 잡고 필생의 걸작을 단숨에 휘갈기고, 물에 뜯 달을 건지려다 물에 빠졌다라는 이백

이 아닌가. 그는 별처럼 쏟아지는 영감을 안고 물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을 것이다. 삼국지를 읽으며 상상만 했던 유비, 관우, 제갈공명, 장비, 조자룡 등의 지나간 발자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세계에서 3번째로 긴 강으로 웅장하고 수려한 협곡을 따라 한 시대의 역사를 장식했던 위, 촉, 오 삼국의 영웅호걸들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뜻깊은 양자강 크루즈 여행이었다.

## 베트남 ( VIETNAM )

수도 : 하노이, 사회주의 공화국. 언어 : 베트남어

민족 : 키품 (베트남인) 인구 : 8878만 (2012)

종교 : 불교, 기독교. 기후 : 아열대성(북부), 열대성(남부)

아오자이(베트남 민속의상)와 쌀국수가 유명한 나라 베트남은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한국 여행사의 광고를 보면 매일같이 베트남 하롱베이라는 곳을 최고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지난 11월1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바람속에 묻어 있는 더운 습기가 몸 전체에 감겨 들었던 늦은 밤 5시간의 비행끝에 수도 하노이에 도착했다.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가는 길은 시골길 같으나 도로 사정은 다르다. 좁은 도로를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대형 버스와 트럭, 자동차 등이 뒤섞여 사이좋게 나아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에 연해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베트남은 1800년 초반대부터 이루어진 70년의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때의 항일투쟁, 그 이후 세워진 독립국가로서의 베트남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의 명분없는 전쟁과 디엔 비엔 푸의 패배로 물러난 프랑스의 주장으로 분단되는 베트남의 비극, 그리고 분단된 남베트남의 부패정부와 미국의 개입, 그 이후에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한 하노이 북쪽의 개시, 그렇게 시작된 월남전과 월남패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의 피상적인 모습이며, 일련의 사건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총체적인 결과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안내자에 의하면 베트남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여서 발전 잠재력이 무척 큰 나라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쌀, 고무, 석탄, 커피 등의 생산량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다른 지하자원도 풍부하여 발전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작년에도 15%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한다.

늦은 밤에 하롱베이에 도착하여 바다를 바라보니 검은 형체의 섬들만이 아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보이는 하롱베이는 안개에 묻혀

운해로 보였다. 베트남 하롱베이의 새벽은 몽환적이다.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니 안개 속에서 서서히 그림같은 모습을 들어내는 섬들, 열도 사이로 해가 솟고, 고깔모자 “농”을 쓴 아낙네의 나룻배가 숨죽인 바다를 가로지르는 하롱베이의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크고 작은 섬들은 돌섬들인데 숲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무인도가 대부분이었다. 호수같은 바다 하롱베이에는 섬이 많아 파도가 전혀 없었다.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자연의 손으로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는 3천여 개의 환상적인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풍광의 아름다움은 세계 8대 경으로 꼽힌다고 한다.

이곳은 영화 “인도차이나” 와 로빈 윌리엄스의 “굿모닝 베트남” 의 배경이기도하여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풍경이기도 하며 1994년 유네스코가 보존해야할 인류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베트남 여행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롱베이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베트남 북부지방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하롱베이의 의미는 하늘에서 용이 바다로 내려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며 전설에 따르면 한무리의 용들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고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뱉은 보석들이 섬이 되었다고 한다. 수천개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하ロン베이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동식물

이 서식하므로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

선착장을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나룻배들이 연신 다가온다. 이들은 바나나, 레몬, 망고 같은 열대성 과일과 바다 게, 물고기, 해삼 등 각종 해산물을 파는 배들이다. 하롱베이 주민들과 이방인과의

만남은 새벽녘 뜻밖의 소통으로 채워지고 감동도 달리한다. 이들은 대부분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수상족인데 생계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팔려는 것이다. 유람선이 계속 나아가자 기기묘묘한 섬들이 나타나고, 마치 첨첩산중에서 골짜기를 지나는 느낌이다. 단단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는가 하면 깍아지른 듯한 모습이 보기에도 아찔한 느낌의 섬들도 많다. 하롱베이의 섬 중에는 석회암 동굴이 있는 곳도 있다. 동굴 입구는 좁지만 내부는 상당히 크며 큼직한 석순들이



기묘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조명을 받아 한결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곳도 적지 않다. 티톱 섬의 좁은 모래사장에는 수영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주변 하롱베이의 섬들이 한 눈에 잘 들어온다. 독특한 자연 미관과 동식물의 좋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약 3천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과 희귀한 석회암 바위들의 기암괴석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신비스런 느낌을 준다. 오늘도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상족의 끈끈한 삶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롱베이다. 섬과 섬 사이에는 수상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수상마을 주민들은 낚시를 하거나 굴양식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섬들 사이 수상가옥을 나룻배로 만나는 것은 달콤한 하롱베이 유람의 백미다. 거친 엔진 소리 대신 삐걱거리는 노젓는 소리가 정적을 깨운다. 고깔모자인 "농"을 쓴 뱃사공들의 미소가 눈가에 어린다.

육지로 돌아와 여행스케줄에 따라 처음으로 베트남 맛사지를 체험하고 베트남의 해학과 삶이 녹아있는 수상인형극을 보러갔다. 11세기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민간 전통예술로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수중극이다. 델타 홍강의 평야지대에 기원을 둔 농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한다. 풍년의 즐거움을 묘사하듯 악기를 연주하며 한바탕 잔치를 벌리는 이들 인형은 무대 뒤에서 물 속에 설치한 대나무와 실을 이용해 조종된다. 마지막으로 야시장을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른 아침 하노이로 돌아오는 길은 넓은 들판이 길게 펼쳐진다. 베트남은 지역 특정상 고도 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대부분 논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홍강을 낀 삼각주 델타 지대로 비옥한 평야가 많아 선사시

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하노이를 기점으로 남부는 1년에 3모작이 가능하고 북부지역은 2모작을 한다고 하니 잠시도 손을 놀릴 시간이 없을 듯하다. 하롱베이에서 하노이까지 버스로 3시간 반이 걸렸다. 하노이에 도착하자 한기동 사원, 바딘광장(호치민 묘 앞광장), 호안키엠 호수 등 시내관광이 시작되었다.

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트남의 문화 중심지로 알려진 이 변화한 현대적인 수도 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 옛거리의 골목길과 식민지풍 건축 양식으로 그 매력을 보존하고 있다. 하노이에 들어서니 전연 별천지처럼 소음과 인파로 시끄럽게 봄볐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2륜오토바이에 편승하여 시내관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 650만이 넘는 하노이 거리에는 수많은 오토바이와 군데군데 끼어있는 자동차가 쉴새 없이 놀려대는 경적소리로 인한 소음이 매우 심각하며, 교통 신호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이곳 거리는 한 마디로 무질서 하다. 어떻게 보면 많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지만 서로 조심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는 적다고 한다.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어여쁜 여성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얼굴이 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건으로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구경거리로 기억에 남는다. (2013-11-29 부동산캐나다)

## 캄보디아 ( KINGDOM OF CAMBODIA )

수도 : 프놈펜                      언어 : 크메르어, 불어, 영어  
민족 : 크메르족 90% 베트남계 5% 중국계 1% 기타 4%  
종교 : 소승불교 95%              인구 : 1468만(2013년 기준)      기후 : 고온다습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입헌군주국이다. 크메르 제국의 유적지인 앙코르 왓과 앙코르 톰 등으로 유명하다. 북서쪽으로 태국, 동북쪽으로 라오스, 동남쪽으로는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다. 타이만을 따라서 443km의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다. 동남아시아 최강의 문화를 꽂피웠던 크메르 왕조의 역사가 깃든 캄보디아는 아픈 근대역사를 지닌 체, “앙코르 제국”의 부활을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도시 주거는 농업에 의존해 있고, 그 관련 하부 구역도 마찬가지다. 벼농사, 어업, 목재, 의류, 고무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 번 놀란다고 한다. 유적지가 앙코르 왓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앙코르 유적군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점,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 대다수가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 - 400달

러 수준이다.

9-15세기에 번성했던 앙코르 왕조 때 캄보디아는 지금 베트남에 속한 넓은 땅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에 앙코르 왕조가 몰락하면서 태국과 베트남 두 나라에 많은 땅을 빼았겼다고 한다. 그런 역사적 배경 아래 상당수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에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전쟁은 인류사에 대량학살 또는 인종청소라는 끔직한 현상을 낳았다. 동남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가

겪어온 비극은 외풍 탓이 크다. 80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1953년 겨우 독립을쟁취했지만 곧 베트남전의 불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 20년 내전이 할퀴고 간 캄보디아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내전의 깊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상처가 좀처럼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의 이번 캄보디아 여행의 최대 관심은 신들의 땅 앙코르 왁에 쏠려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캄보디아의 씨엠립(Siem Reap)으로 가는 공항 수속을 마친후 베트남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씨엠립으로 날라가는 2시간의 비행인데 창문 밑으로 보이는 메콩강 줄기는 강이라고는 믿어 지지 않을 정도인 바다 같았다. 드디어 씨엠립 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20불을 주고 입국비자를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씨엠립 공항은 깨끗해 보였다. 짐을 찾아 나오려는데 출입국 세관원이 1불의 팁을 요구했다.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없는 나그네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200여명이 참석한 저녁 만찬에는 놀랍게도 90%가 한국에서 여행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캄보디아 전통의상을 입은 무희들의 압살라 민속 쇼를 관람하면서 현지의 뷔페를 즐겼다.

앙코르 시대는 9-15세기, 크메르오아조의 황금기로 광대한 영토와 많은 역사 유적을 남기고 사라진 왕국이다. 이 사라진 왕국은 1860년 프랑스의 여행가 앙리 무오가 정글 속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1908년 정글을 제거하여 역사의 유적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 문화재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일행이 처음 찾아간 곳이 앙코르 톰이다. 톰은 도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 변이 약 3km인 정사각형의 성곽 도시로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12세기 말에 조성된 불교사원이다. 이 사원의 성벽 높이가 8미터 정도인데, 그 둘레를 폭 100미터 되는 해자로 둘러싸고 그곳에 악어를 키웠다고 한다. 그 일대에는 승려, 관료, 군인들이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 규모가 대단했던 것이다.

앙코르 톰에는 5개의 문이 있는데 앙코르 왁 투어의 시작은 남문에서 부터였다. 울창한 숲을 지나 남문을 바라보니 문 위로 4개의 얼굴을 가진 불상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은은한 미소로 반기었다. 남문을 지나 숲길을 1.5km 정도 걸어가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온 (The Bayon) 사원이었다. 대승불교 사원으로 12세기 말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앙코르 톰 중앙에 있으며 메루산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높은

산은 하늘과 같다고 믿었고 신은 우주의 중앙을 의미하는 메루산(수미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사원 안에는 54개의 탑이 있다. 그 탑들의 사면에는 불상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런데 216개의 얼굴이 높은 곳에서 각각의 묘한 표정과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들어 찬찬히 올려다보니 참 신비롭게 보였다. 시름을 감추고 슬픔을 머금은 듯 지긋이 감은 눈, 꾹 다문 입술에서 세상의 호화스러움과 번뇌를 쓸어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깐 피었다 사라질 듯한 미소, 이렇게 수천 년을 미소지으며 불상들은 그곳에 있었다. 아니, 정글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풍화작용과 더불어 역사의 혼동 속에서 이루어 낸 흔적이 퇴색된 검은색과 흰색의 조화로 장엄한 아름다움을 이룬 2백여 개의 불상들이 사는 신들의 사원에서 한참 넋을 놓고 바라 보았다. 특히 이 사원의 벽면에 새겨진 1200미터나 되는 벽화는 불가사의한 종교의 힘과 강력한 왕권이 이루어 낸 찬란한 불교문화였다. 압살라 춤 벽화는 캄보디아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맨발의 유연한 포즈와 오묘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나뭇잎새와 꽃무늬의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외부 복도 벽면에는 크메르인의 일상과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코끼리 테라스 등을 관광하고 난 우리는 자연의 신비감과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타프롬 사원으로 향했다.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 사원은 처음부터 웬지 모를 기대감을 품게했다. 사원 곳곳에 장대한 거목들의 뿌리에 기대고 있는 사원들, 인간의 힘도 대단하지만 자연이 어찌 이리도 신비스러운 장면을 자아내는지 놀랍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신들을 위해 건설된 고대 건축물, 사진을 통해본 앙코르 왓을 실제로 보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했다. 인류 역사의 유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불가사의한 점을 생각해 본다.

캄보디아의 사회구조와 윤리도덕의 발전은 소승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으나 원래 전래된 첫 종교는 힌두교로서 앙코르 유적지 대다수가 힌두교를 숭배하였던 유적지이다. 자야바르만 7세(1181-1219)는 외적의 침입이나 과도한 토목공사, 그리고 이의 유지를 위한 재정결핍, 지배층의 타락과 부패 등에 의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왕국을 추스리기 위해 대승불교를 도입하

였다. 그러나 15세기 앙코르를 함락시킨 태국의 야유타야족에 의해 전래된 개인적인 덕행과 원칙을 중시하는 소승불교가 대중들에게 흡수되어 오늘날 국교가 되고 있다.

저녁에는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그 유명한 앙코르 맥주의 맛을 보며 캄보디아 전통무용 압살라 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노래로 국제카바레의 여흥 Rosana Broadway 쇼, 특히 그들이 불러주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일본과 한국의 음악과 쇼는 피곤한 여행자들의 몸을 포복줄도 할 만큼 말끔히 씻어줄 감동까지 전해 주었다. (2013-12-2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캄보디아의 비극 (킬링필드와 톤레삽 호수)

캄보디아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왓트마이 사원(Wat Thmei)과 톤레삽 호수(Tonle Sap Lake)가 있다. 왓트마이 사원은 1975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 군인, 양민들이 과거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학살된 영혼을 위해 세운 사원이다. 킬링필드란 미 할리우드가 1984년 제작한 영화로 참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 시기에 캄보디아의 군벌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Khmer Rouge : 붉은 크메르)라는 무장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을 말한다. 원리주의적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강제노역을 하거나 학살하였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피의 학살현장인 킬링필드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구걸하는 장애인들과 툴술랭 박물관의 모습은 여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안쓰럽게 했다. 어찌 인간이, 아니 사람이 이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원안에 있는 탑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골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과거 앙코르 왓이라는 찬란한 영광을 구현했던 나라이 동시에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의 침략과 전쟁을 겪어내야 했던 슬픈 역사의 나라 캄보디아, 하지만 이 일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동족에 의해 자행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부끄러운 아픈 역사의 한곳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씨엠립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톤레삽 호수로 캄보디아 전국토의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넓은 호수이다. 티벳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7개국을 관통하여 남지나해로 흘러가는 메콩강물이 유입되어 형성된 호수이다. 바다만큼 넓은 호수 톤레삽, 언제나 사용 가능한 거대한 저수지 역할의 톤레삽이 있기에 고대 크메르 왕국이 부강을 누리지 않았을까 한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적셔주는 어머니 강 메콩이 범람하면 톤레삽에 비옥한 옥토를 머금은 물이 흘러들고 건기(10월-3월)가 되면서

물길이 프놈펜 쪽으로 다시 빠지면서 자연스레 곡식을 심기만 하면 되는 비옥한 누적토가 남는다. 물이 차면 어획을 하고 물이 빠지면 농사를 짓고, 인간이 살아 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톤레삽은, 그 물길을 따라 다람쥐 셋바퀴 돌 듯 조금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시간을 살아가지만 톤레삽 호수에 절대 의존하며 유사 이래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로서 손색이 없는 호수이다.



동양 최대의 호수로 캄보디아인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메콩강이 황토흙을 실어나르는 까닭에 탁한 황토색을 띠지만, 해질녘 황금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찾는지도 모르겠다. 덜커덩 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호수로 가는 길엔 수많은 오두막 집들이 몰려있다. 캄보디아의 여느 시골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막대기 기둥에 야자 껌질로 엮어 만든 집들, 그리고 주변에 흐트러진 쓰레기들, 촌사람들의 생활상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이 탄 배는 아버지가 배를 모는 선장이고 두 어린 아들이 조수격이었다. 어린 아들들은 텁을 바라고 안마까지 해준다. 배가 출발하고 넘실대는 호수를 달리다가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촌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에선 간간히 멈춰서 사진을 찍게 해준다. 호수 물은 빽빽한 황토색갈인데 그 속을 조그만 통통배가 접근하여 물건을 판다. 허름한 배 위에서 숯을 피워 밥을 짓는 아낙네들, 가옥 배 옆에 또 다른 배를 묶어 두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닭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잘 뛰놀고 아이들이 이 배 저 배로 뛰어 다니며 논다. 톤레삽 호수 주위에 약 1백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며 그 중 약 1500명이 베트남 난민들인데 이들은 갈대없는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스럽게 보이는 데 겸하여 더러운 의복, 새까만 맨발, 썩은 것 같은 과실 더미, 어디를 보아도 불결하고 궁지에 찬 모습들이다.

수상촌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여 호수에 뿌리고 이 호수에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변소 볼일을 보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식수로 떠다 마신다. 그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본 후 호텔 식당에서 나오는 어떤 생선요리도 손대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톤레삽 호수의 비극, 아니 캄보디아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극과 극을 그대로 나타낸 한 폭의 천국과 지옥의 대비도 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눈에 비치는 한, 캄보디아는 가난하다. 대부분의 거리는 어제 전쟁이 끝나고 오늘 수복을 시작하는 거리처럼 부서지고 어수선하고 무질서 하다. 톤레삽 호수로 가는 웬만한 길가의 집들은 문도 없고 방도 없고 그저 벽을 둘러 막은 움막 같은 곳에 침상인지 평

상인지 알 수 없는 나무판자 하나 놓고 산다. 그나마도 집과 업을 가진 사람은 다행한 사람들이다.

실로 5천 년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복잡하고 다양한 캄보디아의 깊이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찌 알랴만, 그처럼 죽음과 삶을 날마다 수없이 받아들이며 5천 년 캄보디아의 역사를 혈맥처럼 지니고 흐르는 톤레삽 호수, 불가사의한 지옥과 천국의 두 세계를 그 속에 품고 말없이 흐르고 있는 저 도도하고 광대한 호수야말로 바로 캄보디아의 심장, 캄보디아의 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탁하고 어두운 호수면을, 그 깊이 모를 수심을 들어다보았다.

캄보디아의 일부분만 돌아보며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잘사는 나라들, 빛나는 문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안정을 누리는 나라들의 그 번영과 질서에 비하면 아직도 빈곤과 무지와 어둠에서 해어나지 못하는 이들 후진국의 힘겨운 숨소리가, 마치 내 자신의 숨결처럼 안타깝게 느껴지던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친근한 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지상의 불행과 비극을 넘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보다 큰 의지가 이 세계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실 것을 나는 다시 한 번 믿는다.

이번 캄보디아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값진 교훈을 배웠다. 우리들은 수퍼 태풍 하이옌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때리기 전 베트남의 호치민 시(옛 사이공) 공항을 빠져나왔다.(2013.12)

## 카리브 해의 보석, 쿠바

카리브 해에 떠 있는 붉은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쿠바는 에스파냐와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체 게바라가 참여한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쿠바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이다. 인구 약 1200만을 가진 쿠바는 카리브 해 북쪽에 있으며 주변으로 카리브 해, 멕시코 만,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는 미합중국 플로리다 주와 바하마, 동쪽으로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와 아이티, 서쪽에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남쪽으로는 케이맨 제도와 자메이카와 이웃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쿠바는 53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미사일 위기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국이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됐다. 미국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쿠바 내 미국의 자산을 몰수하자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경제봉쇄에 돌입했다. 그 이후 미국과 소련 간 쿠바미사일 사태와 난민문제등 술한 대립과 갈등이 반세기 이상 지속돼 웃음에 비춰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6년만에 다시 찾아가는 필자의 눈에 비친 쿠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거리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쿠바까지는 2300km, 미국 플로리다 남단에서 쿠바 해안까지는 100km 남짓에 불과하다.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경제규모나 물리적인 거리로 보나 앞으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미국의 모든 산업진출과 특히 관광산업의 대단한 활성화를 보게 될 것이다.

토론토를 출발 4시간 만에 쿠바의 바라데로(Varadero) 공항에 내렸을 때는 더운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바다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가 몸을 감아온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던 휘황찬란하던 바라데로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리자 밤바다를 뒤덮은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하늘 가득한 별들만 더욱 맑게 반짝이고 있었다. 무한정으로 크고 넓은 하늘에 처지도록 매달린 별들이 곧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선입견에 겹쳐 딱딱하고 불친절하였으나 일반 시민들은 친절하고 순박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듯 보였다. 쿠바에서 하나밖에 없는 골프장이 있는 바라데로는 쿠바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작은 도시다. 첫 날 아침부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낡은 차들만 돌아다니는 거리의 오래된 자동차들이었다. 도로에는 낡은 자동차들과 오토바이, 자전거, 마차, 보행자들이 함께 어울려 다녀도 질서있게 서로 양보하는 그들은 행복하고 순박해 보였다. 미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미국산 자동차들이 많았다가 미국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차를 수입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차를 수리해서 계속 쓰기 때문이다. 거리는 온통 멋지게 페인트 칠된 옛날 차들이 다니기 때문

에 이것 또한 관광객의 눈을 쏠쏠하게 즐겁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



거리나 해변가에는 키가 큰 로얄 파암 (Royal palm) 야자수 나무가 마치 귀부인의 미끈한 다리처럼 허옇게 쭉 일직선으로 아름답게 늘어서 있다. 어디를 보나 유난히 색깔 짙은 열대의 꽃들이 아침햇살을 받으며 활짝활짝 피어 있었다. 향기도 짙고

아름답기도 한 꽃들이 늘 피는 것은 좋지만 4계절에 익숙한 필자에게는 사시장철 여름뿐인 이 땅이 지겹고 지루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은 폐쇄적이어서, 흔히 바닷가 사람들은 단순하고 시야가 좁다고 한다.

리조트 지역을 벗어나면 건물과 주택들은 오래도록 수리 없이 방치돼 있고 낙후된 상태이며 아직 빈곤 상태를 볼 수 있다. 특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국가의 숨겨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 전이나 지금의 그들의 생활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미국과 국교정상화가 발표된 지금은 어느 곳을 가나 쿠바사람들은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를 반기며 환호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개혁과 개방, 화해의 큰 흐름 속에서 빈곤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은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혁명이후 미국의 경제봉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캐나다의 쿠바 진출 기업들은 광

산, 에너지, 농산, 관광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면 앞으로 전개될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사회주의 국가에 미치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찾아올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리조트 안에서는 일반 현지인들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피서객들로 붐비고 해변의 모래사장에는 평화스럽게 해수욕과 태양욕을 즐기고 있다. 대서양을 건너온 독일에서 온 여행자들이 특히 많이 보였다.

바닷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즐기고 있다. 부드러운 듯 묵직한 몸놀림으로 밀려든 파도는 모래톱을 타오르며 부서져 밀려나고 다시 밀려들고는 했다. 그 쉼없는 몸짓은 무슨 애절한 하소연을 하는 것도 같고, 말로 안되는 어떤 안타까운 몸부림 같기도 했다. 그 물 머금은 모래톱과 파도끝을 밟으며 나란히 걷는 남녀들이 있었다.

카리브 해의 섬에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다. 여러가지 색조의 푸른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인 낙조는 하늘의 노을보다도 한층 황홀한 빛의 잔치였다. 파도 끝에서 피어나는 하얀 물거품은 붉은 물이 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야자수 나무들의 키 큰 모습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다른 계절로 바뀔 줄 모르는 여름이 지겨웠듯 어쩌면 그 노을 지는 모습도 지겨웠는지도 모르겠다. Bella Costa 앞바다에 낙조가 지면서 어두움이 깔려지고 있었다. (2015.02)

##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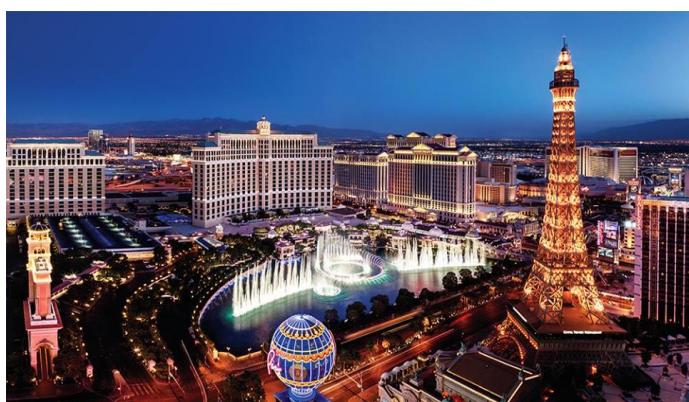
### Las Vegas

사막 안에 솟아오른 도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래서 더 화려하게 느껴지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늦은 오후에 도착했다. 화시 115도의 뜨거운 열기가 나그네를 맞이한다. 마치 사운나탕에 들어온 느낌인데 이곳에도 여느 도시에서나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라스베가스는 컨벤션, 전시회, 관광, 공연, 쇼핑, 레포츠 등 각종 위락 시설을 갖춘 종합엔터테인먼트 도시이다. 호텔들은 제각기 수영장, 미술관, 수족관, 공연장을 갖춘 하나의 리조트이지만 여전히 도박의 도시이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환락의 도시이다. 어느 호텔을 가더라도 입구에서 객실에 이르는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슬롯머신이 차지하고 있다.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전시회, 공연을 관람하러 오고 갈 때면 어김없이 수 백대의 슬롯머신을 지나쳐야 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32대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일궈낸 21세기의 불가사의”라 칭한 이 도시는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이고 재원이다. 18세기 후반까지 이 도시를 포함한 미국 중서부는 스페인 영토였지만 스페인이 쇠퇴하면서 멕시코령으로 바뀌었다가 1848년 미국령으로 편입됐다.

라스베가스는 19세기 말까지 광업과 축산업을 하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경제 대공황이 닥치자 후버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댐 건설을 시행했는데 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모텔, 식당, 클럽 그리고 도박장이 들어섰고 비로소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카지노 호텔이 모여 있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웅장함과 호화로움에 놀라게 된다.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호텔들은 하나같이 초호화 인테리어와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많은 호텔들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테마로 지어져 있는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파리의 거리와 에펠탑, 뉴욕의 마천루,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을 묘사해 만들어졌으며 이 호텔들을 둘러 보는 것은 라스베가스 즐기기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 할수 있다.

스페인어로 목초지라는 의미인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남동부 사막 가운데에 있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흥의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카지노가 많아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불리며, 결혼과 이혼 수속이 간단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백인들이 정착할 무렵에 현재의 라스베가스에는 파이우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모하비 사막 가운데 위치하며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도시는 12월이면 오후 4시 30분경에 일몰한다.



나는 이미 두번이나 이곳을 방문해 보기도 했고, 또 나는 그다지 도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 솔직히 거기 가봐야 좋을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베가스, “도박과 환락의 도시” 이 “죄의 도시”에서의 체류동안 나는 한 번도 도박을 할

마음이나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그럴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조명, 뉴욕, 파리, 로마, 베네치아, 이집트를 비롯한 세계 유명 도시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곳,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되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만드는 꿈의 도시 라스베가스! 도시의 구경거리도 좋지만 여행 동안 누구나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다. 이곳에서는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으며 값도 비싸지 않고, 특히 놀라운 음식에 무희들의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의 디너 쇼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세계적인 최고의 공연과 라이브 쇼 중 몇 개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에 있으니 더 이상의 구경거리는 없을 정도이다.

우리들은 Luxor(룩소르)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대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와 스팽크스 등을 볼 수 있어서 내부를 거닐다보면 이집트에서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King Tut 박물관이 있는데 오래전의 미이라, 그리고 예전 이집트의 생활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拉斯베가스에서의 첫째 날 밤은 가이드의 추천을 따라 Wynn호텔에서 꿈이라는 뜻인 “르 레브 Le Reve” 쇼를 관람했다. 꿈과 환상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꿈을 통해 깨달아가는 로맨틱한 무대 예술이다. 공연은 하늘과 땅, 물을 아우르며 수중 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희들의 수중 쇼와

공중에서 펼쳐지는 서커스의 묘기는 환상적이었다. 그러나 미화 180불의 비싼 관람료는 (부부 360불) 조금 배가 아팠다.

둘째 날 밤에는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야경을 보고 라스베가스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러 가는 곳은 베네치안 호텔이다. 호텔 입구에 있는 리알토다리에서부터, 호텔 내부를 흐르는 운하와 그 위를 떠다니는 곤돌라, 그리고 산마크로 광장의 축소판인 광장과 다양한 상점들까지,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구경을 할 거리가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흡사 베네치아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 베니스의 모습을 재현한 운하를 만든 작은 강을 따라 곤돌라를 타고가는 연인들의 즐거워 하는 모습이 흥미롭고 아름다웠다.

사막의 석양이 선홍빛으로 붉어지면서 라스베가스의 밤은 낮에 달구어진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여전히 뜨겁고 활기차다. 늦은 밤 피라미드의 끝부분의 타워에서 보이는 라스베가스의 야경은 이 도시에서 왜 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지 알 것 같았다. 시가지의 야경을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 그 중심에는 화려한 호텔들이 있고 넓고 긴 차도의 양 옆으로 카지노들이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저녁 시간이 지나갈 무렵이면 수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호텔과 거리를 가득 메운다. 적당한 곳에 들어가 시원한 맥주 한 병을 주문하고 불야성을 이룬 하늘을 보며 스르르 눈을 감으면 이내 자유로운 여행자의 영혼은 밤길에 스며든 부드러운 어둠을 따라 구름 위를 걷는다. (2014.08)

## 안개와 바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요세미티 계곡을 빠져나와 쌀 생산지인 새크라멘토 평야를 뒤로하고 미국 전체 와인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포도주의 본고장 나파밸리와 소노마밸리를 거쳐 여행자의 마음이 낭만에 젖는 곳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서부 캘리포니아를 가면 가는 곳마다 포도밭의 연속인데 포도밭의 풍경이 너무 한가로워 이런 곳에서 포도주를 만들며 뜨거운 태양을 즐기며 지내는 넉넉한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포도주 익는 뜨거운 도시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와인의 독특한 맛은 샌프란시스코 해안의 날씨에서 비롯되는데 낮에는 섭씨 30도 이상을 웃돌고 밤이면 10도 이하까지 떨어져 산도와 당도가 견실한 와인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런 날씨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나파와 소노마밸리다.

인구 80만을 가진 서부의 관문인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 베이(만)에 접해 있어 일년 내내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인다. 1849년 골드러시로 인해 하루아침에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보헤미안적인 문학과 예술가들은 물론 다양한 인종, 세대가 어우러져 오늘 날의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도시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뉴욕브로드웨이 부럽지 않는 극장과 발레단, 오페라와 교향악단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와인의 메카인 나파밸리가 인근에 위치, 미국 내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과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자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로서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러시아 등의 다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1906년의 대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었지만 신속하게 재개발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건축적인 미를 지니게 되었고 아름다운 해변가와 가파른 언덕, 그 위를 달리는 케이블카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1번 하이웨이는 인근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여행을 가는 길 자체가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도시란다.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곳곳에 볼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이자 지구촌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화려한 보석상점들이 밀집한 도시적인 분위기의 유니언 스퀘어, 서부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파이낸셜 지구, 또한 빅토리아풍의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주택가, 이색적인 분위기의 활기가 넘치는 차이나타운, 말이 필요 없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불리는 금문교 (Golden Gate Bridge), 여기에 바다 분위기 물씬 풍기는 어부들의 부두(Fisherman's Wharf), 악명 높은 감옥 앨카트래즈 (Alcatraz) 섬 등 가볼 만한 곳이 무궁무진하다.



TV 나 영화에서 본 세계 최대의 중국인 거리 차이나타운을 지나면서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 특히 한세기 넘게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내린 케이블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낭만과 추억이 충만하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케이블카와 전차를 타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 도시의 매력을 맛볼 수 없다고 한다. 낭만적인 항구, 짙은 안개 사이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붉은 현수교, 언덕 위를 달리는 케이블카, 악명 높은 죄수들의 감옥, 한번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친숙한 영화, 그림엽서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곳을 한번쯤 다녀온 것처럼 느끼게 마련이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온 몸을 태워버릴 듯 살 속으로 파고드는 듯 한데도 수많은 여행자들은 금문교까지 다녀오는 유람선 샌프란시스코 베이 크루즈에 오른다. 끝없이 탁트인 바다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시가지를 감상하며 1937년에 지어진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금문교” 다리 밑을 돌아 “보물섬”, 탈출이 불가능하고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악명높은 감옥섬 “앨카트래즈” 를 한바퀴 돌아 항구에 들어오니 수많은 갈매기떼들이 반긴다. 항구에 들어오자 넓은 광장인데 제퍼슨가와 태일러가의 교차점 부근의 커다란 게 마크(Crab Mark)는 어부들의 부두 상징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상점들과 지역 명물인 게를 판매하는 노점이나 해산물 레스토랑이 많다. “어부들의 부두”라는 이름은 19세기 후반 제노바와 시실리 출신의 어부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어업을 시작하면서 붙여졌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대단히 더운 날씨다. 그럼에도

이곳의 거리에는 여행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다. 바로 삶은 신선한 게와 클램 차우더가 이곳의 특이라고 하니 한번 맛을 보자.



이 도시의 마지막 코스인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건너 갔다오는 것이다. 거대한 바다와 대륙이 직접 맞닿는다. 바다와 땅이 서로를 희롱하듯 감싸안고, 적시고, 때론 부숴버리는 그 황홀한 대자연의 바닷길을 달린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걸어서 또는 자동차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는 1920m의 긴 다리인데 연간 9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미 서부의 명소로 다리를 건너면 마리나 카운티 쪽에 비스타 포인트(Vista Point) 조망대가 나온다.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이나 앨카트래즈 돌섬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며, 특히 석양 무렵의 전망이 훌륭해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곳에서 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과 멀리 보이는 실리콘밸리, 산호세, 오크랜드, 불야성을 이룬 항구의 밤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워 글로서 표현하기 힘든다. 다리를 건너갈 때에는 태평양에서 안개가 서서히 내륙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육지의 더운 공기가 합쳐져서 생기는 자연현상인 안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덮어오더니 짧은 시간에 안개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다. 차가운 대양과 따뜻한 캘리포니아 땅이 만나 피워 올린 해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년 200일 정도가 이렇게 안개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 과연 안개와 바람의 도시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2014.12)

## 빙하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

아리랑 산행팀 이서구 대장님의 이끄는 미국 서부의 3개 국립공원 빙하 국립공원, 엘로스톤 국립공원, 그랜드 테톤 국립공원 하이킹 대장정은 앨버타 주 캘거리에서 시작되었다. 토론토에서 4시간 비행하여 도착한 캘거리스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미국적 색채가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2차대전 직후부터 성장해 온 에너지산업의 자본, 기술, 판매 등 전과정을 미국에 의존해 오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1947년 넓은 지역에 걸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앨버타는 농축산업 위주의 평범한 주에서 반세기만에 에너지산업 중심의 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또한 록키산맥으로부터 8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관광산업도 활발하다.



캘거리에서 빌린 자동차로 남쪽으로 222km 내려와 남부 앨버타주의 Lethbridge에서 첫째날을 보내는 계획인데 북미는 정말 광대한 대륙이었다. 도로 양쪽으로 뻗어 있는 농장과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의 풀과 노란색으로 변한 밀밭의 연속이었다. 이 넓은 대륙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방목되어 있는 소들만이 물결치는 밀밭에서부터 목장의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가끔 농장 주인집인듯한 작은 집들이 보였다.

하이웨이 #2번을 타고 남으로 달리는데 오른편으로 어렴풋이 록키산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캐나다의 하이웨이 최대 속도는 대개 100km인데 같은 캐나다 땅인데 이곳에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속도가 110km로 되어있다. 록키산맥은 미국과 캐나다를 남북으로 걸쳐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앨버타 주에서 뉴멕시코까지 4500km에 걸쳐 뻗어 있는데 그 중 3000km는 미국땅에, 1500km는 캐나다땅에 걸쳐 있다. 우리들이 계획한 하이킹 코스는 이 록키산맥의 지류에 있다.

오후 늦게 우리들은 시골 같은 작은 도시 Lethbridge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미국 몬태나 주에 진입하여 세인트 매리 (St. Mary)에 도착했다. 이 곳은 빙하 국립공원 입구이면서 록키산맥을 동서로 가로 넘어가는 험준한 도로이다. 세인트 매리 호수를 계곡에 안고 올라가는 80km의 태양의 길 (Going to the Sun Road)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산악 도로이다.

광대한 면적의 황야를 거칠게 교차하고 있는 3시간 거리의 이 도로는 호분에서부터 로간패스(Logan Pass)의 록키산맥 분수계 정상까지 연결하며, 날카로운 암석 아래 펼쳐진 고산의 가녀린 초원을 볼 수 있으며 상록의 숲 사이로 형성된 수많은 계절성 폭포가 길 곳곳에 보인다.

몬태나주 북서쪽 캐나다의 국경에 가로 놓인 빙하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중의 하나로 100만 에이커가 넘는 광대한 지역에 수많은 절경이 펼쳐져 있다. 억겁의 세월 속에 지질구조 변화에 따라 다듬어진 많은 산봉우리와 50여개의 빙하 그리고 200여개의 호수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공원 동쪽의 산들은 지각의 단층변화를 수없이 겪어, 이곳의 수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바위 지층들은 이들보다 수백만 년 뒤에 만들어진 지층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계곡들과 호수들은 마지막 빙하시대에 남겨진 작품들이다. 빙하 국립공원의 장엄한 산 경치는 불가사의한 영적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이 아름다움에 매료된 블랙풋 인디언(Blackfeet Indian)들은 이곳을 신성한 영토로 믿고 있었으며 스코트랜드 태생의 자연주의자 존 뮤어는 이 공원을 “모든 걱정거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북미 대륙 최고의 경치”라고 생각했다. 울퉁불퉁한 하늘선의 경이로움으로 “대륙의 왕관”이라 불리는 이 공원은 캐나다의 자매 공원 워터톤 레이크 국립공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국제평화공원을 이루고 있다.

1910년에 설정된 빙하 국립공원, 공원 내에는 야생 동물과 야생화가 자라고 있고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는 빙하가 깎아만든 깊은 계곡, 아름다운 호수, 초원 등의 대자연에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연간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며 가을 겨울 봄에는 로간 패스가 폐쇄되기 때문에 6.7.8월이 산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트래일 Trail은 700개 이상 있다고 한다. 초심자 전용 단거리에서 시골 지역 애호자까지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 우리들이 택한 곳은 이 공원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Highline Trail (12km)를 정했다. 이 트래일은 방문센터 로간 패스 해발 2025 미터에서 시작해 Mt. Gould (해발 2911m)를 걸어 그레나이트 공원 별장(Granite Park Chalet) 까지 왕복 6시간 거리이다. 빙하 국립공원 하이킹에는 갖가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해발 3300m로 솟아있는 빙하 봉우리까지 6.7마일 코스를 오르는데만 다섯시

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몬태나 빙하 국립공원을 찾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등산전문잡지 “백팩커 매거진”은 몬태나 빙하공원을 최우수 배낭등산 코스로 선정한 바 있다. 하이킹 코스는 숨이 막힐만큼 가파른데다가 곳곳에 깎아지른듯 한 험난한 절벽들이 널려있다.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속에는 거대한 봄집을 자랑하는 곰들이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도전적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공원이지만, 독특한 빙하의 절경과 함께 숲속에 우글거리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접할 수 있고 오랜지빛 석양을 배경으로 안개속에 신비롭게 솟아있는 빙하 봉우리들을 바라보는 비경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빙하공원은 도전과 스릴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숲속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지만 색깔이며 모양이 너무 아름답다. 서두를 일이 전혀 없어서 한걸음 한걸음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트래일을 오른다. 절벽길을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경사가 조금씩 높아지지만 하늘도 푸른색으로 한 없이 높아져 간다. 능선위에 앉은 눈이 녹아내리며 만들어 내는 물줄기가 작은 폭포를 만들어 낸다. 준비해 온 점심을 먹으며 빙하에서 흘러내려 오는 맑은 물을 마시니 속이 얼음같이 시원해지고 나무 사이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로 보인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고 땀을 흘렸지만 맑은 날씨에 바람 한점 없는 푸르름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온 하루였다.

로간 패스에서 록키산맥 고산지대를 넘어오는 산 도로는 장관이었다. 옛날 Blackfeet 원주민들의 생활무대였으며 그들이 다니던 길이다. 비록 인디언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의 생명력만은 지금도 대지 속에서 꿈틀대며 숨 쉬고 있는 듯하다. 계곡이 만들어내는 맥도날드 호수를 지나 Kalispell Grand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2013.9.2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옐로스톤 국립공원 Yellowstone National Park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미국 최대, 최고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은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Wyoming) 주, 몬태나 주 남부와 아이다호 주 동부에 걸쳐있는 록키산맥 정상에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공원에는 5개의 입구가 있고, 대략 동서로 90km, 남북 100km나 되는 거대한 공원이다.

몬태나 주의 Kalispell에서 하이웨이 90과 191을 남으로 630km를 달려 8시간만에 옐로스톤 서쪽 입구에 도착했다. 옐로스톤 강 하류 계곡에 들어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보슬비가 내리는데도 마치 환영이라도 하는 듯이 강을 따라 내려가는 고무보트 타는 사람들이 스릴 넘치는 급류래프팅 (Rafting)의 낭만을 모험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에 설정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이곳에는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대자연의 경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별천지다. 고산 호수와 강, 간헐천, 비등하는 진흙 연못 등이 있으며, 수많은 간헐천이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 곰, 늑대, 엘크, 들소, 가지뿔영양 등의 서식지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강에는 송어, 무지개 송어 등을 볼 수 있고 독수리, 매, 휘파람고니 등 조류의 모습도 즐길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야생화가 빛나는 색채를, 겨울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설산의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있다. 평균 고도가 2400m가 넘는 고지대 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으로 인하여 공원 대부분의 지역에 모든 편의시설이 폐쇄가 된다. 정상적으로 모든 출입구와 편의시설이 오픈이 되는 시기는 5월 하순부터 9월 말 까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스톤의 정상적인 방문이 가능한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제한된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속살을 만나기 위해 우리들은 4일간의 일정을 잡았다. 공원의 첫 인상은 옛날 고향마을을 생각나게 한다. 들에는 들소(버팔로)들이 풀을 뜯고 있고, 아침 저녁 때마다 밥할 때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 오르듯이 공원 곳곳에는 간헐천이 내뿜는 수증기가 오르고 있다. 지층 속 마그마의 화산활동이 아직 활발하여 그 힘이 지표를 뚫고 올라와 물줄기를 힘차게 뿜어 올리는 간헐천 (Geyser),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온천, 뜨거운 김이 솔솔 올라오는 분기공 (Fumarole) 그리고 진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Mud Spot 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과 불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형성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태초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강과 호수, 여름철에도 백설이 덮여 있는 높이 3000m가 넘는 45개의 산봉우리와 숲, 황야와 협곡, 온천, 폭포, 기암괴석 등이 산재해 있으며 넓은 숲과 대초원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버팔로, 곰, 여우, 사슴, 영양과 각종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의 천국이자 보고이다.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록키산맥의 용암지대에 있으며, 매일 수십차례 수십만년 동안 물을 뿜어 내고 있는 200개나 되는 간헐천과 분기공이 있어서 화산활동이 아직도 정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옐로스톤(Yellowstone : 노란바위)이라는 명칭은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석회암 층을 흘러내리며 바위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대자연의 경이가 모두 존재하는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간헐온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온천들이 있으며, 마모스 핫 스프링(Mammoth hot spring)과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 Geyser)은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간헐천은 이 공원의 상징인데, 이 중 규모가 크고 규칙적이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 올드 페이스풀은 약 90분마다 40-50m 높이의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 약 4분 정도 지속된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한번에 내뿜는 물의 수량은 8400 갤런에 이른다고 한다.

간헐천이란 뜨거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으로 특히 화산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지하의 깊은 곳에서 상승한 열수나 수증기가 보통의 지하수와 비교적 얕은 곳에서 혼합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온천은 그 지방의 물의 끓는점 보다 높다. 지하의 열이 더 높으면 연속적으로 분출하는 비등천이 되고, 열이 식어 수온이 끓는점 이하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보통의 온천이 된다. 이렇게 간헐천과 화산의 분기공을 보면 지금도 화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옐로스톤에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은 공원 북쪽에 있는 거대한 폭포와 계곡으로 옐로스톤 강이 호수로 흘러 들면서 300m 높이의 협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옐로스톤의 그랜드 케년 (Grand Canyon of the Yellowstone) 이라 불리고 있다. 북벽 트레일 (North Rim Trail)에서 시작하여 남벽 트레일을 건너 폭포를 보게 되는데 이 대폭포는 강 상류와 하류의 폭포로 이루어 지는데 지축을 흔들며 떨어지는 하류폭포가 장관이다. 굽이진 길은 구절양장 천길 낭떠러지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도적인 거대한 자연풍경이 연이어 몰려온다.

깊은 계곡에는 햇볕이 내려쬐는 한 낮에도 갑자기 검은 안개를 몰고 오는 바람



은 마치 해일처럼 빠른 속도로 산을 뒤덮고 비를 뿌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했다. 우뚝 솟은 절벽 사이를 강여울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며 운 좋게 폭포위에 걸쳐 있는 무지개를 만나니 꿈이라면 깨

지 않고 싶은 시간이다. 그 장엄한 계곡과 계곡 사이를 흘러내리는 옥수가 어울려 형형색색의 암벽 궁전으로 변신한다. 그 거대한 대자연의 합창, 그 음성이 들려올 즈음, 누구나 가슴은 뛰고 충만한 기쁨에 온몸이 전율에 휩싸일 것이다. 거세게 낙하하는 폭포의 장관을 보기 위해 328개의 계단으로 만든 안클 샘 트레일 Uncle Sam's Trail은 경사가 무척 가파른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소낙비를 맞았다. 하루의 하이킹이 끝나고 콘도로 돌아오는 계곡을 따라 뻗어있는 초원에는 수없이 많은 들소, 엘크 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으며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도로에 나와 길을 막는 짖궂은 놈들도 보인다. (2013.9.27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요세미티 국립공원 Yosemite National Park

시에라 네바다 산맥 뒤에서 아침 해가 솟아 올랐다. 이른 아침이어서 뜨거운 햇볕을 씻어내는 시원한 바람이 한없이 반가웠다. 요세미티 계곡으로 가는 길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이었지만 나무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졌다. 요세미티 계곡은 미국 자연보호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뮤어 (John Muir)가 발견한 지역으로 189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1백만년 전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돼 1만년 전 빙하가 녹으면 생성된 3백 개가 넘는 호수, 계곡, 폭포가 즐비한 천혜의 자연경관이 넘쳐나며 계절마다 색다른 경치로 여행객을 매료시킨다. 1984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공원의 전체 면적은 3081평방 킬로미터이며, 연간 4백만 명의 방문자들이 지나간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인데 샌프란시스코 방문시 같이 방문하는 것이 좋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560km,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발 3천m 이상에서 만년설을 이고 있는 투올러미 (Tuolumne) 고산지대, 수령이 2700년이 넘는 거대한 세쿼이어 나무들로 이루어진 마리포사, 볼거리가 많은 요세미티 계곡으로 나눌 수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고산지대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중에서도 가장 험한 지형을 이룬다. 그 위에서는 광대한 투올러미 초원과 주위에 흩어져 있는 호수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요세미티는 면적이 넓고 볼거리가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국립공원인데 사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다녀오는 곳은 요세미티 밸리(Yosemite Valley)라고 할 수 있다.

해발 8842피트의 거대한 바위인 하프 돔(Half Dome), 세상에서 가장 큰 화강암 덩어리로 거대한 바위산 엘 캐피탄(El Capitan), 그리고 요세미티 폭포, 마치 신부의 면사포와 같은 브라이덜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 등이 모두 요세미티 계곡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계곡 지형을 오늘날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빙하와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세미티 계곡 남쪽에 있는 글레이셔

포인트(Glacier Point)는 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해발 7214피트에 전망대가 있다. 하프돔, 시에라 네바다 산맥, 머시드 강, 폭포 등 공원의 웅장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일몰과 밤하늘도 장관이다. 요세미티는 웅장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높은 산과 폭포와 거목, 우거진 숲과 초원, 사방에서 들리는 새 소리와 물 소리, 잡힐 듯 낮게 깔린 구름 모두 웅장하고 아름답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초록의 세계로 들어서면, 거대한 삼림나무는 미완성의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의 손때 묻은 흔적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다. 나무가 나무를 감싸고, 돌을 품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좁은 도로를 따라 공원 정상에서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걸어 올라가 보는 것이 좋다.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삼림욕을 즐긴다. 어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

의 공간에 입장했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온 기분, 그러나 보는것 마다 달라서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고 빛나는 자연 앞에 모든 걱정과 갈등은 씻은 듯이 사라짐을 느낀다. 계절에 따라 공원 자체가 많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공원 전체가 오픈되는 시기는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부터 11월 말까지이다. 계곡의 북쪽지역인 Tioga Pass Road 일대와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Glacier Point 등은 11월 말부터 5월 하순까지 폐쇄를 한다. 특히 높고 커다란 나무로 삼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도로가 해를 받지 못하여 겨울철에는 항상 눈에 쌓여 있고 도로가 겨울내내 눈이 동결상태가 된다.

이 계곡의 산들은 대부분 화강암 바위와 울창한 숲이 같이 있는 것이 참 특이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화강암 돌산위에 풀과 키 큰 나무들이 아슬아슬하게 자라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연결되는 머시드 강(Merced River), 겨우내 얼어 있던 얼음들이 녹아내리다보니 수량이 상당히 많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중심부에 있는 깊이 1000m, 폭 1600m, 길이 1100m 에 이르는 요세미티 계곡을 달리는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다. 주변으로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을 이루고 있고, 공원의 가장 유명한 브라이덜 베일 폭포의 낙하와 3단으로 이뤄진 요세미티 폭포는 그야말로 장

관이다. 멀리서 보는 폭포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조금 걸어들어가서 낮은 폭포를 보면 수량이 많이 줄어든 지금도 그 참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기분은 요세미티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세계 최대 크기의 화강암 바위인 엘 캐피탄의 위엄과 계곡의 동쪽 끝에 있는 하프 돔은 둑근 돌덩어리를 반으로 잘라낸 듯한 형태의 거대한 화강암 암벽으로 요세미티의 명물이자 암벽 등반가들의 도전 대상이다.

8700만년 전에 생겨났다는 요세미티 계곡에 있는 자연 전망대인 글레이셔 포인트에서 동서남북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인데 바람에 훌날리는 폭포수와 아름다운 면사포 폭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요세미티는 빙하가 깎아내려 계곡이 만들어진 곳으로, 주변의 모습을 보면 빙하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아슬아슬한 절벽을 사이에 두고 맑은 물이 흐르는 원시림의 계곡을 빠져나오는데만 거의 3시간이 걸렸다. (2014.11)

## 6 세월 유감



## 가는 해와 오는 해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검은 뱀 띠의 해 계사년, 2013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기고 있다. 해마다 맞는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서 치르는 일이지만 언제나 이 때가 되면 각종 송년모임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마음은 들뜨고, 바쁘게 지내온 한 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12월이기에 몸은 분주하기만 하다. 우리들은 흔히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 간다고 불평을 한다. 사실 세월이라는 시간 자체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고 가고 변해 가는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는 반 세기 전 조국을 떠나올 때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되며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조국은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의 땅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던지 한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한반도의 한국사람들의 정체성이 이상한 색깔로 흐려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요 재앙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 자신 뿐일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잘못된 일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한다.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도 후회나 반성할 것이 없으니 다짐과 각오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돌아보면 잘못한 일이 많아 항상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다짐을 반복하며 산다.

지나간 날들을 보내는 것만이 송년의 의미가 아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송년의 의미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허리가 잘려진 한반도는 이제 삶의 모든 부문에서 남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과 시위대의 핏발선 목소리가 진동하고 이로인해 철도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며 경찰과 불법 파업 노조원들과의 쫓기고 검거하는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쪽에서는 권력이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공개처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한 시대의 요청은 해가 가기 전에 패싸움의 정서에서 뛰어 넘어보자는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채 성탄과 세모를 맞이하는 것은 마치도 밝게 켜진 가정과 생업의 등불을 스스로 끄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3대 세습을 이어받은 철부지 김정은 정권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길이 없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한 1천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실현 시키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작은 통일의 첫걸음이며 남북한의 화해와 상호협력하는 공존공영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언제나 이팔청춘으로 젊게 살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머리에서리가 하얗게 앓은 후에야 철이 들고 이제야 사람이 되나 싶다. 나는 아직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 어느 때부터인가 시력이 떨어져 안경이 없으면 책이나 신문을 읽기가 힘들게 되어 늙어감을 실감한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지 말라는 신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새해부터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소망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아직 없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겨운 눈빛과 따스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진실 되게 살며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가 누구이던 분명 멋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한 선진 사회인 동시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진실로 살 만한 곳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니, 새해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작정하니 행복은 바로 내가 마음먹기에 따른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새해에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 즉 희망의 새 시대가 오기를 대망해 본다.

(2014-01-10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희망의 새해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 청마의 해다. 들판을 질주하는 힘찬 말처럼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2014년 새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동안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한 해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그저 하늘의 경제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 역사교과서 파동, 철도파업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 치열했다. 북한에서는 인민을 굶겨 가면서도 진행하는 핵 실험, 끝없는 남한을 향한 협박, 일방적으로 통고한 이산가족 상봉 취소, 숙청과 공개처형 등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3년은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를 맺은 50년째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해였다. 캐나다의 한인사회에서는 교민 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데다 얼음비가 내려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 피해를 자아내었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구촌 어느 곳곳을 보아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제사정, 치졸한 정치싸움, 치열해지기만 하는 경쟁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를 위축시키고 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장구하게 흘러간다. 그저 흘러가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낳기 위해 지난 세월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지구촌 시대의 거센 물길과 기상도를 지켜 보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 해외동포들은 무척 안쓰럽게 생각한다. 모국의 5천만 국민들과 800만 해외동포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과 북에 해빙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토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남한 땅에는 희망의 밝은 2014년을 맞아 신뢰프로세스와 국민통합의 깃발을 들고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국내외 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건 새해 새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 금년은 힘찬 청마의 해라고 했다. 말은 웅혼한 기상의 상징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도 펄펄 나는 말처럼 모든 일이 시원하게 풀리고 희망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는 해가 되기를 염원한다.

말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온 동물 중 하나로 사람을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 인간이 처음 야생마를 길들인 것은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산된다. 처음에는 육용으로, 다음에는 농경용, 수송용, 승용, 통신용, 군용, 스포츠용 등 인류 문화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동물이다. 옛날의 전쟁은 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한다. 몽고의 천하통일도 말이 한 것이다.

갑오년 새해에는 동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찬 해를 맞았으니 금년에는 우리 민족 남북한 사이에 서로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풍년을 예고하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다. 눈은 가난한 이에게도, 돈 많은 이에게도 똑똑한 이에게도 고루고루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주는 평등의 축복,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뭉쳐도 부서져 버리는 눈이지만, 하늘은 겨울 삭막한 한 때 누구에게나 이 평등한 축복을 내리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희망의 새해,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4. 1)

## 눈 내리는 날의 산행 길

바람불고 눈발이 휘날리는 속에 길을 나섰다. 눈이 오면 나그네처럼 갑자기 어디로 나가고 싶은 유혹에 놀린다. 유난히 올해에는 눈이 많이 온다. 토론토 시내에서 조금 북쪽지대라 어제도 그제도 함박눈이 내리니 온 세상이 새하얗게 옷을 갈아 입었다. 온 천지가 눈꽃 세상이다. 서쪽 휴론 호수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빨아올린 눈구름이 몰려와서 이곳 산줄기에 부딪혀서 시시때때로 많은 눈을 뿌려대는 탓이다. 그때마다 주민들에게는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주지만,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준다. 눈 내리지 않은 날에도 기온이 내려가는 추운 우리 동네의 아침 풍경은 황홀하다. 밤새도록 뒤덮은 안개나 구름 속의 습기가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어 눈꽃 못지않게 수정같이 맑고 화려한 상고대(서리꽃)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상고대는 해가 뜨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금세 녹아버린다. 기나긴 겨울밤에 느닷없이 꾸었던 일장춘몽처럼 허무하다.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로 북쪽으로 가면 20분 거리에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Eldred King Woodlands 산이 있다. 이 산의 방문 최적기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7-9월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도 스키와 설경, 하이킹 등 다양한 겨울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겨울철 이 산의 등산로는 적설량이 많아서 한 폭의 산수화처럼 근사한 설경을 보여준다. 사시사철 언제 찾아가도 좋지만, 특히 눈내린 날의 설경이 환상적이다. 이 숲길을 걷노라면 전나무 특유의 진한 피톤치드 향이 머릿속까지 맑게 해준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우뚝 솟은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를 늘어뜨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안개 같은 눈보라가 숲의 정적을 깨우곤 한다.

고요하고 태고 같은 이 풍경 속에서 전나무, 적송나무들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쭉쭉 뻗고,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있는 것이 눈에 뜨일 뿐이다. 흰옷 갈아입고 미끈하게 도열해 있는 적송나무들은 고개를 한껏 젖힌 채 올려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깊은 산골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없어 언제 가도 청량하고 고즈넉한 정취는 변함이 없다. 수북한 눈 속에 온 몸을 묻은 계곡의 풍광도 환상처럼 아름답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속진과 번뇌까지 슬그머니 사라지는 듯하다.

펄펄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꽃송이를 맞으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진 울창한 삼림지대를 자랑하는 능선 지대를 따라 놓인 절경 등산길, 계곡에는 얼음으로 변한 작은 호수가 눈으로 덮여있다. 호수가에는 하나의 긴 통나무가 잘려 있는데 이곳은 산행의 중간지점이라 잘려진 나무등걸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어느집 귀부인이 만든 간식솜씨를 평하기도 하는 자리다. 고요와 정적만 감도는 눈 덮인 산중, 산과 들, 낙엽과 스러진 나무도 하얀 눈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새하얀 무명수건을 머리에 쓰고 흰옷을 입은 새색시를 바라보듯 새하얀 눈으로 옷을 갈아입은 깨끗한 세상을 본다. 하얀 눈은 우리 인간에게 깨끗함과 정직함을 상징하기에 모두가 눈을 좋아한다.

눈이 오면 마음이 설레고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누군가를 만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지며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기분이 들뜨고 감성에 젖어 누구나 시인이 된다. 하얗다는 것은 빛이 있어 환하고 투명하다는 뜻이며 정직하여 거짓이 없음을 의미한다. 흰색은 색깔 중 가장 고고하기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 깨끗한 희망과 소망, 긍정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한다.

Eldred King Woodlands 산은 산세는 크지 않지만 평탄하고 자연절경이 산재해 있어서 산행의 묘미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산행 코스는 비교적 짧고 수월한 편이다.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리 많은 눈 쌓인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오늘같이 눈 내리는 날에 적막같은 산속길을 걷는 일은 더없이 상쾌하다. 사람들의 왕래도 없어서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순백의 설경을 바라보는 눈 맛도 좋고, 머리에 눈을 허옇게 쓴 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뽀드득 뽀드득 하는 발자욱 소리에 귀가 즐겁다. 비록 내가 버리고 가는 발자욱들이 흰 눈으로 덮여 없어질 것을 생각하며 나는 가만히 눈길을 걷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흰 눈송이가 살포시 내려와 앓는다.

사실 이 산을 사계절 언제 찾아가도 만족스러움을 안겨준다. 무엇보다 주변 숲과 계곡의 풍광이 빼어난 덕택이다. 특히 신록과 녹음, 단풍과 눈꽃으로 치장하며 계절의 변화를 또렷하게 담아내는 숲의 정취가 일품이다. 이것은 우리가 충심으로 찬미하고 감사할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하산 길에는 참새가 먹을 것을 찾아 방앗간을 들르듯 겨울 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멕도 날드 커피집에 들러 한잔의 따끈한 커피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산행의 고단함을 잊게 해준다. (2015)

## 세월 유감

하는 매일같이 뜨고 진다. 이렇게 지구는 잠시도 발길을 멈추지 않고 돌고 또 돌아 간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현상이다. 그 사이에 사람은 나고, 사람은 죽어 간다. 모든 생물에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한계를 지니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늙어감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끈기와 투쟁으로써는 지배 할 수 없는 유일의 인생사를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그 한 생애란 우주의 무한대에 비하면 눈 깜박하는 사이밖에 못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세월이 흐른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사람들은 쉬지않고 늙어간다는 뜻일 게다.

깊은 밤에 아득히 빛나는 별들을 보며 삶과 영원과 사랑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추연한 생각에 빠져 들 때가 있다. 세월,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그냥 덤덤히 외면할 수만은 없는 나이에 살고 있다.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치아를 가졌다고 늘 자부하던 것인데 20 여년 전 아랫 이빨 하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치아는 바로 건강의 척도라고 말한다. 치아가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하며 치아의 쇠퇴와 더불어 우리 몸도 쇠퇴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당시 치과대학 졸업반이었던 작은 아들에 의하면 치아 숫자는 위-아래 턱 각각 16개씩 모두 32개가 기본이란다. 어금니는 잘 쓸 경우 100년 안팍이라는 세월 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절구 중에서도 매우 잘 만들어진 절구인 셈이다. 실제로 부단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내구력이 어금니만큼 좋은 인체 부위도 찾기 힘들다. 충치는 철저한 양치질로 보완할 수 있다. 치아는 인체에서 뼈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가장 단단한 조직인 탓에 사람이 죽은 뒤에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문제의 이빨은 충치였으나 작은 아들이 수없이 갈고 다듬기를 반복해서 치관(Crown)을 손수 만들어 평생 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약 10년쯤 되었을까, 어느 날부터 책과 신문의 글이 아물거려 검안의인 둘째 며느리 사무실을 찾았더니 눈은 정상인데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시아버지는 좋은 눈을 가졌는데 정상적으로 늙어가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돋보기 안경(도수가 들어 있는 안경)을 하나 맞추어 주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인 지난 2014년 1월 오른 쪽 눈의 백내장 (안구의 수정체가 부옇게 흐려지는 눈병) 수술을 받았다. 발달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았으나 원래의 나의 시력에 미치지 못한다.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양쪽 눈의 촛점이 맞지 않아 차고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벽을 들이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옛 선인들의 말대로 올 것이 온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버둥대도 몸 구석구석이 서서히 폐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빨에서 눈으로 구체적으로 또 늙어감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몸과 마음은 아직 정상으로 늠름한 체 과장을 하며 살고 있는데 몸의 곳곳에 노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밥 속에 섞인 돌도 겁없이 삼키고 맨발로 겨울 거리를 걸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던 젊음이 내게도 있었다. 지금까지 10년을 주기로 몸에 이상이 하나씩 일어나니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어느 신체 구조에 신호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도 10년이 아닌 더 짧은 시기일지 모르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인생의 축적된 가치 때문에 참으로 숭고한 것이며 병든다는 것은 병들지 않았던 삶에 대한 회고를 가능케 한다는 가치 때문에 아름다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건강한 눈, 건강한 치아, 건강한 귀,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나이에 살고 있다.

사람이란 참으로 미묘한 존재다.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많은데, 사람 몸의 기묘한 구조와 기능에 탄복한다. 과학의 힘이 빛어낸 그 어느 고성능 기계보다 월등히 정교하고 성능이 뛰어난 정밀기계임을 우리는 흔히 의식 못하고 살고 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마치 시설이 완비된 정밀 공장처럼 각 부분이 기묘하게 연결되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전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본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이럴 진데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서로의 균형의 힘을 잃는다면 그 중심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생각이 듈다.

몇 해 전 한국 평창에서 온 황창연 신부님의 강론이 생각난다. 농사 체험을 통해서 산과 물 그리고 땅의 신비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황 신부님은 사목생활을 하면서 환경공학을 전공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올바른 환경조성, 무공해 세상 건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황 신부님에 의하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 딸 둘 아들 하나면 금 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 메달, 아들 둘이면 목 메(매)달 감이라고 했다. 나는 아들 둘뿐이니 분명 목 메(매)달 감에 속하지만 아들 녀석이 고장난 이빨을 고쳐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늙어가는 눈을 보살펴 주니 아직 살만하다. (2015.10)

## 캐나다 현충일에 느낀 점

11월 11일은 캐나다의 현충일이다. 현충일 (Remembrance Day) 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며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는 기념일이다. 브램튼 메도베일 묘역 위령의 벽에는 한국전쟁중에 산화한 전사자들의 위패가 설치돼 있다. 현충탑 좌우에 서 있는 위령의벽 (Korean Veteran's National Wall of Remembrance : 한국전 기념비) 둘레에는 전사자들의 이름표가 빼곡이 붙여져 있고, 빈틈없이 붉은 Poppy 꽃으로 단장 돼 있다. 이날 캐나다 한국참전용사 (KVA) Unit 23 주관으로 캐나다측 향군, 재향군인회 캐나다동부지회회원,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강정식 총영사님 그리고 관련 정치인, 참전용사와 군원로, 현직 군관계자와 학생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추념식 행사가 있었던 날이다.

금년 들어 벌써 6.25 한국전쟁의 64주년을 맞은 해이다. 60여 년 사이에 나라 안 밖의 정세는 많이 변했고, 한국전쟁에 대한 세대간의 사실 인식과 그 해석에도 차이를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생활양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변한 곳이 없는데가 하나 있다. 그곳은 바로 국립묘지이다. 여기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 애국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국의 의미를 이들 순국열사들 앞에서 엄숙히 물어 보아야 하는 곳이다. 민족상잔인 1950년 6.25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된 그 시절, 눈물겹도록 가난했던 그 현실, 나라의 존망이 눈앞에 당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은 아픔이었다. 확실히 한반도 남쪽 끝자락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혀 있던 우리의 절망적 최후 운명이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1950-1953) 중 유엔 참전국 일원으로 26791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그 중 516명의 전사자를 낸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의 하나이다. 자기나라의 일 처럼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어가며 싸워준 그들의 대부분은 20대를 전후한 꽃 같은 젊은이들이었다. 우방국들의 한국전쟁 참전목적은 자유

수호였다.

공산독재와 침략을 저지하고 인류공통의 희망이요 가치관인 자유를 수호하자는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은 캐나다의 지원을 비롯해서 유엔 참전 16개국의 지원은 물론이며 그들이 한반도에서 흘린 피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다. 골똘하게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인 것 같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요, 미련 없이 배푸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일 것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데다 금년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생존자 중에도 외롭고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 이분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데,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사실상 건강과 고령의 문제로 활동이 여의치 않은바, 동포사회가 KVA의 각종 기념행사에 지원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KVA 참전용사회와 재향군인회 캐나다동부지회가 참가하는 각종 기념행사는 캐나다군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 및 한국-캐나다간 특별 동반자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캐나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고양 등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쌀쌀한 겨울 날씨인데도 Ray Lawson, Hickory Wood, Roberta Bondar 3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와 O 'Canada'가 오늘 따라 가슴 속에 와 닿는다. 특히 한국전쟁중에 장렬히 산화된 전몰장병들의 영령들을 위해 묵념을 할 때 애잔하게 불어대는 트럼펫 소리와 헌화하는 모습에는 가슴이 뭉클하고 숙연해졌다. 이날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은 캐나다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그 당시를 되새기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그들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에서 위령의 날 (Remembrance Day) 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에 매년 참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꽃 같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치신 캐나다 전몰장병들의 영령에 명복을 빈다. (2014. 11)

## 일본의 추한 얼굴

일본은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마네현에서 우리의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는 기념식을 가졌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기념식을 치르는 일본 정부 인사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가 격량에 싸여 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과거사 역주행이 끝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외국 영토를 넘보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최근 관계 개선의 정상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교류의 역사는 1500년을 넘게 이어져 왔다. 한국과 일본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과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월 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금도 두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일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이중적 자세를 보이면서 정상간 만남조차 불투명하다.

역사는 염연히 존재한다. 동북아 근현대사를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은 가해국이고 한국은 피해국이다. 일본의 강제병합과 수탈, 태평양 전쟁 감행에 따라 당시 한국인들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 정치권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스쿠니 참배, 집단적 자위권 추진,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일 간의 많은 쟁점이 여기에서 비롯됐으며,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차가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상했다.

역사 정신은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며, 역사란 흘러간 시간인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가 비추는 빛에 따라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만 했을 뿐 실천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본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얼마 전 홀로코스트 현장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그는 종군위안부 만행 등 일본이 저지른 과오를 사과는커녕 어떤 양심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언제까지 보일 것인가.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후 독일은 인류 앞에 나치의 만행을 사죄하고 피해자 보상에 힘썼으며 이런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이더니 극우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아예 그런 범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있었던 일을 국가적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려는 전형적인 자기기만이다. 일본은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이 건강한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평판을 듣기는 힘들 것이다. 일본정부가 한 일 정상회담을 위한 아베 총리의 특사를 파견했다니 일본이 진정으로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과거의 일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다. 일제에 의해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공장 노동인력으로 징발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이 2000원이라고 한다.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요즘의 커피 한잔 값이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추악한 일본의 진짜 얼굴이며 모욕이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인을 우롱하지 말라.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는 한 한국인의 후손들은 결코 그들이 지은 죄를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CATW 는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행보를 보이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일본의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등 전쟁범죄 및 인권유린 역사 인정을 촉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국제여론의 전환계기로 삼으려는 오는 5월 미 연방의회 연설을 저지하는 운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동아시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첨단적

세력이 동아시아가 지난날 체험했던 일본의 그것이 아닌 조화 능력의 발휘를 요청한다. 이같은 대등관계의 성립이야말로 일본의 이익에도 지속적으로 도덕을 부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간의 공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익의 선율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양심 문제에서 나아가 함께 향수 해야 할 세계 각 지역의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의 개척에 필요한 오늘과 내일의 명제학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국인의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아시아와 화해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관료적인 공감이야말로 한일 간의 국토분쟁 같은 현안 문제를 넘어서 바로 이러한 평화적인 발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3)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새벽 참의원 특별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신안보법을 전격적으로 강행 처리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벌어지는 무력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의 역사는 이날을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보법) 반대와 원전 반대 목소리가 결합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국민의 90%가 넘는 반대여론과 반대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 1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전해온다.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이번 참의원에서 통과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이자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오로지 방위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연합국의 초기 점령정책은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요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기 위한 방책 마련에 힘써왔다.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지만, 종전 후 독일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를 극복한 반면, 일본은 과거와의 진지한 대면을 회피함으로써 군국주의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배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추모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베가 안보법 추진을 밀어 붙이는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의 전쟁권을 얻기 위함이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권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현행 헌법을 뒤집는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과 헌법 수호 민의라는 이중 장벽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침략을 부인하고 사과를 거부하며 또 다시 평화헌법을 위배하려 하고 있어 이런 정부가 일본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 일본국민과 세계인의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우경 세력이 판을 치고 역사 수정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작금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평화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평화헌법에 명기된 전쟁 포기, 무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규정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몇 가지 논란을 수반한다. 우선 한국, 중국 등 과거 식민 지배 및 침략의 피해를 본 주변국들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역내 국가들이 반발 할 수 있다.

안보법을 통과시켜 전쟁권을 얻고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유능한 조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미국의 지역 패권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반면 일본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서 더 많은 안전보장을 받아내어 일본이 과거 침략 확장을 통해 얻은 권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전쟁권을 획득하게 되면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태평양에서 각종 화근을 일으킬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환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 정책의 방향은 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탈냉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중국이 지역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역내 군비 경쟁과 패권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혼자만의 고집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평화와 미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국민들의 양심과 식견을 무시하면서 일본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사고를 가진 아베정권은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안보법” 강행처리에 강력히 규탄하고 우려한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 듯 바로 일본이 한반도에 위기가 발발할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당한 추한 모습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본에 기회를 주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때는 늦었지만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놓고 남북한이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2015-09-27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너희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외부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창조해야 한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 가는데, 각자의 취미나 직업관으로 물들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우리자신의 자로 이웃을 재고, 나에게만 통용되는 산법으로 사람을 계산한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즉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심한 꼴을 누누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나 참다 못해 한마디 해야겠다. 늙은이란 흔히 젊은이들의 하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법이 가끔 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한 가지 불상사는 못 들은 체 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둘러싸고 우리사회가 시끄럽다. 우리사회가 왜 이리 거칠고, 과격해지는 걸까. 개인도, 단체도, 때론 아주 막가는 사람들 같다.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신부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종교에 적합한 영역에서 정치는 정치에 적합한 현실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나 신의 이름을 앞세워 민중을 호도하는 종교인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박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년 하루 전인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한 시국 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며 독도에서 훈련 하려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 (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예요”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입에 담았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에 저질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 젊은 장병들과 민간인 등 20 여명의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된 그 때의 참상을 필자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박 신부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개입을 넘어 종북 논란까지 일게 하는 촉진제가 됐다. 신성한 사제복 뒤에 숨어 종북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 그의 발언은 성직자가 지녀야 할 사랑과 평화, 용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 이 지구 상에 유일하게 3대 독재세습 국가로 민중을 억압하고, 굶기며, 저항하면 살해하는 반인륜 국가 북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해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저급한 정치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종교가 가세하면서 해법이 더 옥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북한 편을 드는 자들은 내 눈에 전부 정신질환자이거나 미친놈들로 보인다. 어떤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건전한 이성적 사고를 거부하거나 해칠 수는 없으며 우리들의 생활을 불행으로 이끌어 갈 권리가 없다. 하물며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 인식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의 한국 정치의 혼란은 한반도의 안보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데 박 신부의 발언은 국론 분열만 조장할 뿐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순진한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장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신부로서 이번 발언으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전사자 및 유족, 군 장병, 순국선열, 보훈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는 것이 성직자의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종교인의 본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

참고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신장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표방하는 일부 천주교 사제들로 구성된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이다. 그러나 주교회의 인준 단체가 아니며 사제단의 의견은 천주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12-06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제 얼굴에 침을 뱉지 말라

지구 위에 70 억의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 모두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견해이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풍습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름없는 인간이다. 얼굴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지만 종교의 신념에서 본다면 모두가 부처님이며,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인성을 지닌 인간이다. 세상살이가 점점 힘겹다고 한숨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지난 2014년 9월 20일 오랫동안 협상을 거듭해왔던 대한민국-캐나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고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에 국빈방문하였다. 대한민국 현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한인동포들의 마음은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몇몇의 시위대가 나타나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며 퇴진을 외치며 토론토는 물론 오타와에서도 부끄러운 한국인의 얼굴을 만천하에 들어냈다. 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그 나라와 민족의 얼굴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함께 도우고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고향은 조국이며, 조국은 어머니의 나라이다. 오늘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략에 눈이 어두워 순수한 고향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인격 속에 조국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 못지 않게 이념의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와 UN 방문을 비난하기 위해 토론토, 오타와 그리고 뉴욕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제 얼굴에 떨어진다는 옛날 속담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흐뭇함과 자부심을 가집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란 없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치우쳐 있는 것이다. 꽃의 대표가 될 만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장미일 것이다. 그 곱고 향기로운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미가 아무리 좋은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능금과 같은 과일이 열리지 않고 또 그 줄기가 아무리 굵어 보았자 기둥감이 될 수는 없다. 장미는 오직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 가치가 있을 뿐이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상호 협조함으로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의 불화와 분열이었다. 그 뿐리는 옛날 위정자들의 대수롭지 않은 감정의 싸움이었다. 그것이 사색 당쟁으로 확대되어 몇백 년을 계속해 내려왔는데, 냉철히 생각해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싸움 같은 것으로 아무 명분도 없는 감정의 다툼이었다. 그 싸움의 줄기가 민족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와 교육 등 여러분야가 놀랍게 발전한 반면에, 정치만은 크게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정치에 직접 관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나라나 다 진흙 구덩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진흙탕에 뛰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로울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에 흥미가 있는 이는 종교의 성직을 떠나 정계에 직접 나서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떳떳하고 또 종교계에 혼탁을 빚어낼 염려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나 개인의 소견이다.

현명한 나사렛의 성자는 “카이자의 것은 카이자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가르쳤다. 이것이 그의 투철한 신념이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10)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가가 그립다 .

아침 TV 뉴스를 보니 지금 한국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모양인데 소위 국회의원이란 자가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듣기도 민망한 막말을 하니 상대방은 다음 말을 이을 수 없는 모양이다. 민주정치는 좋은 정책의 경쟁이지 정치 싸움이 아니다.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의 과정을 TV로 지켜보면서 몇 번씩 한숨을 쉬게했다. 민주 정치를 본격적으로 펴 나가자는 선량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다. 얼마 전 국무총리 자리를 비롯한 주요 정부요직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의 논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국가정책이 지연되는 정책적 혼란을 겪는 것을 보아왔다.

특히 국민이 선택한 국가원수(대통령)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데는 우선 먼저 정치적 안정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민족은 해방후 오늘날까지 오랜 기간동안 정치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같이 분규와 혼란과 분파분쟁으로 평안한 날이 없이 지내왔으며 작금에 있어서도 지난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렇다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누구를 탓할바도 아니나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단합이 잘 안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불안정 요인이 무엇인지 해방후 지금까지의 생생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념의 방향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제 얼굴에 떨어진다는 옛날 속담은 조금 저속하지만 자고로 우리 민족의 예의 지도를 지켜오는데 좋은 교훈으로 남아있다. 남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백번 당연하나 남의 잘못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선은 악을 개순시킬 수 있으나 악은 악을 개순시키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특히 정치의 보복은 피아 공멸을 전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입법부가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인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품격 있는 제도로 진행된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청문회의 진행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이 아니라 정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장으로 국민의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이게 웬 일인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난도질 되고 명예가 극심하게 훼손되는 경우를 본다. 심지어 인격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가 되었으니 어찌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의 심사의 장이 아니라 마치 정치투쟁 활약의 장으로 변질된 것처럼 보임은 어찌 되었든 정상이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실세정치 지도자들이시여! 당리당략에 휘말려 추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인으로 탈바꿈될 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럼으로써 무가치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 없이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하는 정치지도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약소 민족이란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에 억눌리며 살아가는 적은 영토에 미개한 소수 민족을 말하는데 미개한 소수민족은 억눌려 살다보면 자연히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주체성이 약하거나 없게되면 나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부선택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무책임한 자기 안일만을 바라는 비굴자가 된다. 이렇게 주체성이나 긍지를 살리기 어려운 민족은 비록 자기 나라가 있어도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에 앞서 나라를 이용하여 내가 먼저 어떻게 출세를 하며 돈을 벌까 하는 사리 사욕에만 혈안이된다. 이렇게 이념생활의 통일을 찾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은 언제나 불안정 속에 혼란만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사회에도 애국, 애족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있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나라를 바로 잡고 국민을 잘살게 하였어도 무슨 정권이니 무슨 독재니 하여 비리, 시비의 비난은 떠들썩 해도 국가 공동선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다. 이 역시 주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 약소 민족의 사회는 사상적 갈등으로 혼란이 겹치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 약소민족이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혼돈과 무질서는 아무 조직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오랜 세월동안의 정치적 혼란상을 돌이켜 보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약소민족이 아닌가 고찰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재 정립하고 희망찬 새 삶의 긍지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2014.10)

## 봄은 가는데 추위는 그대로

금년 봄은 따스해지나 싶을 때 비가 오고 추위가 몰아쳤다. 해가 지면 한기를 느껴야 하는 이상한 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봄이 그리운 것은 추운 지난 겨울의 혹한에 시달린 때문이다. 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 빨리 지나 가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여름 무더위 같은 시련이 예상되기 전 아직 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지난 겨울 내린 얼음비로 온통 나무뿌리가 뽑혀 넘어지고 가지들이 부러지고 전선줄이 끊기면서 세상이 암흑으로 마비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패한 인간관계, 육체의 질병, 가정적인 우환과 고통으로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사건들의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불안과 혼돈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는 것을 보곤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총수나 임원들, 그리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인기 절정의 탤런트들이 정신적 혹한기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4월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희생된 어린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단장으로 동행했다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남은 사실이 죄스러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기 안산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 그가 극단적으로 보여 주었듯이 희생이 큰 사고의 생존자에게 그 자체가 가혹한 짐이고 형벌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진도 앞바다에는 부모들이 매아리 없는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거친 바다 물결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침몰사고는 인재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재난 중에서 천재지변보다 인재는 훨씬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원망과 증오, 안타까움, 후회 등 복합적인 감정의 후유증을 길게 남긴다. 그래서 인재의 희생자, 생존자는 우리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치유가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피곤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라고하면 피해나 갈등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된다. 피해를 입거나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 받지 않고 사는 것이다. 어른들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욕망으로 일어난 이번 세월호의 혼란한 구조작업 상황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했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온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수술해서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 관료사회와 민간업계의 얹히고 설킨 비리 유착 관계를 완전히 혁파해 새로운 국가 개조를 이루어 내야 한다.

우리 앞에는 견디기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을 빼는 이념 논쟁이 끝이 없고 지루하여 서글프기만 하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지방선거 운동에서 표출되고 있는 각종의 비방과 욕설과 저급한 정치 형태의 먹구름이 이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밥맛이 없다. 한가지 더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40%가 전과기록이 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불의의 사고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나라에 충격적인 재난이 발생한 판국에 국민들이 합심하여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정부만 탓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작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어느대학의 석좌교수라는 소위 석학이라 자처하는 어느 인간은 국민들의 과반수가 선출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하야 하라며 어느 신문에 기고하여 일부 반정부 여론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있다. 소위 학계의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자기 딸자식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는 꼴이 참 가관이다. 한마디로 부끄럽고 못난 인간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추모식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추모에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의 정신 나간 신부와 수녀들이 추모미사를 빙자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과 정부 탓도를 위한 촛불 선동미사를 하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미친 놈들이다. 이들의 행동과 인간이하의 모독적인 언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도 침몰된 선박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이 비참한 심정의 부모들이 슬픔과 분노를 극복하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간 자녀들을 편히 잠들게 하기 위해 정상적인 삶을 다시 찾도록 우리 모두 조용히 성원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조국이 이렇게 발전 했고, 국민이 이만치라도 잘 살게

되었으니 이 시기야말로 온 국민이 서로 이해와 양보를 하고, 서로 참고 기다리며 협동하는 민주주의의 풍만한 철리를 몸소 실천해야할 엄숙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가장 적임자라고 뽑아놓은 이상 그 선출된 자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정돈해 주어야 한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참된 민주국가로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세월호의 구조작업이 길어질수록 올해 날씨는 봄다운 봄이 없이 추위를 동반한 채찍질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2014.05)

## 새 삶의 길을 찾아서

현대사회는 공포 시대, 불안정 시대, 위기 절박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유행처럼 떠도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다. 아니 무관심하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런데 절박한 세계 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학문명의 위협이다. 그간 과학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찬란한 기대를 주면서 발전일보를 거듭해 왔으나 그 과학은 발전 과정에서 낳은 또 하나의 과학의 힘의 횡포는 과학이 이를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힘을 살인 광선이니 원자핵이니 하는데 원자력의 위협을 막을 만한 큰 힘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나 바로 이런 생각이 세계를 위기로 이끌어 온 것이다.

최근 들어 핵무기 보유국이 늘고 있을뿐 아니라 핵무기 발사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한사람의 우연한 실수나 오판으로 언제든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싸우기 위한 과학은 더 이상 발전하면 인류의 모든 문명이 하루 아침에 섬멸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이르렀다. 여기에 현대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 삶의 길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 개조되고 새 사회 질서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2차 대전 연합국의 승리로 미소 양국 틈바구니에서 38 이북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이남은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이 되었다. 이로써 한민족은 골육상잔의 비참한 해방에 사는 시작이 된다. 이북 공산당의 독재정치는 소위 노동계급의 사회 혁명이라는 상투적 수단으로 인민의 숙청 학살선풍을 일으켜 의식분자와 종교인, 유산자와 자유애호 인민을 수 없이 학살하고 적화통일을 꾀한 나머지 6.25동란을 일으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족을 죽였으며 온갖 테러음모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어디서 어떤 살인극이 일어날지 예측 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참으로 그들이 꾸며내는 온갖 파괴음모와 테러행위, 지금 진행중인 지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세계 자유인민의 안목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이북 공산주의의 정치 실태이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이여 계급혁명이라는 시대적 악몽에서 깨어나 진정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길만이 서로 믿고 의탁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남의 정치는 그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우선 정치적 안정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민족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정치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분규와 혼란과 분파분쟁으로 평안할 날이 없이 지내왔으며 작금에 있어서도 마냥 지난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단합이 잘 안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불안정 요인이 무엇인지 생생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민족의 통일이념의 방향을 찾아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싸우지 않는 사회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고 복지사회 건설의 미래상을 성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해방을 맞이한 조국은 정부수립, 6.25동란, 4.19혁명, 5.16군사혁명 등 끊임없이 있어 온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날 우리조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곳이 밝힐 필요도 없지만 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혁명정부가 오늘의 한국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군사혁명정부 아래 못살게 된 이도 있겠지만 잘 살게 된 이들에 비하면 극소수 일 것이다. 그 증거는 현재 한국의 찬란한 발전상이 말해주고 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 1961년의 국민소득 역시 83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4년 2만6천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같은 고도성장은 세기적으로 유래없는 것이라고 한다. 역사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이 소중한 전환점에서 모름지기 정치인은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의 앞날을 빛내야 하리라 믿는다. 나라가 이렇게 발전 했고 국민이 잘 살게 되었으니 이 시기야말로 온 국민이 서로 이해와 양보를 하고 서로 참고 기다리며 협동하는 민주주의의 풍만한 철리를 몸소 실천해야할 엄숙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2014.06)

## 얼음비와 눈폭풍

집 앞 잔디밭에 높이가 3 미터에 가까운 상록수가 한 그루 심어져 있다. 이 푸른 상록수는 7년 전 집뒤 울타리에 있는 것을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동안 푸른 잎을 하고 있어 새들의 잠자리와 놀이터인 동시에 집을 적당히 가려 주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아침이면 그 속에서 지저기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아침 잠을 설치기도 한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라이트 장식물을 달아 살아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밤이면 제법 멋진 성탄절 기분을 내게 한다. 지난 성탄절에도 찬란한 색갈의 불빛을 달고 있었다.

알래스카 북단을 휘감아 내려오는 삭풍에 온 몸이 뒤틀리도록 바람과 맞서고 있는 거리의 가로수 단풍나무 가지 위에 상고대가 하얗게 피고 눈꽃 씨앗이 영글고 있다. 가을 낙엽을 떨어뜨리고 지금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찬란한 불빛으로 뽐내고 있는 앞뜰의 상록수는 자랑이라도 하는 듯 흰 눈을 이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에 들떠 있던 지난 12월 20일 밤부터 불어닥친 얼음비로 광역토론토 지역의 많은 주택들이 정전사태를 겪었다. 얼어붙은 나무 가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진 가지들이 온 도시 전체의 주택과 거리들을 뒤덮는 등 나무들의 피해가 상당히 일어났다. 이같은 부러진 나무들의 피해 상황은 광역 토론토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부러진 나무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시당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얼음비는 과냉각된 비가 바닥에 내려 떨어지자 마자 어는 것으로 우박처럼 큰 피해를 미친다. 토론토 전력공사에 따르면 얼음비가 무겁게 쌓인 전선이 끊어지고,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지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것이 대형 정전사태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홀리데이 시즌에 갑작스런 정전 사태로 빚어진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이 아니었고, 일년 중 가장 매출이 높은 크리스마스 계절의 쇼핑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바깥은 온통 얼음세상이 되어 버렸다. 내리던 비가 찬공기와 만나 얼음이 되어 베린 것인데, 때문에 도시 곳곳의 나무에는 하늘에서 내리던 얼음비가 그대로 얼

어 투명한 얼음꽃을 피웠고, 4계절 동안 푸른 잎사귀들은 마치 투명한 액체를 듬뿍 뒤집어 쓴듯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수많은 수목들이 재난을 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정전사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 순간에 무기력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얼음비와 정전사태는 비켜가지 않았다. 앞집에도 상록수 한 그루가 있는데 얼음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 우리집의 상록수는 무거운 얼음을 달고 45도 방향으로 굽어져 있다. 다행하게도 우리집에는 24 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으나 다른 지역에는 1 주일 동안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추위에 떨었고, 수도관이 얼어 파열되고 상당수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고픔을 겪었다고 한다.

얼음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론토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폭설이 내렸다. 온 세상이 흰 빛깔로 변해 버렸다. 집과 도로, 자연 전체를 덮어 버렸다. 집앞의 상록수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라이트 불빛을 구불어진 등에 업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되는 수정같은 얼음꽃과 눈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적설량이 많은데다 바람마저 세차니 시선 가는 곳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예술작품 천지다. 하이웨이에서 속도를 뽐내던 차들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속도를 줄이고 수려한 경관에 넋을 뺏았진다.

집뒤뜰에는 많은 눈이 내려 끝이 보이지 않는 설원, 아무도 앞서 걸어 간이 없는 적막하고 맑게 빛나는 눈길을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다. 눈 속에 파묻인 겨울들판은 황량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생명을 품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따스하고 포근하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이 겨울이 깊어가면 봄이 가까워진다는 진리에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인다.

얼음비로 인한 정전사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구되고 길거리에 부러진 나무들의 잔해들도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토론토 지역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는 나무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집 앞의 구불어진 상록수도 봄이오면 옛 모습 그대로 바르게 일어 설 것이다.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험한 전기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은 말이 없는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했던가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쓰라는 좋은 교훈이었다. (2014-02-13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 한해를 보내면서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14년 갑오년 청말띠 해,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긍정적 기대를 걸었던 그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해마다 맞는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서 치르는 일이지만 언제나 이 때쯤이 되면 설레고 분주하여 마음이 예사롭지 못하다.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세월의 빠름에 흠칫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사히 한 해를 보냈음에 아쉬움과 후회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간이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불평과 탄식보다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세모란 한해의 마침이자 새로움이 시작되는 분깃점이다. 세모의 길목에 서면 많은 회한도 떠오른다. 그렇다고 놀면서 여유롭게 지내온 것도 아닌데 계획했던대로 되어진 것은 별로 없다. 인터넷 사회의 기계주의적 습관에 빠져 아침에 눈뜨고 밤에 눈 붙이기까지 어찌나 바쁜 일정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지, 깊은 밤에 아득히 빛나는 별들을 헤아리며 삶과 영원과 사랑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육체조차도 이미 컴퓨터나 기계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연한 생각에 빠져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해가 저문다는 일이, 마치 시작했는가 하면 어느새 세모가 오고 세모인가 하더니 어느새 한 해의 모서리가 사라져 눈덮인 곳에 신록이 물들곤 한다. 세월,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이제 고희를 넘어서니 허전함과 쓸쓸함 때문에 별일도 없이 허둥거리고 지척거리며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그냥 덤덤히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년과 같이 지난주에 반세기 전 부풀었던 기대와 희망을 지니고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건너온 젊은이들의 모임인 재 캐나다 독일 동우회 연말파티가 있었다. 지금은 흰 머리를 한 고희의 나이지만 그땐 가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간호사들의 모임이다. 머나먼 이국땅 독일에서 흘린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조국 산업화의 성장동력이 되어 오늘의 경제강국을 이루하게 한 밑거름이 된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열리는 독일동우회 연말파티에서는 다른 계절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심오한 철학자가 되어보기도

하는 순간들이다. 이국 땅에서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중매쟁이도 없이 짹이되는 우연치고는 너무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렇게 맺어진 젊은이들의 결혼은 물 한 그릇 놓고 장난(?)같은 식을 올린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뜻대로 천생연분으로 캐나다로 옮겨와 모범가정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 조국의 해외인력 수출이 된 동우회원들은 오늘의 산업화된 조국의 건설에 중요한 원동력의 역할을 했으며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이민문호를 개척하는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자랑스럽다. 고국을 떠날 때의 그 젊음은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붉게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순리인 것이다. 우리들의 머리카락의 백발도 그냥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혹은 기쁨과 환희의 그런 희로애락의 풍랑 속에서 그렇게 물들어간 개인의 역사인 것이다.

올해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정치사회는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남쪽에선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국가안보 사회 전반에 안타깝고 비통한 일들이 많았으며, 북쪽에서는 국민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한 해였다. 북한은 인민들의 식량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남적화통일을 집착하고 핵무기 개발에 세 월을 보내고 있다. 새해에는 어색했던 남북한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따스한 손잡음으로 서로의 인간애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체온을 느껴보자. 순리를 쫓고 순리를 따른다는 일은 결코 비겁이나 도피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일이며 바로 정도를 걷는 일이다. 정도란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명분이 있고 후회가 없고 다시 후사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때는 어김없이 제 궤도를 굴러가고 있다. 이제 몇 시간이면 이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온다. 제야의 밤이 오고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축포소리가 울릴 것이다. 바로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아니 한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 시대가 문을 여는 장엄한 축포소리가 전 지구촌을 울릴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 2015년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화해와 상호협력하는 공존공영의 모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해를 보낸다.

지나간 날들을 보내는 것이 송년의 의미가 아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송년의 의미이다. 연말은 누구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운 때이다. 고향을 먼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조용히 뜻있고 영구한 의미를 갖는 삶의 내용을 기리면서 연말을 맞도록 하자. (2014)

## 희망의 새해 2015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아침 해가 솟아 오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는 힘찬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월의 풍랑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새해의 동터오는 이 아침을 위해 삶의 꽃은 피어나는 것이다.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듯 허망하게 가고 오는 것이지만, 항상 가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그 아쉬움의 언저리를 빙빙 돌면서 기나긴 삶의 희랑에 꽃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건 새해 새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반도와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려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굳게 단합함으로써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해였으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 치열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살아진 파란만장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통쾌한 것이었다. 또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북한에서는 핵을 무기로 벼랑끝 전술로 펴오는 북한정권의 끊임 없는 도발행위로 인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상태가 계속돼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UN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를 국제형사 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한 결의안인데 인권과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캐나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있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했다. 이로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출범을 선언했다.

새해 첫날부터 한국-캐나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니 양국간의

장밋빛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한인사회의 경제는 아직 힘들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한 수년간 한인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다른 민족 출신들에 비하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치후보생들을 위한 한인사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루가 새벽에서 저녁으로 저물 듯이 한 해도 봄에서 겨울로 저물고 인생도 젊음에서 늙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믐달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의 바퀴에 맞추어 바둥거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면서도 세속적 욕망의 씨앗을 뿌려 잡초가 그득한 가슴으로 허망한 아픔을 맛보는 것이 삶이 아닌가. 한 해의 삶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한 해를 주기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맷기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것들은 꼭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혹은 무엇에게나 조금쯤은 양보하고 살아가는 미덕을 가져보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조국이 더욱 부강하고 강대해질 때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믿음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함께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이제 희망찬 2015년 을미년 푸른 양띠해(청양의 해)를 맞아 조국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융성하고 해외동포사회의 무한한 번영을 기원한다. (2015)

## 3월에 내리는 눈

3월이면 겨울을 벗고 폭신해진 땅에 발끝에서부터 스미는 따스한 봄의 기운이 충만한 때이다.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금년 겨울은 눈도 적게 오고 유난히도 포근하다. 예년 같으면 혹독한 바람과 한파가 몰아쳐서 대지가 꽁꽁 얼어붙었을 텐데, 기온은 영상으로 올랐고 2월인데도 부슬비가 내려 헷갈리게 하더니 3월 달에 들어서자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린다. 캐나다의 계절 감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리적이 아닌 것 같다.

금년에는 봄이 예년보다 빨리 오는 줄만 알았다. 봄이란 설렘과 훈훈함과 따뜻한 힘이 느껴지는 약동함이 있다. 그래서 봄은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기지개를 펴는 사랑받는 계절이다. 3월도 중순인데 어제와 오늘 눈이 내리고 있다. 들과 마을이 하얀 눈으로 덮여 버렸다. 이른 아침 뒷뜰을 내다보니 밤새 눈이 내려 소복이 쌓였다. 쌀쌀한 날씨에 흘날리는 눈을 맞으며 그 속을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비상하는 것을 보고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봄을 느낀다. 소리없이 눈이 날리니 분명 오는 봄을 축복하는 환상적인 눈발로만 보인다.

그러나 요즘 한반도의 봄소식은 우울하게 들려온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를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남북관계 전면단절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도 이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임으로서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의 3월이 재연되고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봄선 평화의 통로는 보이지 않으며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들어 갔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는 전쟁의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다. 과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거의 경험으로 봄서 무능과 무모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망나니식 1인 독제체제 유지 때문에 이 명분없는 전쟁놀이에 희생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은 불 보듯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금번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핵을 내려 놓고 통일기반 구축, 공동번영의 인프라를 구축,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받아들여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인간은 늘 과거와 달라지기를 바라는 일종의 혁명을 꿈꾼다. 고국에는 총선거를 몇 주 앞두고 기성 정치인들의 분열현상은 한마디로 꼴불견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리 좁은 사회일지라도 서로 화해하지 않고는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평화없이는 통일도 이를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적이 되는 이 삭막한 풍토 속에서 서로 싸우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구한말의 허동대던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럴 때일 수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계절이 되면 봄은 분명히 오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아무리 겨울이 길다하더라도 그 끝자락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차가운 눈보라라 할지라도 따뜻한 봄기운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이기도 하고 원래 그렇기도 하고 봄은 무척 짧다.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기 전에 마치 한 낮의 꿈처럼 이미 지나가버리는 것이 또한 캐나다의 짧은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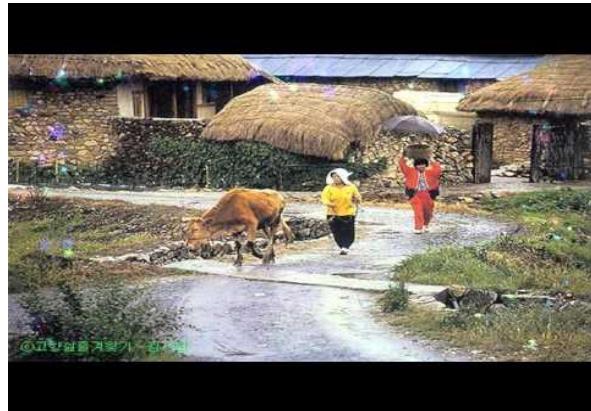
오늘도 허허로운 마음으로 3월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서 있으려니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으면서 내 가슴은 한반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가슴을 진다. 좁은 땅에서 민족끼리 싸우다가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부끄러운 역사가 한반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한낱의 "꿈"일 수도 있겠으나 동토의 땅 북한땅의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화를 이루고 개방되어 하루 빨리 해빙이 오기를 염원한다. 이럴 때에만 누구나 배부르고 사람대접받는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의 조국' 8천만 우리 민족이 자유 민주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6.3.)

## 고향만리

비행기가 높이 솟아 올랐다. 창아래로 토론토의 집들이 점점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보였다. 싱그러운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이 나의 마음을 기대와 설렘 속에 박꽃 피는 내 고향으로 향하기에 충분했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다.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는 내 가슴속에 흐르는 핏줄과 영혼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임을 자인하게 한다. 옛 모습을 찾을 길 없이 된 오늘 더 잊혀져가기 전에 옛 일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뿌리를 찾아온 것이다.

때마침 한가위와 함께 휴일을 맞은 우리는 가히 민족의 대이동을 체험한다. 모두 고향과 친지도 찾고 성묘도 하고 돌아왔으리라. 이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고향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도록 매력적인 단어이다. 잃어버린 고향, 가야 할 고향은 있지만 잊어야 할 고향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곳이 고향이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이다. 고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느 고을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 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행복한 동물이다. 지나간 일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좋은 일은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아름답던 어린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그 곳에는 나를 사랑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이 계셨고 형님, 누님과 별명으로 통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의 근본이 그곳에 있었고 모든 척도의 원형이 그 곳으로부터 나왔다. 그 보다 나의 모든 것이 그 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보통 귀향한다고 하지만, 돌아가게 된 동기나 처지에 따라 조금씩 특별한 단어로 표현한다. 힘든 객지생활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당당하게 고향을 찾는 경우는 환향이라 하고, 더욱 품격을 높여 “금의환향” 한다고도 말한다. 한양이나 다른 큰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갈 때는 주로 “낙향”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어쩐지 “낙향”한다는 말은 “환향”과 같이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귀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캐나다가 고향입네 하고 뿌리 내린지도 50여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본능처럼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귀소본능”이란 말이 있음을 보면 나만의 느낌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럼 타국에서 내린 뿌리가 이미 너무 깊어진 나는 환향도 아니요 낙향도 아닌 이번 고향방문은 무엇이라고 해야할까! 이런저런 상념으로 감회에 젖어 둘러본 나의 고향에는 기억 속의 장소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해 그 어느 곳도 누군가의 진정한 고향으로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내 고향은 경상남도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 전설에 의하면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자그마한 용소마을 태백산맥에서 뻗어져 나온 삼각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산골이다. 봄이 오면 살구 꽃이 온 동네를 덮고 진달래 불길이 온 산에 번지고 여름이면 냇물을 타고 은어 떼가 손살같이 올라오는 산골동네, 여느 동네와 다를 것이 없다.

조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선산에 올랐다. 나고 자란 고향 선산의 모습은 언제 봐도 정겹다. 수구초심 때문일까 참나무와 소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메마르고 단단한 갈대풀들이 서로 부등켜안고 서걱대는 풀밭에 누워 나의 유년시절을 회억한다. 달과 풀과 바람과 그리고 이 적막하게 떨어져 나았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한동안 갈대풀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가 꼭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마치 이별을 고하는 것 같은---.

선산에서 내려오며 옛집 근처에서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는 감나무에 다가가 우정 끌어안아 본다. 어릴 적 그 감나무에 올라가 놀고, 가을마다 토실토실한 감을 얻어먹던 그 감나무다. 과일 나무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무가 감나무라고 한다.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에 보호수로 지정된 540년된 감나무가 있다고 한다. 나의 고택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두 그루의 감나무는 몇살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오랫만에 안아보니 새삼스럽다. 내가 고향을 떠난지도 50여 년이 지났으니 많이 늙었을 텐데도 여전히 튼실한 뿌리를 더하며 아직은 넉넉한 수형을 자랑하고 있다.

고향은 틈만 나면 가보고 싶고, 막상 어려운 시간을 내어 가보면 짧은 시절, 꿈에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늙은 모습으로 나타난 허탈감으로 후회가 된다고 어느 누가 말을 했던가? 이젠 그리던 고향도, 시공간을 함께 누렸던 고향의 그리운 분들도 이마에 골깊고 넉넉한 웃음을 짓는 하회탈을 쓴 모습으로 늙어 가고 어쩔 수 없이 세월의 강물에 흘러 보내야 할 향수 또한 힘에 겨운 듯 흐느적거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정하게 흘러가는 세월 탓이다.

바다건너 천리만리 고향 찾아왔건만  
그대는 말이없고 어디를 갔나  
달아 산아 강아 말해다오 그대 간곳을  
아득한 옛날 사랑을 같이했던 그 동무들----

세월 속에는 망각이 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하늘을 날아오를 듯한 환희도, 땅속으로 가라앉을 듯한 비탄도 흐르는 세월 속에 용해되어 망각의 장으로 사라진다. 이국의 땅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더해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진다. 아무리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 삶을 꾸린다해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의 흙에서 태어났으니 고향의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가?

지금도 내고향 뒷산에 초여름의 신록을 준비하는 나무와 숲들, 그 아래로 옹기종기 이마를 맞대고 서있는 농가, 개울을 끼고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고 있을 아이들, 그런 지난 날의 추억으로 가득차있는 내 고향의 이미지는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고향은 그리움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적 형식은 달라지겠지만 따뜻함과 그리움은 여전하다. 적어도 나에게만은 지상의 낙원일 수 있다. 그래서 모두들 지친 몸으로 안식의 고향땅을 그리워 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떼지어 몰려 다녔나 보다. (2013)

## 이제 그만들 하자

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옛날보다 편하고 잘살게 되었고, 옛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그렇게 멀고 넓었던 지구는 좁아졌고, 우리나라로 동서남북으로 모두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가공할 부작용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은 권력욕과 물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검은 돈의 부정 사건들은 이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각 분야에서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있지만 쉽사리 뿐이지 않는 것은 오랜 타성을 쉽사리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최근 구속기소되었거나 청문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변명은 한결같이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러했고,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보더라도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되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이른바 이권에 관계된 고위 공무원들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검은 돈이 결재서류를 좌우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최근 TV뉴스에서 접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라는 죄목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다 한때 잘 나가던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보복이거나 탄압의 일환이고 표적수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옛 속담에 '꿩 잡는 것은 매'라는 말이 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꿩 잡는 것은 꿩이고 매 잡는 것은 매'인 것 같으니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을 잡는 사람이 언론이고, 정보부 출신 정치꾼을 잡는 사람이 정보부 출신 정치꾼이며, 검찰을 잡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니,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흔히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같은 종류의 짐승끼리는 잘 잡아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함부로 발견할 수

없는 살벌한 현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짐승이나 사람이냐를 막론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결국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싸움은, 돈이나 힘이나 지위거나를 막론하고 이미 가질 것은 다 가진, 특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며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진흙밭의 개싸움' 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전 정권의 과거를 심하게 꾸짖거나 헐뜯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난히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미 지나간 사건들을 뒤집고 거기에 관계했던 정치인들이나 동료 검찰들을 무단히 '혼내고 옷벗기고 벌주는' 이 짓거리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이를 돋는다는데. 한때 하늘을 날던 새도 떨어뜨리던 전직 검찰총장이요, 법무장관, 경찰총장, 첩보 방지역활을 하는 국가정보 기관의 장인 국정원장이 영락없이 검사 앞에 출근이 아니라 출두하여 긴 시간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실망한 지 무척 오래다. 이런 짓들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만 조장하는 꼴이니 남북통일을 논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바로 살자.

한국사회는 빨리 좀 정돈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혼란해서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옳고 그른 것도 분간하기 어렵다. 질서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혼란스러운 까닭은 물론 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격발될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가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보복적인 적폐청산의 울림이 아닌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지향한 협치와 상생 그리고 관용의 덕목을 보고 싶다. 전직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 삼성회장을 국가를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이제 그만 석방해주는 통 큰 자비를 배푸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세계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즉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따라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에는 정신의 즐거움과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참다운 화해와 관용이란 양심의 평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이며,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를 떠맡을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부패하고 썩어빠진 사회의 전형인 검은 돈 문화가 아침햇살에 안개걷히듯 사라지게 하는

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우리사회의 위쪽에서부터 이 부조리를 물갈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17.12)

##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

어느 덧 12월, 12월은 회한의 달이라고 한다. 그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시간과의 이별이 새삼스럽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자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 숨 막히도록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12월이 다가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아침부터 진눈깨비 섞인 눈발이 훌날리고 있다. 12월의 문턱에 들어서서, 또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되고 성급한 것일까. 사실, 한해 한해를 살다보면 한치도 어김없이 순환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계절에 무감각해지고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서 뒤늦게 '아차!' 싶을 때가 있다. 연말을 한 달 앞둔 12월은 올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채비를 갖춰야 할 달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값있고 내실있게 살고자 스스로가 각고의 노력을 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없이 항상 바쁘게 지나다 보니 계절감각이 둔해진 나는 그제서야 겨울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에 접어들 때마다, 내 마음은 잠시 무거워 진다. 그것은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성취하려 했던 일들이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시간은 봄, 여름, 가을로 화살처럼 바뀌고, 유수처럼 흘러왔다 는 것을 깨닫는 만각의 시점에서 잠시 지난 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닐 줄 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창조적인 성취의 기쁨을 찾는 일을 사는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꿈과 희망으로 산다.

한 해를 보내는 이러한 아쉬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 12월도 길게 남아 있지 않다. 지나간 올해 봄, 여름, 가을을 돌이켜 보면 이 겨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시 흘러갈 것이다. 나 자신이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증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편도의 여행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 바로 이 시간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한 해 동안 하늘과 땅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1년 동안 숨쉰 공기며, 햇볕이며 물, 그리고 땅의 은혜로 가꿔진 곡식들이며, 알게 모르게 이웃들로부터 베풀어진 인정들이 나에게 삶의 맛을 알게 해주고,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인정, 사랑, 감사하는 마음들은 너무나도 고가여서 도저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콩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심은 데서 팥을 거둔다’는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이며, 인과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어 들이게 되는 것은 농사일 뿐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 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내가 씨뿌리고 준만큼, 거두고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다. 특히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이기적인 속성으로 빚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통용된다는 얘기다. 또 자신이 심은 것도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 팥을 심어야 팥을 거두듯 상대방에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 들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각 사람의 주관에 달려있겠으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준다.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솔한 마음을 나누며 깊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충만하고 소중한 지인을 가졌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한순간이기에 남은 세월에 애착이 간다. 12월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달이면서, 아직 못다 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늘 끝맺음을 잘해야 하는 달이다. 또 다가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달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길, 그 나그네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승차권의 여행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2017.12)